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월 25일(음력 12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562 호

5 · 31지방선거 후보들 '꿈틀꿈틀'

불자들도 '잰걸음'

올부터 급여 … 불교계 일꾼들 '출사표'
'실천하는 삶' 영역 넓히기 발원
"정치인양성도 포교 토대" 의견 확산

불교계 대표적인 젊은 일꾼 정우식(38)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정책기획팀장. 요즘 그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불교계에 몸담은 지 10년 만에 '바깥나들이'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조계종립 동국대 철학과 88학번인 그는 1991년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는 등 소위 운동권 학생이었다. 졸업 후 1996년 대한불교청년회 조직부장 소임을 맡으며 자연스럽게 불교계에 입문했고, 조계사 청년회장,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사무처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그는 올 5월 3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견지동 45번지'가 포함돼 있는 서울 종로 제2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할 계획이다.

5 · 31 지방선거가 정치에 뜻을 둔 불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게도 올해부터 중산층 생활수준의 봉급(의정활동비)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전국 3500여명의 지방의원들에게 각각 4000~7000만원의 연봉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30~40대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세가지 정도로 분류된다"며 "지루한 도시생활을 접고 고향에 안착하려는 출향인들, 지역에서 쌓은 성취를 공적 영역으로 넓히려는 토착인들, 고용불안 시대에 인생전환을 모색하려는 직업 정치지망생들"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지역에서 쌓은 성취를 공적 영역으로 넓히려는 토착인' 불자 및 친불교인들이 상당수 도전장 내밀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김충용(종로구청장) 남상해(하림각 사장) 정창희(시의원) 이유택(송파구청장)씨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에서는 박흥수(한나라당 중앙위 부위원장)씨, 가평에서는 김영국씨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해 대구에서 이재용(환경부장관) 김태일(열린우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남해진(한나라당 대구시당 부대변인) 이훈(구청장)씨 등이, 포항에서 김순견(도의원)씨 등이, 경주에서 백상승(시장)씨 등이, 군위에서 장욱(도의원)씨 등이, 김천에서 김정기(도의원) 김성규(前 국정원 관리관) 김용대(변호사) 김종섭(前 도의원) 박판수(시축구협회회장) 정경수(변호사) 최대원(고려장학회장)씨 등이, 영주에서 권영창(시장) 우성호(도의원) 박시균(前 국회의원)씨 등이, 영천에서 손이목(시장)씨 등이, 예천에서 김수남(군수)씨 등이, 구미에서 남유진(前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국장)씨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김종관(향토문화연구소장) 김성길(시의원) 안성민(시의원) 안영일(구청장) 이종수(前 부산시청 감사관) 박인재(사업)씨 등이, 창원에서는 박완수(시장) 하해성(법무사) 허성무(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손석형(경남통일연대)씨 등이, 마산에서는 조영파(前 부시장) 황철곤(시장)씨 등이, 거창에서 강석진(군수)씨 등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에서는 황일봉(남구청장) 송병태(광산구청장) 범일규(풍경소리 광주모임대표)씨 등이 손꼽히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김진선(도지사) 이광재(국회의원)씨 등을 비롯해 평창에서 장문혁(오산레저대표)씨 등이, 춘천에서 조명수(청와대 인사제도개선비서관)씨 등이, 속초에서 장세호(前 속초시지역경제과장) 조동룡(변호사) 채용생(前 속초부시장)씨 등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불자 예비후보들과 측근들은 "우리나라 인구 중 불자가 가장 많지만 불자 정치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각종 정책에서 불교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불자 정치인들을 양성해 곳곳에서 역할을 해야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불자 정치인이나 친불교 정치인이 많을수록 각종 정책이나 예산 수립에 불교계 입장이 많이 반영되며, 이것이 바로 포교와 직결된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선진규(73)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겸 전국노인위원장)은 '요익중생(饒益衆生 · 중생을 이익 되게 한다)' 차원에서 불자들의 정치권 입성을 적극 주문한다.

선진규 고문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며 "불자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 '실천포교사'를 배출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준엽 · 천미희 · 김주일 · 남동우
조용수 · 배지선 · 이은비 기자

"수행 · 포교로 중흥기틀 마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올 주요사업 발표
"중도실천으로 양극화 극복"…10대 사업 '눈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수행과 포교로 종단안정과 중흥의 기틀 마련'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 종무기관 사업기조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지관 스님은 이날 "제32대 총무원은 무엇보다 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힘을 모아 갈 것"이라며 "종단의 가장 강력한 근본자원인 '수행'과 '포교'를 통해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안정속의 중흥'을 기조로 올해 종단운영 계획을 밝혔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착공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이 올해 목표라고 밝힌 지관 스님은 또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이웃을 위한 이타행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승가교육체계 정립 △지역포교활성화와 사회적 회향 △종무행정 교구 이양 등을 목표로 10대 핵심사업과 21대 주요사업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일연 · 삼국유사 대제전' 열린다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 맞아 7월 6일부터 한달간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는 '일연 · 삼국유사 대제전'이 일연 탄신일인 7월 6일(음 6월11일)부터 입적일인 8월 1일까지 한달 간 은해사와 인각사, 팔공산 일원에서 성대히 열릴 예정이다.

'반만년 민족혼을 찾아 나서는 은빛바다 대항해'를 주제로 열리는 '일연 · 삼국유사 대제전'은 팔관회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민족문화 및 불교문화의 멋과 흥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민족문화예술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 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한 남북한 공동학술대회와 청소년을 위한 민족정체성 고양 교육의 장인 인각청소년민족문화학교, 민족 고대사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삼국유사 설화 답사여행, 통일을 희망하는 열린마당, 일연문화상 시상, 템플스테이 팔공산 달빛 산행, 전통놀이 문화 체험의장인 인각팔관난장 등 다채로운 참여 체험 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봉행위원회는 1월 19일 경북대학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각종 행사의 기본 계획을 수립 2월부터 준비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배지선 기자

천태 · 진각종 군승 파송 '논의 활발'

윤국방, 3대 종교지도자와 '소수종교…' 의견 개진

천태종과 진각종의 군종장교 파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운광웅 국방부장관은 1월 19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군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종교지도자와 면담을 갖고 군종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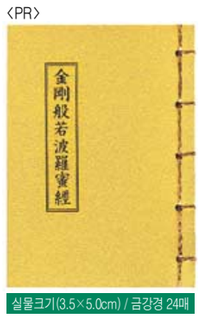
국방부장관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한국천주교 군종교구장 이기헌 주교가 참석해 4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는 소수 종교의 군종장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 군종실 관계자는, "불교의 경우 천태종과 진각종의 군종장교 파송에 관해 종단간 합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면담자리에서 "소수 종교에 대해서 민, 군간의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명확한 기준설정을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소수 종교의 군종장교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겠지만 종교계의 자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도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두식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가출청소년들의 삼촌' 유재성씨
공원입장료 폐지 앞과뒤 4면
태고종 신년사업계획 8면

한창 바쁜 연등공장 9면
일상용어에 수행이 18면
세계의 불교음악 23면
다시 돌아온 수덕여관 28면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황우석 교수 문제 함께 풀어갑시다.)

생명공학의 '생'자도 모르는 산승(山僧)들이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빈부에 개의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와 상관없는 자기 성찰의 종교입니다. 오히려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 진리 추구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우석 사건'의 문제를 거론함은 진실규명과 정의 구현의 과정이 자기 성찰 없이 너무 양극화로 치닫거나 소모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기적인 논문이 결국 조작으로 판명됨으로써 우리 모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른 이상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대체 어디까지 조작에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대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징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여전히 모종의 '음모론'들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황우석 박사 자신도 속았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꾸민 당사자라면 겨우 6개월의 시간을 벌어 뭐가 달라진다고 저리도 간절하게 호소하겠습니까? 결국 사는 게 아수라 지옥일 텐데요.

사람이든 일이든 모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법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것만을 들추자면 한도 없을 터인데, 지금 세간은 우선 마녀사냥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보자는 식입니다. 물론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만, 논문 조작의 당사자와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인정해야 할 성과마저 모두 평가절하 되거나 내동댕이쳐지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도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상처는 곪아터졌으니 마침내 새 살이 돋아나야 합니다. 황우석 개인의 책임만으로 진정 새 살이 돋을 수 있다면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응분의 처사이겠지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온 국민의 상처이자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기극의 주인공이건 음모론의 희생자이건 상관없이 그는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과학자에 불과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이윤을 좇아 달려들었던 기업이나 투자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를 앞장세웠던 정치인, 앞 다투어 그를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언론 등 사회 주요 구성원들의 책임 또한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아 함께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황우석의 허물은 결국 우리 모두의 허물입니다.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버리기는 쉬워도 쌓기는 어렵습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했던가요? 황박사의 허물을 나의 허물이라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으로 돌아가 그가 참회와 더불어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줍시다.
이미 황박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니, 그 치열한 참회의 방식 또한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종군의 과학자로 돌아가 과학적 성과를 내는 것만이 진정한 참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 과학계 내부의 분열과 국가적 · 경제적 · 정치적 · 종교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돈마저 어쩌면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비싼 수업료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탄생과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이치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호흡을 가다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회초리와 더불어 모성(母性)의 따스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객관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고대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도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연관**(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현봉**(전 조계종 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성관**(실천승가회 회장) **수안**(통도사축서암, 선화가) **일장**(지리산 황매암 주지) **원택**(조계종 중앙종회 부회장) **원명**(홍원사 회주) **종광**(중앙종회 의원) **진월**(동국대 정각원 원장) **현진**(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환성**(영평사 주지) **철오**(선우도량 공동대표) **현각**(원주 명륜복지관 관장) **세영**(신륵사 주지) **진원**(내소사 주지) **수완**(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 **설정**(덕숭총림수좌 /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장) **무비**(범어사 강사 / 전 조계종 교육원장) **혜인**(제주 약천사 회주) **현진**(선원수좌회) **법웅**(선원수좌회 운영위원) **홍륜**(운문사 주지) **일초**(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청암사 승가대학장) **요명**(동학사 주지) **일진**(운문사 승가대학 학감) **혜정**(봉녕사 승가대학 학감) 〈무순〉

종책모임 '기지개'

일승회 새회장 향적스님 등 집행부 선출
화엄회 종도설문으로 종책수립키로
승가회 인터넷언론 불교닷컴 오픈

조계종 중앙종회내 종책모임인 '일승회' '화엄회' '미래를여는승가회' 등은 최근 각 정파별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제32대 지관 총무원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선거법 개정과 동국대 이사장 선거,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그 어느해보다 굵직한 사안이 많아 이들 각 계파의 활동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일승회는 1월 19일 올해 첫 총회를 열고 회장에 중앙종회의원 향적스님, 부회장에 지만 · 장적 · 원담스님을 선출했다. 장적 스님은 종책위원장 겸직. 이날 총회에는 일승회 소속 종회의원 24명과 고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화엄회**(회장 성직)는 18일 회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종책과제 수립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화엄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오는 3월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단현안문제에 대한 종책과제 수립을 논의했다. 설문조사는 1월 21일까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종정기관의원, 중앙종회의원, 교계 종사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월 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종도공청회를 거쳐 3월 27일까지 '종책10개년 계획'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회장 성직 스님은 "미래지향적인 종단발전과 사회갈등의 통합를 모색하기 위해 창립된 화합공동체결사인 화엄회는 종단의 합리적 사고, 공평한 인사운영, 투명한 재정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를여는승가회(임시공동대표 보선 장주 설송)도 17일 비공개 종책위원회의를 열고 종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보림 · 금강회 소속 의원과 본사 주지스님 등 중진스님 13명은 이날 종단 현안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1월 20일 인터넷 언론 불교닷컴 창간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미래를 여는 승가회의 창립일정을 2월 초로 결정했다. **조용수 기자**

"폭력근절에 관심을"
천 법무, 지관스님 예방

천정배 법무장관은 1월 17일 오전11시30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해 올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4대 폭력근절을 위한 불교계의 지원을 부탁했다.

천정배 장관은 "4대 폭력근절(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학교폭력)을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비폭력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교와 스님들이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사회부장 지원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호법부장 도진스님, 신명 우리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배석했다.

조용수기자

"재해성금 감사합니다"
뉴올리언즈한인회장 지관스님 예방



태풍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 뉴올리언즈 한인회 이상호 회장은 1월 19일 오후 4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11일 사회부장 지원 스님을 단장으로 '카트리나 재해성금전달단'을 뉴올리언스 현지에 급파해 구호성금 14만 776달러(한화 1억3996만원)를 '카트리나 한인피해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피해교민을 위로했었다.

이상호 회장은 "3500억불(350조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계종이 큰 도움을 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대형불사보다 안정속 내실

조계종 신년사업, '교구본사 행정력 강화' 주목

지관 스님이 19일 밝힌 조계종의 올해 종무의 기조는 '수행과 포교' '안정과 중흥'이었다.

외형적인 대형불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안정속의 내실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11월 출범, 올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는 제32대 총무원 신년사업계획으로 보기에는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만큼 종단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다.

올해 추진될 10대 핵심사업과 21개 주요사업 가운데 주목할 것은 중앙종무행정의 교구이양이다. 예를 들어 가 · 나급 사찰을 제외한다 · 라급 사찰은 본사주지가 직접 말사 주지의 임명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교구별로 행정체계의 준비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교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공사비과다 등으로 현재 소송중인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은 제반 문제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계사 복원불사는 산신각과 만세루, 요사채 공사를 끝내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올해는 대웅보전을 비롯, 산신각과 만세루, 요사채의 단청불사를 추진하는 한편, 총 7개동의 건물(극락전, 축성전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수도권단위 공동사업으로 수도권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하는 수도권포교전진대회 연합법회 등을 준비 중이다. 단순한 신도교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문화를 순화시키는 포교전략을 펼친다.

더불어 해외특별 교구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 미주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지에 한국 절들이 총무원과 연결 고리를 갖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른다. 전통사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종단차원의 대책마련과 템플스테이 활성화한다. 또 조계종의 간화선을 수행 종지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조용수기자**

조계종 2006 주요사업

사업	사업 명
핵심사업	중앙 종무행정 교구이양 여건 확보
	수익사업 관리 및 지원강화와 신규사업 개발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건립
	승가교육제도 개선안 시행여건 준비
	간화선 대중화 방안 연구
	지역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
	불교사회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종단
	사회복지 전달 체계 확립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 센터 건립
주요사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 마련
	국고 보조사업 집행실태 조사
	중앙종무기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찰 예결산 강화
	사찰 부동산 정비 사업
	불교문화 종합정보 구축
	사찰종합방재대책 수립
	불교생명윤리 정립 및 실천방안 마련
	불교환경의제21 실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연수프로그램 개발
	불교사연구위원회 구성 운영
	4대 수행법 입문서 편찬
	신도 위계 및 수계 체계 정립
	국제포교 기반 구축
	신도 교육용 미디어 자료 생산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간화선 수행 계층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설립, 운영
	전통사찰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통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
	사업 활성화

"더이상 갈등은 곤란…"

중진스님 28명 황박사관련 성명 발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을 비롯한 중진 스님 28명은 1월 17일 최근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일간지와 교계신문에 각각 발표했다.

의견광고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성명은 객관적인 검찰수사와, 국민들은 차분한 대처로 우리사회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스님들은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의 과정이 자기 성찰 없이 너무 양극화로 치닫거나 소모적을 치닫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히고 "서울대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징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여전히 모종의 '음모론'들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황 박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니, 백의종군의 과학자로 돌아가 과학적 성과를 내는 것만이 진정한 참가 될 것"이라며 황 박사가 연기실로 돌아 갈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더 이상 과학계 내부의 분열과 국가적 · 경제적 · 정치적 · 종교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휘둘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수 기자

인터넷 카페 '황지불' 개설

한 인터넷포털에서는 '황우석 지키기 불자모임(cafe.daum.net/buljahws, 이하 황지불)'이 1월 14일 개설됐다. 황지불은 창립 취지문에서 "황지불은 불순한 배후세력과 어떤 음모로부터도 황 박사를 외호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개설 일주일여 만에 회원수 800명을 돌파한 황지불은 현재 황 박사의 연구 재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1寺 1 현수막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익순 기자**

경인방송 사업자선정 관련
조계종 입장 밝힌적 없어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1월 20일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 마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불교방송 사장 등이 기독교방송의 경인방송 사업자로 참여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컨소시엄의 행태에 유감을 표시했다.

동선 스님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일부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들이 마치 불교계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호도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이 투명한 방법과 원칙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포항시장 지관스님 방문 "스님들께 잘못 빌었다"

2004년 '홀리클럽'에서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문제를 빚었던 정장식 포항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정 시장은 최근 5월 30일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한 상태다.

정 시장은 "포항이 배출한 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무렵 마을에서 축하 플래카드를 내 걸었다"며 포항 불교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공인으로서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대덕 스님들과 불자들과 만나 잘못을 빌고 오해를 많이 풀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 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올해 초부터 녹원 스님 · 지성 스님을 찾는 등 경북지역 주요 사찰들을 돌며 불교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수 기자**

망실토지 5만평 되찾아

봉선사, 1년간 소송결과

망실재산 환수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철안)는 지난 1년간 본말사와 관련된 70필지 10만여 평에 대한 망실재산(유휴재산 포함) 소송을 진행, 18필지에서 승소해 5만여 평을 되찾게 됐다고 1월 19일 밝혔다.

봉선사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은 토지는 내원암 4만8000평을 비롯해 5만평이다. 내원암 토지를 제외하고도 공시지가 1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70필지 가운데 현재 34필지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회수 재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봉선사는 조사도중 화성 용주사 1필지(5천만 원 상당), 봉은사 2필지(6천만 원 상당)의 망실재산을 발견하여 총무원 재무부와 해당 사찰에도 통보하기도 했다. **박익순 기자**

관람료위원장에 범여스님
부위원장에 현응스님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새 위원장에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사진)이, 부위원장에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은 1월 18일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 관람료 사찰 전체 주지회의'를 열고 신임 관람료 위원 15명을 선출했다.

전체 72개의 관람료 사찰 중 53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에는 범여, 현응 스님외에 신흥사 주지 오현, 월정사 주지 정념, 법주사 주지 도공, 마곡사 주지 진각, 불국사 주지 종상, 금산사 주지 원행, 백양사 주지 두백, 화엄사 주지 종삼, 도갑사 주지 월우, 동학사 주지 요명 스님 등이 선출됐다. 재무부장 정만,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 **유철주 기자**



동국대 백상원에
종단지원 요청

석림동문회(회장 법타 · 은해사 주지) 가 동국대 비구 기숙사인 백상원과 비구니 기숙사인 혜광사 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석림동문회는 1월 18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학교로 토지를 넘겨주면 동문회가 종단과 학교의 도움을 받아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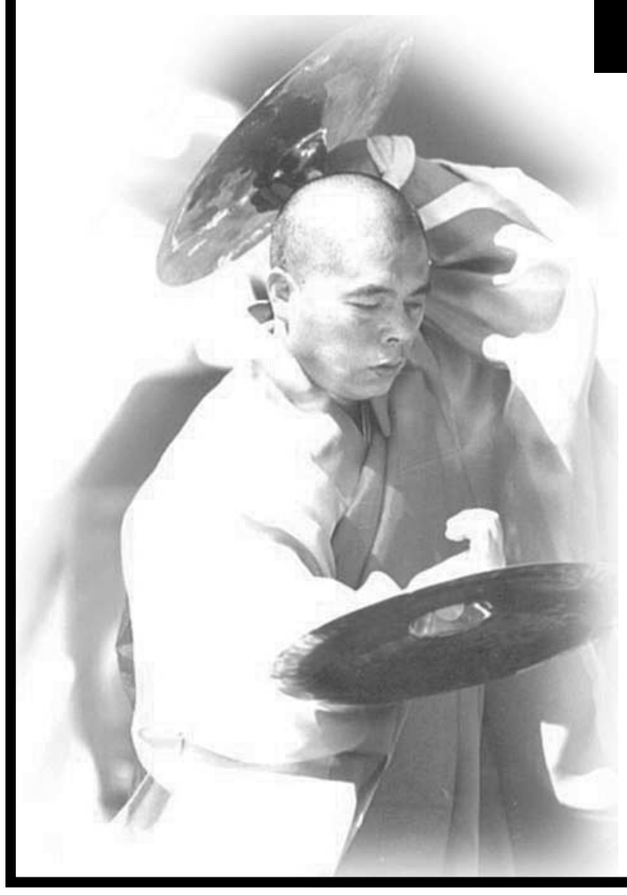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산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수륙재보유자

■ 개강일시 : 2006년 3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대학은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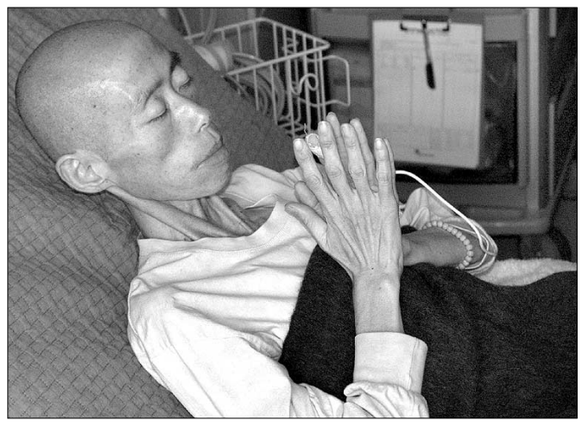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병실에 누워있는 지율 스님이 합장을 하고 있다.

"지율스님 외침에 귀를…"

환경단체 "단식만 보지 말아 달라" 호소문 발표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지율 스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외침을 정확히 봐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천성산 대책위와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연석회의 대표자들은 1월 16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중강당에서 '지율 스님 단식에 부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지율 스님의 단식만이 관심의 대상일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바라봐달라"고 촉구했다.

또 △부조리와 연결된 사회지도층 각성 △천성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 △(가칭)천성산 진실센터 설치 제안 등을 촉구했다.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과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 백남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병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대표,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호소문을 발표한 뒤 지율 스님이 입원해있는 병실을 찾아 건강회복을 기원했다.

대표단이 인사를 하는 동안 지율 스님은 기운 없는 합장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백남석 인드라망 공동대표는 "지율 스님이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 사회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셈"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석현 동국대 의무원장과 김영권 중환자실장 등 의료진은 1월 20일 "지율 스님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수액치료를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해 의료진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율 스님이 목숨을 걸고 밝히고자 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에 관계된 기관과 인사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스님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비의학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철도시설공단측이 "공동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측발표해 중단됐던 천성산 공동조사가 1월 20일 재개됐다. 조사는 1월말까지 마무리되며, 3월말 또는 4월초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다. 박봉영 기자

한국불교, 亞 네트워크 형성

캄보디아 · 스리랑카에 교육 · 복지시설 설립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등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아시아 국가를 연결하는 한국불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의 스리랑카 · 캄보디아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시엠립에 고아 보육 · 교육 시설 건립을 시작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국제NGO인 (사)실천불교는 2월 1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캄보디아 정부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준공 컷팅식을 할 예정이다.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로 명명된 이 시설은 실천불교가 2004년 10월 캄보디아 정부와 업무협정서를 체결해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은 1만2000평의 부지에 건립됐다.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원과 6개 학년별 30명 내외를 교육할 수 있는 초등학교, 부대시설 등을 갖춰 한국과 캄보디아의 불교교류의 상징으로 꼽힌다. 향후 중학교도 설립해 종합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스리랑카에 조계종마을을 건립한 조계종 총무원은 복지센터 건립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 · 스문화사회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 진행하는 조계종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3월 캄파지방 파살라 2만5000여평의 부지에서 첫 삽을 뜬다.

조계종 복지센터는 아동보육과 불교문화교류, 현지인 직업교육 등을 3대 사업으로 보육시설, 방문자 숙소, 식당, 보건소, 유치원, 행정실 등이 들어선다. 또 한국 전통사찰과 수행체험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과 실천불교의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지원이 아시아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성보문화재 4점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월 17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경합부>,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 <월인석보 권20>, 흥천사 종 등 모두 19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 965-(2호)로 지정된 <육경합부>는 금강경, 보현행원품, 대불정수능엄신주, 아미타경,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관세음보살예문 등 6가지 경전을 한 책으로 간행한 불서로 인쇄 상태가 양호하고 출간하게 된 경위가 분명해 불교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흥천사종은 고려 말부터 수용된 중국 종 요소가 한국 전통 종의 형식 및 요소와 가미돼 새로운 조선 전기의 종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 제1460호로 지정됐다.

조선 세종 29년(1447년)의 판본으로 알려져 있는 보물 제1459호 <해동조계복암화상잡저(海東曹溪宓庵和尙雜著)>는 충지 스님의 저술로 스님의 문집 중에 잡저(雜著)만을 간행한 현전하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월인석보 20권>은 조선 초기 불교경전 연구와 한글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아 보물 제745-(11)호로 지정됐다. 김두식 기자

'친일승려 108인' 저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지난해 3월 출간된 <친일승려 108인>에서 친일 행위자로 지목된 효당 최범술 스님의 유족이 저자 혜봉 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108명의 유족이나 문도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은 지난 8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소장에서 "<친일승려 108인>이 고인의 항일운동사실에 대한 왜곡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누락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의 처분을 요구했다.

<친일승려 108인>에는 최범술 스님이 △사천 다솔사 주지직을 1928년부터 수행한 점 △북지황군위문단 일원으로 일본군 위문한 점 등을 근거로 최범술 스님을 친일승려로 분류돼 있다.

유족 채원화씨는 "최범술 스님은 독립운동에 몸바친 분"이라며 "왜곡된 저서가 후대 학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고민 끝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책의 저자 혜봉 스님은 "책에 기술된 내용은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없는 사실을 날조한 바 전혀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축했다. 박익순 기자

복지硏·건강가정센터 설립 조계종복지재단 계획 발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불교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설립하고 불교적 가정문화 형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사회복지재단은 1월 18일 내부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신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소하는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앞으로 승가복지사업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다각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6월 각 영역별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3월에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이외에도 불교사회복지 조사연구지를 발간한다. 이은비 기자

고려 감지금니 법화경 5억1천만원에 낙찰

1월 18일 열린 K옥션의 두 번째 경매에서 회화성이 뛰어난 변상도와 유려한 서체의 경문으로 관심을 모았던 '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 사경작품이 5억1000만원에 낙찰됐다(본지 561호 22면 참조).

고려시대 사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온 만큼 이 작품은 예상대로 높은 가격에 팔렸다. 강지연 기자

'복지시설 위탁 축소' 대책 촉구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제정안 간담회

조계종이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이 틀을 갖춰가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불교사회복지 진흥법 제정안을 위한 간담회'에는 총무원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및 단체, 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복지가 곧 포교'라며 "진흥법이 마련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위탁운영 축소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을 촉구하고, 교구본사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직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해 화방복지원 원장 효천 스님은 "종단 사회복지정책은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을 아우르는 큰 틀의 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교구본사에 직영 복지관을 하나씩 운영하는 방법을 건의했다.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 현각 스님은 "불교복지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복지위원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아직 진흥법과 관련돼 지원 부분보다는 규제에 관한 법령이 더 많다"며 수정보완할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종단 등록 법안,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에 조계종 스님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법안 등에 대해 "복지시설 운영의 자율적 폭을 좁혀가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사찰 부동산 재산출연에 대한 적격 · 부적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던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은 오는 2월 초 종무회의와 중앙종회의 검토를 거쳐 3월 본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은비 기자

해남 장애인복지관 수탁 대흥사, 연 4천만원 지원

해남 대흥사가 전남 서부권에서는 두번째로 복지기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불교계의 지역복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대흥사(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해남지부)를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자로 선정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의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대흥사는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 이어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도 운영하게 됐다. 이은비 기자

'홀로피는 연꽃' 모델 스님 입적

5일만에 발견…조촐하게 영결 다비



찬불가 '홀로피는 연꽃(서창업 곡)'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비구니 스님이 홀로 사는 사찰에서 입적한지 5일 후에나 발견된 뒤 뒤늦게 영결식을 치러 불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도 용인 동선사 주지 정원 스님(64 · 사진)이 법당 앞 낭떠러지 아래 풀밭에서 입적한 채로 발견된 것은 1월 15일 오전 10시경. 동선사에서 법회를 보기 위해 찾아 온 인근 군부대 장병들에 의해서였다. 정원 스님은 동선사에 홀로 거주하며 매주 일요일 군인들과 법회를 진행해 왔다. 동선사를 찾는 신도도 그리 많지 않아 늘 혼자였지만 일요일에는 불자들의 자원봉사로 군인들과 법회를 꾸려 왔다.

경찰과 의료진은 스님의 입적 시점을 11일로 보고 있다. 홀로 사는 스님이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진 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5일 후에나 법구가 발견된 것이다.

정원 스님과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신도 권모씨는 "지난12일 건강검진이 예약돼 있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안 받으셨다"며 "13일 재가 있어서 바쁘신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14세에 출가 한 정원 스님은 용인지역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군 장병들에 대한 각별한 포교 원력으로 군 장병 법회에 가장 정성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스님은 수행에도 철저하여 공양주 없이 홀로 사찰을 지키며 정진해 온 왔다.

정원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월 17일 동선사와 수원 연화장에서 조촐하게 거행됐다. 임연태 기자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4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 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 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10명	6개월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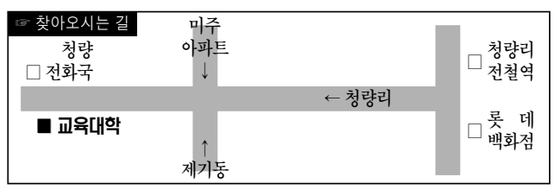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 木)
▶ **접수일자** : 2006年 1月 25日 ~ 2月 15日
▶ **입 학 일** : 2006年 1月 16日

☞ 찾아오시는 길



6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입장료 폐지, 다음은 관람료?
사찰수입 30%이상 감소 예상


1월 18일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관람료사찰 전체 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격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철주 기자

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의 앞과 뒤

2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1월 10일 환경부 이재용 장관 업무 보고를 통해 7월부터 변산반도 · 태안해안 · 다도해 · 한려해상 등 4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는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계획 단계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에 대한 해당 부처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13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21개 사찰과 9개 도(군)립공원에 위치한 9개 사찰이 소속된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조계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현재 입장료와 합동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관리비(?)

국립공원은 자연환경 보존 가치가 뛰어나고 국민의 휴식처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국민들의 자산이다.

매년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인근의 국립공원을 찾아 몸과 마음을 쉰다. 또 고승대덕들이 배출된 많은 고찰(古刹)들이 국립공원에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립공원은 '관리비' 명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자연공원법에 명시돼 있다.

자연공원법 제5장 37조 1항에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5월 속리산 국립공원부터 도입된 이후 1987년부터는 전국 18개 국립공원 188개 매표소에서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론이 왜 계속 제기 됐을까?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이 이미 국민휴양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국민시설'에 맞지 않는 적용이라는 것이다.

또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가 합동징수 되는 것도 입장료 폐지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 모두 '폐지 원칙' 합의

암묵적으로 '폐지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조계종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교감을 주고 받아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지난해 11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의견을 전달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관 스님은 11월 30일 이재용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출입할 때 입장료를 받는 문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폐지방침'을 전달받기도 했다. 또 12월 16일 지관 스님을 찾아온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입장료 폐지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폐지 원칙에 합의를 이룬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2000년대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2000년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흥사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신흥사에 대해서는 통합징수 합당 판결을 내렸고 천은사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문화연대 역시 "국립공원만을 관람할지 사찰을 둘러볼지의 여부는 시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문화재 관람의 의지가 없는 일반 등산객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유럽의 모든 나라와 일본, 뉴질랜드 등의 적지 않은 국가들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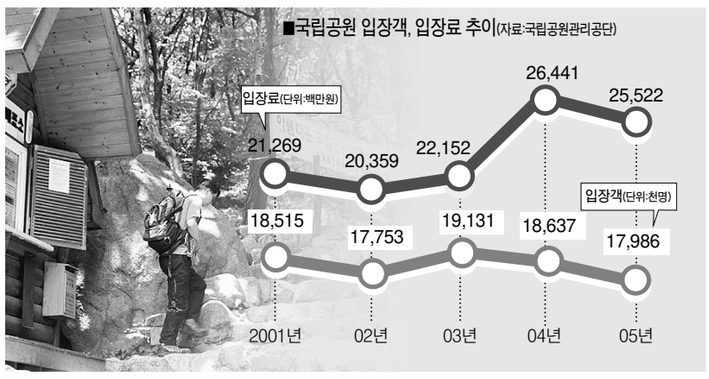
계룡산 갑사 주지 장곡 스님은 "문화관광자원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악재가 되고 있다"며 "갑사도 매년 10%이상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폐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을 표했다.

1월 18일 조계종 관람료사찰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 역시 대체적으로 폐지에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환경예산과 장대현 사무관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것을 폐지한다면 정부에서 그 돈을 충당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 세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실무자들도 "폐지는 대세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분담금 조정 등 대책 따라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조계종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조계종은 국립공원 사찰의 수입이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30%는 단순한 산술 추정치"라며 "실제로는 30%를 훨씬 웃도는 금액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 수입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계종 전체 예산 중 20%에 이르는 관람료 사찰의 분담금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종단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2006년 예산의 경우 전체 172억여원 중 관람료 사찰 분담금이 34억3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부가 신중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재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연간 300억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수입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장료가 폐지될 경우 300억원의 대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찰 자립 경제구조 만들어야

그렇다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조계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의 폐지 논의가 실무차원에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와 종단 수장의 '견해'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한 실무자는 "대책이 먼저 마련되고 폐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대"라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실무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들이 소유한 토지가 83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토지에 대해 사찰이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적지 않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막대한 예산 문제로 정부가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징수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 정부의 문화재 보수비 지원, 국립공원 내 관람료 사찰의 종단 분담금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립공원 내 관람료 사찰의 종단 분담금 규모 축소도 조계종 재정 구조의 '혁명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1월 18일 열린 조계종 관람료사찰 전체회의에서 지관 스님이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관 스님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총무원에는 이에 대한 연락이 없었다"면서도 "철저한 준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특히 "스님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검소하게 생활하는 기풍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들의 대부분이 관람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종단 차원에서 자립적 사찰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전문가들 "국립공원, 국민휴양지 자리매김"
국민시설에 '이용자 부담원칙' 적용 무리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도 부정적 여론 예상
"사찰운영에도 '경영 합리화' 도입을"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2006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 동방대학원대학교

특별 과정
- 민화진채 전문인 과정
- 명리학 최고 지도자 과정
- 풍수 최고위 과정
- 타로카드 전문가 특별과정
- 천문해석 전문가 특별과정



서화예술 분야
- 현대채묵화
- 전 각
- 한문서예

불교예술분야
- 불교기초교리
- 사찰기초의식
- 불교무용
- 불교전통의식

풍수 분야
- 실내풍수와 인테리어
- 풍수지리학

전통문화 분야
- 전통민요 실기

역경명리 분야
- 한방과 사주학
- 주역원전
- 실전사주명리학
- 육임학
- 관상학
- 복서육효학
- 국제 파동성명학
- 사주내정법
- 자미두수학

생활건강 분야
- 실전스포츠마사지
- 실전교정기법
- 실전테이핑요법
- 실전치유기공
- 검 도

◈ 접수기간 : 2006.1.2~2.28 ◈ 개 강 : 2006. 3. 6 (16주) ◈ 홈페이지 www.dongbang.ac.kr
◈ 문의전화 : 02)745-214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전화 접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2006년 전기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 · 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연구분야	학위과정	수업연한	모집정원
서화문예학과	서화예술학 고미술사학 문예심미학 옻칠조형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불교문예학과	대승경전학 불교예술학 불교의례학 불교경영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민간민속학과	전통민속학 민간무속학 민속연희학 전통율려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모집학과	연구분야	학위과정	수업연한	모집정원
자연치유학과	약성본초학 치유경락학 심리치료학 체련기공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미래예측학과	천문역경학 풍수지리학 신과명리학 예측상담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요가명상학과	유가요가학 간화명상학 위빠사나학 도가명상학	석사과정	2년	00명
		연구과정	1년	00명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www.dongbang.ac.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대표전화 02-745-2141

장애 · 종교 뛰어넘어 "마음 교감"

한국농아인협회 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들 표충사서 템플스테이



표충사 템플스테이를 마친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이 수화로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말없는 가운데 염화시중의 미소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았던 부처님 당시의 교감이 청각장애인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게 한 뜻깊은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표충사(주지 청운)와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가 1월 14일~15일 표충사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한 것이다.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의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인 박상훈씨와 주지 스님과의 인연이 연결고리가 됐다. 한국농아인협회 차원에서 사찰을 찾아 템플스테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농아인들은 제1기 농아인 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들로 각 지역 농아인협회 임원단들이 대부분이었다. 농아인들의 정치 참여나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좌로 마련된 정치아카데미 제5강으로 청운 스님의 '유구무언' 강의와 '달마야 우리하고도 놀자'라는 제목의 표충사 템플스테이가 함께 진행됐다.

60여 명에 가까운 이날 참가자 중 80%가 기독교 신자. 처음엔 어색해하거나 낯설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치 · 경제 · 문화 · 종교 등 사회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아인들은 그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불교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게다가 불교전문용어 통역이나 사찰 문화를 잘 아는 수화통역사도 드물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80% 기독교 신자, 수화 통역 어려움 겪어
다도 참선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에 매료

그러나 수련복을 입고 간단한 사찰 예절을 배운 뒤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이 깃든 경내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참가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다. 특히 앞서 들었던 청운 스님의 '유구무언' 강의가 경내를 돌아보는 내내 새록 새록 마음에서 되살아난다.

둘째 날, 2만 4천평에 이르는 대나무숲길을 걸을때는 대나무숲에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속 시름까지 시원하게 날려 버린다. 특히 다도, 참선, 발우공양 등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불교전통문화의 매력이 농아인들의 깊은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

표충사 박물관을 둘러본 변승일(48)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은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이해를 하게 됐다. 앞으로 불교가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장애를 뛰어넘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화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준비한 김상훈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은 "듣고 말할 수는 없다 해도 세상과의 소통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욕구"라며 "처음으로 사찰을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부처님의 미소를 만났으니 앞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55)352-107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현익채

부산 금정중학교 교법사

부산불교계를 가로로 세로로 꿰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현익채(55 · 무심) 금정중학교 교법사다.

그동안 부산의 크고 작은 신행단체의 사무국장, 총무 등 실무 경력을 거쳐 왔고 청소년 포교 최일선에서 뛰어오며 불교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권의 자료집을 펴냈다.

그 중 748개의 사암과 431개의 불교단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1993년 펴낸 <부산불교총람>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도로 한국불교총람 탄생의 촉매제가 됐다.

이후 현법사의 손을 거치면 자료가 된다는 통설이 생길 정도로 부산불교계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현법사의 몫이 됐다.

불교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심정으로 혹은 신행단체간의 연대와 교류로 불교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원력으로 자료에 매달렸고 현법사의 자식같은 자료집이 하나 둘 세상사람들에게 선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전국각지에서 그 책을 찾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1975년 <부산시 대학생불교연합회 10년사>를 시작으로 <부산불교안내 1 · 2> <부산불교인명록> <간추린 불교 50년사> 등을 펴냈고 <청소년 법회 길잡이> <중등학교 종교 교육에 관한 연구> <불자 신행의 길잡이> <부처님 만남은 기쁨이어라> 등의 저서와 논문 등이 쏟아졌다. 자료가 전무했던 불교계에선 둘도 없이 귀한 자료였다.

"5~6번이고 만날때까지 찾아 가서 자료를 파악하고 때론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했죠.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공중전화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불교총람>이 나온 뒤 현법사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힘든 고비를 넘겼다. 연등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부산불교중고등학생연합회 총무, 불심홍법원 사무국장 등의 1인 다역에다 6~7개월에 달하는 자료수집이 계속되면서 불규칙한 식사, 수면부족 등이 몸을 상하게 한 것이다.

꼼꼼함과 완벽을 꾀하는 현법사의 성격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 그 성격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부산불교총람> 2, 3권을 안만드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는 젊고 의욕 넘치는 후배들이 앞장서면 저는 뒤에서 돕겠다고 대답하죠.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이 불교계에 많아져서 저는 뒤에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현법사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의 여러 장학회에서 단순한 장학금 지급에 치중하지 말고 전문 종무원, 행정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부산불교를 통째로 꿰뚫고 있는 현법사지만 한가지 질문을 던지면 한참만에야 대답이 돌아온다. 그만큼 신중하다. 1969년 범어사에서 첫 수련회에 참가한 이후 '불교가 무작정 좋았다'는 현법사의 원력은 무엇일까?

부산 불교사암 · 단체 총정리 '불교총람' 발간
"부산불교 중흥이라는 화두 하루도 안 놓아요"

"단 한번도 부산불교 중흥이라는 화두를 놓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 전도전법이 최상의 공덕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수행에 더욱 철저해서 부처님 근본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대를 부처님처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천미희 기자

"업식 씻고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대원정사 '민수 49재' 봉행



1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원정사(상임법사 양재형) 큰법당에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중 지난해 11월 29일 세연을 다한 민수의 49재가 봉행됐다(사진). 민수의 아버지 김형찬씨와 어머니, 형 성수를 비롯한 친인척과 그동안 민수의 병원비 마련에 마음을 모아왔던 대원정사 신도 등이 참석했다.

양재형 법사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49재는 재대령의식, 관욕, 출욕참성, 상단의식, 관음시식의 순서로 2시간여 정성스럽게 봉행돼 민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민수 아버지 김형찬 씨는 "그동안 민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49재는 부산 대원정사에서 일체 모든 준비를 도맡아 민수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회향해 훈훈함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법회 교사 대만 연수
대불어 경남지구

어린이법회 선생님들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만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경남지구(회장 지광. 이하 대불어 경남지구) 소속 어린이 법회 담당 교사들 중 경력이 5년 이상된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여행은 대불어 경남지구와 대상 교사들이 소속된 사찰 주지 스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경비를 충당해 마련한 여행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번 여행은 어린이 포교에 관심과 뜻을 가지고 오랫동안 포교 현장에서 몸 담아온 이들을 격려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됐다.

지도교사들은 4박 5일 동안 중대산사, 춘추각, 불광산, 야류해양공원, 고궁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자신이 맡고 있는 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사진 자료와 내용 수집에 열성을 보였다.

이번 여행을 다녀온 황정민 대불어 경남지구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 현장에 함께 몸담고 있는 지도교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남사회복지협 사업 수립

경남지역 27개의 불교사회복지법인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06년 경남지역 불교복지의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안을 결정했다.

1월 17일 경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허)가 창원 인터내셔날 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하면서 2006년 한해 동안 '협의회 사무국장 단합대회, 협의회 중간관리자 슈퍼비전 교육, 우수사례발표회 등의 굵직한 공동사업안을 의결했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각 기관과의 연대와 정보 교류를 통해 경남 지역 불교복지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월 한차례 정례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월 모임은 각 기관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우수 프로그램 등을 체험해보기 위해 각 기관을 돌아가며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27개 기관 연합 체육대회 등 불교 복지 기관의 연대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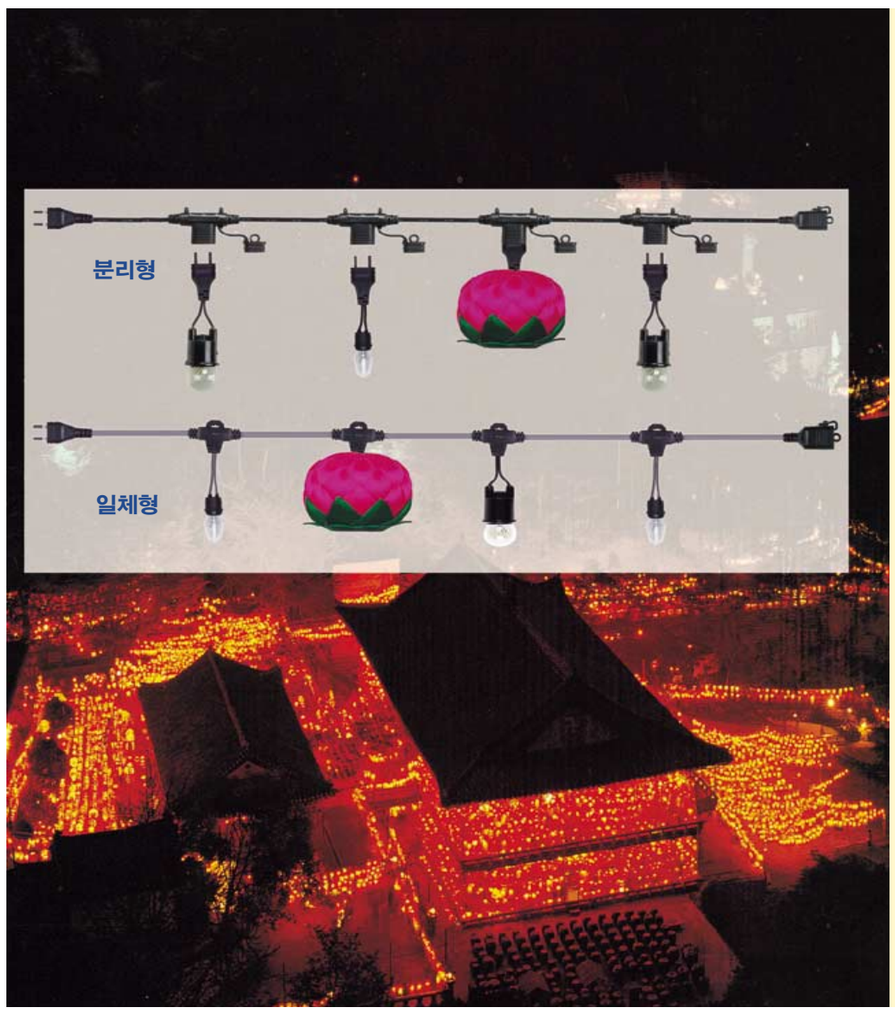
미륵종, 임시중앙종회 열어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긴급임시중앙종회(의장 지은스님)가 1월 18일 경남 창원시 문복정사(종회의장 주석사찰)에서 열렸다(사진). 종회의원 2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종법의 개정과 종단발전을 위한 기금모금, 복지법인 이사회 운영 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미륵종은 이날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중앙종회를 열기로 했다.

영민 경남서부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 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군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사랑스런 동생들 부처님 품으로

예천불교청년회, 지역 어린이 '추억만들기' 행사



예천지역 어린이들이 예천불교 청년회원들과 눈썰매를 타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활동 중단의 아쉬움을 딛고 작년 5월 재창립 된 예천불교청년회는 그간 50여명의 회원이 법회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매월 세 번 이상 법회를 갖고 3차례의 철야용맹전진법회와 3번의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연중계획보다 더 간절한 꿈이 있다. 어린이 법회를 설립해 '사랑스런 동생'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개최한 여름불교학교에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해 어린이 법회의 상설화는 올 여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억 만들기'도 동생들을 사랑하는 청년회원들의 따뜻한 가슴에서 피어오른 특별한 이벤트다.

예천불교청년회는 올 6월 창립되는 예천천주교청년회와도 손을 잡을 계획이다. 지역의 종교화합과 어린이 사랑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두 단체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와 예천천주교사목회의 정기 체육대회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예천불교청년회는 오랜 활동중지의 아픔을 딛고 재창립 하면서 지역 종교계의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천=배지선 기자

천주교와 정기 체육대회도

1월 8일 대구 우방랜드 눈썰매장에서 남달리 신나게 눈썰매를 타는 초등학생 30여명과 10여명의 청년들. 형제들은 분명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지도 않다. 분명한 것은 서로 나이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신나게 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신나는 눈썰매 타기는 예천불교청년회(회장 최순식)가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이벤트였다. 예천불교청년회는 농촌에서 자라는 지역 어린이들과 방학 때마다 '추억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승가오칙' 실참 통한 수행자상 정립

월정사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3월13일부터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청정 자성을 깨닫는 수행 지침인 승가오칙(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 실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인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을 봉행한다.

문수성지이자 화엄사상의 중심처인 오대산에서 화엄경의 대강백 스님들을 초빙해 화엄경 강설을 재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수행학림은 3월 13일(한암대종사 열반일)부터 4월 24일(탄신일)까지 매주 금, 토, 일 2박 3일간 진행된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수행학림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하고 승가오칙 수행법을 널리 편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봉행된다.

53명의 엄선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행학림은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염불정진, 오대참배(108배 및 참선), 화엄산림, 철야정진,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행학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한암대종사 탄신재 ·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출판법회 · 한암대종사 선사상 국제학술세미나 등이 열린다.

남동우 기자

재가자 포살법회 정기화
1월21일부터 중대사자암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에서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살법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포살이란 매달 보름과 그믐날 모든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계본(戒本)을 외우고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를 해 악을 그치고 선을 기르는 의식이다. 스님들뿐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정기적인 포살법회로 불자다운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총림인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와 대구 파계사 등 일부 사찰에서만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 사자암 비로전에서 열리는 포살법회는 매월 셋째주 낮 12시에 열린다. 첫 번째 법회는 1월 21일. 포살법회는 먼저 참회를 한 뒤 오계서원, 〈아미타경〉 독송, 염불참선, 경전강의 등으로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포항 죽림사 · 성주 심원사 전통사찰 지정

포항 죽림사와 성주 심원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1월 19일 도보를 통해 포항죽림사와 성주 심원사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지난 12일 전통사찰로 등록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전통사찰은 모두 173곳으로 늘어났다.

신라시대 창건된 죽림사(주지 종문)는 불국사 포교당으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1809년 중창불사 당시 발견된 상량문에 신라시대 창건사찰임이 명기되어 있다. 성주 심원사(주지 본해)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 창건사찰로 알려져 왔으나 소실로 사지만 남아있는 상태다. 성주군은 발굴조사과정을 거쳐 원형 복원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외국인근로자 한국 설 체험



설을 맞아 구미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떡국을 나눠먹으며,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마하부다 구미보현의 집(대표 진오)이 금오환경사랑회 봉사자들과 함께 1월 15일 개최한 한국문화체험행사는 떡국잔치였다(사진). 구미지역 외국인근로자 7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이길노 명예원장의 무료진료와 이미용 봉사, 노동 상담까지 이어져 더 따뜻한 시간이 됐다.

마하부다 구미보현의 집은 앞으로도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셋째 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이미용봉사와 노동 상담, 박대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서문시장 피해자 돕기 바자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문시장 화재피해자 돕기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를 주관한 인드라망정토회 김상길 회장은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도반님들과 물건을 구입하신 모든 도반님들에게 감사하다"며,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서문시장 피해 상인 돕기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식



전국 최대의 비구니 강원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이 1월 14일 제42회 졸업식을 봉행, 5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사진). 함께 봉행한 제8회 승가대학원 졸업식에서는 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이원동 청도 군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졸업식은 학감 일진 스님의 학사보고, 졸업증서 수여, 교육원장 스님의 치사, 상장수여, 기념품 증정, 훈장, 화환증정, 축사, 축가, 송사, 답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삶의 가치·즐거움 함께 배우죠

대구불교방송 부설 자비의 전화



어려움에 처한 중생의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고자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 집니다"라는 모토아래 10년을 넘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다. 바로 대구불교방송 부설 자비의 전화(1588-5408, (053)653-0408, 회장 고경순) 상담 봉사자들이다.

보통 하루 평균 5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가정문제, 부부문제, 이성문제 등 상담내용도 다양하다. 자살 이혼을 앞두고 급박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상담은 보통 2시간, 3시간을 넘기기 마련이다.

고경순 회장은 "자기가 번 돈으로 밥을 먹어도 세상의 덕을 보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마련된 공간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덕에 대한 보답의 길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함께 활동할 것을 권했다.

김정자 상담원도 "활동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 내가족의 소중함을 새로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잊었던 삶의 행복을 하나씩 배워가는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구 자비의전화는 상담 외에도 봉사부가 별도로 있어 지산복지관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결식아동돕기, 교도소 재소자 교화, 군 포교 등에도 적극 힘을 쏟고 있다. 삶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자비의전화 봉사자들. 누구보다 행복에 찬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사는 봉사자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훤하다.

배지선 기자

말못할 사연 '내 일'처럼 듣고 해결책 제시
명확한 데이터로 판단 도와, 상담 자체가 포교

1993년 창립한 자비의 전화는 3개월 과정의 카운슬러 대학을 통해 매년 50여 명의 전문상담원을 배출해왔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은 20여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 오후 반으로 나누어 자리를 지킨다. (사진)

"감사합니다. 자비의 전화입니다. 상담 때문에 전화하셨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구불교회관 2층에 자리 잡은 자비의 전화 사무실. 전화가 걸려오자 상담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내담자(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히 이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도한다.

전화를 걸어온 내담자는 젊은 새댁이다. 동서, 친지, 가족 간에 잘 지내고 싶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오히려 인정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내용이다.

"가족 친지를 위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오히려 마음의 병을 가진 것이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언젠가는 이들도 감화를 받고 이해할 겁니다."



보우승가대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정 \ 내용	강의내용	강의과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불전의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어록,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 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을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무, 착복무,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재, 예수재, 영산재및 각종, 행사시 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제작), 지화(전통꽃), 재설비, 장엄서예(범서),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 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3) 모집일자 : 2006년 2월 25일까지.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이내, 선착순접수함)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8) 장학생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9) 편입생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13)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우승가대학학장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절에서 즐거운 설날

화엄사, 세배하고 떡국 먹고 소원연 날리기 행사

전남 구례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이 설날 아침 부처님 전에 세배하고 떡국으로 새해를 맞는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종삼)는 오는 1월 28~29일 양일간 화엄사 경내에서 홀로사는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30여명을 초청해 '자비의 설날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주지 종삼 스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설날은 물질적 도움보다 가족같은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며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고 사찰생활을 경험토록 하기위해 이번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비의 설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설 전날 화엄사 강당 '광학당'에 모여 영화 '웰컴투 동막골'을 감상할 계획이다.

설날 아침, 떡국으로 새날을 맞이한 소년소녀 가장들은 법당에서 스님들의 지도로 기도와 함께 각자의 소원을 부처님 전에 올린다. 이어 사중의 노 스님과 대중스님을 찾아 세배하고 지역 어른들에게도 새해인사를 한다.

자비의 설날 템플스테이는 새해소원을 담은 소망연을 날리며 회향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포교국장 대요 스님은 "화엄사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구로 거듭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며 "이번 행사를 마치고 사중 스님, 종무원, 신도가 함께하는 가칭 '화엄사 봉사단'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새로 결성되는 화엄사 봉사단은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빨래와 청소 등 '찾아가는 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1~2회 사찰로 초청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소아암 완치 환우 축하 · 후원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지난 1월 17일 화순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소아암, 백혈병 완치잔치'에서 일상생활에 복귀한 어린이들을 축하하고 후원금 200만원과 헌혈증서 500매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정원채 생명나눔 상임이사는 강형근 전남대 병원장과 함께 완치환아 35명에게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아직도 투병중인 환우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과 헌혈증서는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펼치는 '나눔의 집' 4호점 미르치과병원에서 후원했다. 이준엽 기자

정토마을서 자원봉사

충북 불교계 최초의 사회봉사단체인 용화자원봉사단이 14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봉사에 참여한 단원들은 호스피스 교육 시설 설치, 야외식당과 도로 정비, 소식지 발송 작업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50여명으로 구성된 용화자원봉사단은 작년 10월 9일 창립됐다. 혜철 대전충북 지사장





전남도청불자회가 마련한 신청사 개청기념 법회.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 기념 법회

전남 불자들의 신년하례 및 도청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는 법회가 1월 16일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봉행됐다.

전남도청 불자회(회장 이개호)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과 영조(송광사), 두백(백양사), 몽산(대흥사), 종삼(화엄사)스님 등 조계종 전남지역 4대본사 주지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금룡,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서남통합사암연합회장 경훈 스님 등 지역 사암 스님, 박준영 전남지사, 각 신행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천운 스님은 전남도청 신청사 입주를 축하하고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 무소유와 보시정신으로 대민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축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축원하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대청불교 5주년 기념법회

충청지역의 포교매체인 월간 '대청불교'가 창립 5주년을 맞아 1월 14일 유성관광호텔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만불선원 조실 진철스님, 심대평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등 4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이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청불교'는 창립 5주년을 맞아 합본집을 발간했다.



혜철 대전충북 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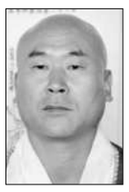
해남불교대 총동문회 소외이웃돕기 일일찻집



대흥사 부설 해남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동섭)는 지난 1월 13일 해남읍내 음식점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했다(사진).

설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학 졸업 및 재학중인 동문과 지역 신행단체가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해남 불교대학과 대흥사는 이날 모금한 성금 700만원을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에 수진 스님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은 지난 1월 12일 교구종무원에서 모임을 갖고 제13대 종무원장으로 수진 스님(담양 용화사 주지 · 사진)을 선출했다.

지역종회의원 14명이 참석한 이날 선거에서 신임 종무원장으로 당선된 수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도들이 수행, 포교에 전념할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임 광주 전남 종무원장 수진 스님은 1948년 전북 완주에서 출생. 69년 지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묵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 보살계를 수지했다. 73년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해인사, 통도사 극락암, 서울 백운암 등에서 정진했다. 2001년 원효종 종정 법홍 스님으로 부터 해동율맥 제 11대 율사의 맥을 이었다.

이준엽 기자

섬 속에 절이 있네

고흥 거금도 송광암

파도가 쉬면 모든 것이 비쳐 보인다. 우리네 마음도 쉬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해인삼매(海印三昧)'이다. '부처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한반도 서남 해안으로 2000여개의 섬이 자리해있다. 하나하나가 해인삼매 도량이다. 매월 한차례 해조음(海潮音)을 화두삼아 마음을 쉬러 함께 떠나보자.

'진리(金)가 자리한(居)' 거금도. 금(金)은 부처님의 별칭이기도 하다. 그러니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섬이다.

본격적인 구도길은 고흥의 끝자락 녹동항에서 시작된다. '저 언덕'은 생각보다 가깝다. 배에 오르는가 했더니 땅에 닿고, 대기해있던 버스도 두어 정거장 거리에서 내려야 한다.

다시 금산 면소재지에서 적대봉 등산로를 따라 20분가량 산길을 오르면(1.5km) 조계종 21교구 송광사 말사 송광암(주지 덕경)에 다다른다.

송광암의 역사는 800년 전으로 올라간다. 고려 신종 3년(1209),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사찰을 건립하기위해 화순 모후산에서 나무새 세 마리를 날렸다. 새들은 차례로 순천 송광사 국사전자리와 여수 금오도에 앉았다. 한 마리가 멀리 이곳까지 날아와 송광이 창건됐다고 한다.

'깨닫기는 쉬워도 지키기 어렵다'고 했던 지눌 스님. 스님은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초발심을 지키고자 무던히 애를 썼을 터이다.

그 후 암자는 성주괴공을 거듭하며 공부기운을 쌓았다. 오늘의 송광암은 1987년 당시 주지였던 원공 스님과 지역주민들이 9차 중창불사 회향으로 이루어졌다.

경내에 들어서면 천년고목과 약수가 참배객을 맞이한다. 청운당 요사를 지나 주전각인 극락전에 오르면 멀리 남해바다와 적대봉이 한눈에 펼쳐보인다. 거금 팔경의 첫째인 송암모종(松庵暮鐘), 마르지 않는 감로약수, 반야대 낙조는 이곳이 그대로 정토세계임을 증명한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송광암.

'진흙소' 찾는 구도열 가득

극락전에 오르면 남해 · 적대봉 한눈에

송광암의 역사는 800년 전으로 올라간다. 고려 신종 3년(1209),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사찰을 건립하기위해 화순 모후산에서 나무새 세 마리를 날렸다. 새들은 차례로 순천 송광사 국사전자리와 여수 금오도에 앉았다. 한 마리가 멀리 이곳까지 날아와 송광이 창건됐다고 한다.

'깨닫기는 쉬워도 지키기 어렵다'고 했던 지눌 스님. 스님은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초발심을 지키고자 무던히 애를 썼을 터이다.

그 후 암자는 성주괴공을 거듭하며 공부기운을 쌓았다. 오늘의 송광암은 1987년 당시 주지였던 원공 스님과 지역주민들이 9차 중창불사 회향으로 이루어졌다.

경내에 들어서면 천년고목과 약수가 참배객을 맞이한다. 청운당 요사를 지나 주전각인 극락전에 오르면 멀리 남해바다와 적대봉이 한눈에 펼쳐보인다. 거금 팔경의 첫째인 송암모종(松庵暮鐘), 마르지 않는 감로약수, 반야대 낙조는 이곳이 그대로 정토세계임을 증명한다.

송광암 선방의 당호는 니우선원(泥牛禪院)이다. 주련에는 '바다 밑의 진흙 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海底泥牛含月走)'로 시작하는 고봉선사의 게송이 새겨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선방치고 이보다 더 나은 문패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도 '바다 밑으로 간 진흙 소'를 찾고자 승 · 속을 초월해 수행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재가선방이 개설되어 여름, 겨울 수련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준엽 기자

▲**송광암**: (061)843-8488

▲**교통편**: 고흥 녹동항에서 거금도 금진, 신평행 배(30분간격, 20분소요)- 마을버스 로면소재지-적대봉 등산로(20분)

부산 불교 교육대학 사태의 실상에 대한 증언

병술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20수년 전 부산불교 교육대학(당시는 부산불교 교양대학) 창립 초대학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현재는 위 대학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이나, 지난 연말까지, 심각한 분규사태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던 바, 그 분규당사자인 혜총스님(운영위원장)측과 강선태(학장)측으로부터 수습의 의뢰를 받고, 양측을 4,5회 이상 만나서 설득하고, 다음과 같은 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 분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

이 분규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고, 학교의 주도권을 학장이 갖느냐, 이사장이 갖느냐 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라 파악하고, 이 분규를 불식시키려면, 양측이 마음을 비우고, 원만하고 화합된 불교교육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으로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길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측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수습을 의뢰

그리하여 수습책을 찾기 위해서 본인에게 찾아온 강선태 학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강선태 학장 자신의 입으로, 「불교계를 위해서, 이를 수습하는 길은, 사심없이 마음을 비우고, 제 본인부터 물러날 터이니 혜총스님도 마음을 비우고 서로 좋은 뜻으로 함께 물러나도록 해주십시오.」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현재의 모든 보직자 및 직원들도 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참신한 새 사람들로 하여금 새판을 짜서 새로 태어나는 불교대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강학장, 참 훌륭한 용단을 내려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소 혜총스님과 서로 믿고 애기할 수 있는 처지가 되니, 간곡히 애기해서 혜총스님도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소.」했고, 강학장은 이에 따른 각서 등의 문건을 본인에게 의뢰하고 떠났습니다. 이로부터 3,4일 후 혜총스님과 통화하고, 2006년 11월 25일경 혜총스님을 만나서, 위와 같은 애기를 하고, 퇴진을 확약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문건을 작성해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문건을 작성하여, 먼저 강선태 학장에게 보인 결과,「물러나는 사람이 그 이후의 수습방안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 더 간결하게 작성해서 물러난다는 것만 확실히 명시되도록 해달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재작성하였습니다.

3. 수습을 위한 합의각서 도출

합의각서

부산불교교육대학(이하 학교라 칭함)의 운영위원장 혜총스님(감로사 주지)과 학교의 강선태 학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작금에 일어난 학교의 분규를 수습하고 보다 발전적인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일체의 시비(잘, 잘못)를 가리지 않고, 또 금후에도 상호 비방과 쟁론적 언행이 없을 것을 서약하면서, 그 징표로서 이 각서를 작성한다.

1. 강선태 학장, 현재의 유급계약 여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위 직책을 가진 직원은 2005년 12월 10일자로 퇴진하고, 그 모든 권한은 수습위원회에 이양한다.
2. 운영위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는 2005년 12월 10일자로 해산하고 그 모든 권한은 수습위원회에 이양한다.
3. 이욱태 부학장은 이 합의서가 작성된 날짜로 퇴임한다.
4. 수습위원회는 본 학교 설립 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운영위원장(이에 해당하는 임의 기구의 장 포함), 역대의 학장으로 구성한다.
5. 수습위원회는 이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 2005년 12월 30일까지 새로운 운영위원 및 차기 학장과 학교 직원을 선임하여 학교의 모든 업무를 정상화시킨 후, 공식적 으로 해산한다. 단, 공식해산 후, 특정한 개인의 자격으로 학교의 업무에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다.
6. 동문회는 학교와는 별개의 자율적인 기구이므로, 학교나 운영위원회는 동문회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동문회 또한, 학교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단, 상호 발전적인 협의는 할 수 있다)
7. 이 합의서 작성 이후 강선태 학장은,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고, 화합의 차원에서, 혜총스님께 불경의 언행을 한 학생들을 참회토록 한다. (이상)

2005년 12월 3일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장 이혜총, 부산불교교육대학 학 장 강선태, 부산불교교육대학 증 인 김용태

※ 위 합의 각서는 3차 날인한 것을 본인이 원본 보관하고 있음

이상의 합의 각서를 받기 위해서 최종까지 양측에 3차례 이상 왕래하여 최종 날인토록 하고, 2005년 12월 8일 19시 혜총스님을 학교로 나오도록 하여, 그간의 입장을 학생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모두 혜총스님께 이의가 없다고, 묵묵히 있다가 본인의 주도로 다 같이 참회토록 하고, 모두를 위해서 다함께 박수하고 원만하게 해산했습니다.

4. 강선태 학장 재선임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기만행위

따라서 그 다음날 9일 12시에 강선태, 혜총스님이 학교로 나와서 수습위원회에 모든 것을 인계토록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나와서 인계하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지고, 수습위원만 남아서(김덕명, 이종판, 달오스님, 본인) 본인의 제안으로, '과반수 이상은 되었지만,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이 좋으니, 오늘은 제일 연장자(김덕명)를 위원장으로 뽑아놓기만 하고, 내주에 충분히 연락하여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또 한 차례 모였습니다. 이 때 참석자는 김덕명, 이하우, 달오스님, 한재구, 이종판, 법산(본인) 등 6명이었습니다. 이 때, 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수습위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학교나 운영위원회의 집행부만 구성해주고, 깨끗이 물러나야지, 차기, 학교나 운영위원회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 의견으로 수습위원 중의 한 사람인 한재구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뽑고, 학장 선임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 이종판과 이하우 전 학장은 학생모집의 문제, 현 학생의 지지도 등을 들어서 강학장의 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각서에 위배되는 일이며, 그 이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차기로 회의를 연기시켰습니다. 다시 12월 16일 모임에 김덕명, 이하우, 달오스님, 한재구, 이종판, 본인(법산)등 6명이 참석하여 학장문제를 거론한 결과 평소 거동도 불편하다고 참석도 않던 이하우 전 학장이 이번에도 또 나타나서, 학생모집과 관련, 강선태의 유임을 주장하고, 이종판 역시 강선태 유임을 앞과 같은 이유로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기본적으로 퇴임을 전제로 사태의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의 운영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어떤 영향으로 그 집단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니 더욱 불가능하고, 학교의 책임자로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으로도 사표를 내어야 할 사람인데, 이를 다시 유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강선태 아니면 불교대학이 안된다는 논리는 더욱 강선태는 부적격이라고 본인은 역설하였습니다. 모든 법적 해석이나 논리를 다 떠나서「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떠나겠다.」고 수습을 의뢰해놓고, 혜총스님은 떠나게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다시 깔고 앉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기만행위에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 달오스님은 급한 전화를 받고 이석을 하였고, 본인은 이런 상식 이하의 회의에 더 참석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휴대전화로 강선태에게,「이런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학장을 다시 해도 되겠느냐」고 노기를 토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김덕명, 이하우, 한재구, 이종판 네사람이 남아서 강선태를 학장으로 유임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5. 진정한 정화가 되어 양심과 학덕 있는 사람이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법적해석을 찾기 이전에 양심상의 문제이며 특히 불교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이, 얄팍한 술책으로 우직한 본인을 기만하여 혜총스님으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퇴진토록 각서를 쓰고 두 사람이 함께 물러난다고 해놓고 한 사람을 그 다음날 다시 재선임하자고 한 그 속내가 무엇인지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모사꾼들이 우리 불교계에 기생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이 비열한 일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부산 불교 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회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여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 하여 불교교육대학의 장래를 위해 명실상부한 정화가 있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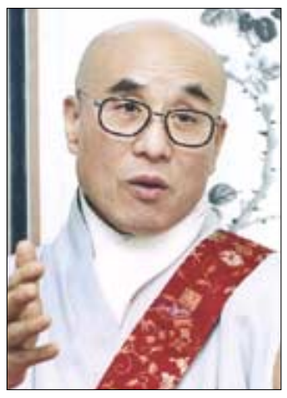
2006년 1월 20일

재단법인 원효총림 **원효정사** 회주 법산 김용태 합장

전승관 불사 회향에 총력

승려 연수 상설화 · 신도들의 종단사업 참여 확대

태고종 새해계획 발표



태고종이 전승관 불사 회향과 승려 연수교육 상설화, 신도조직 재정비를 2006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은 1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태고종은 올해 △기반조성사업 △전인교육사업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위상강화사업 등 5대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5대 분야 사업 취지에 맞게 전승관 불사회향, 총무원 · 사찰간 행정인프라 구축, 전국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22개 중점 사업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중 태고종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불사다. 운산 스님은 "올해 태고종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은 전승관 회향 불사"라며 "이를 위해 내주부터 5월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60억원 정도의 불사금 모금을 위해 종단의 부장 스님들과 전국 지방 종무원을 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량을 갖춘 힘있는 종단 건설'을 신년 운영 지표로 내걸고 있는 태고종은 특히 올해를 교육 불사의 해로 정했다. 이와관련 그동안 1년에 한번씩 선암사에서 열리는 승려 연수교육을 상설화시킬 방침이다.

운산 스님은 "5월 이후부터는 연수교육의 성격에 따라 지방 사찰을 활용해 거의 매일 연수교육을 마련하겠다"며 "내년에는 상설연수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태고종 상설 연수교육을 득도 기수별이나 스님들의 품계별로 근기에 맞게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태고종은 신도조직 정비에도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1975년 구성된 태고종 전국신도회는 제반여건 미숙으로 사실상 그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도회가 종단을 구성하는 한축으로 종단 운영과 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신도회 정관 등을 재정비해 지방교구 신도회와 중앙의 전국신도회를 상향식으로 운영한다.

운산 스님은 "현재 종단에 등록된 3천여개의 사찰에서 각 사찰당 활동할 수 있는 신도 10여명 정도를 추천받을 예정"이라며 "3만~4만명 정도 되는 정예신도들을 종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번달 안으로 8백여페이지에 달하는 <태고종사>를 발간한다. 또 3월에는 '가람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 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6월중으로 통합 전산화 시스템을 완료해 행정 인프라를 구성할 계획이며, 8월에는 각종 종단자료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해 국제기관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계종 법률자문단 위촉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월 20일 前 검찰총장 김종빈 변호사 등 13명을 법률자문단으로 위촉됐다.

조계종은 종헌 · 종법에 따른 적법한 종무행정 강화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통해 종단의 안정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법률자문단은 각종 위원회(불사심의위원회, 환경위원회, 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 한국-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 미디어위원회 등)에 참여해 각종 위원회 업무의 적법성과 분쟁의 사전예방활동을 벌인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교구본사와 협의를 통해 교구본사별로도 자문변호사를 두도록 하고 적법한 종무행정과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도들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수기자

종단협 신년하례회 "화합과 상생의 불국토 구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가 병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화합과 상생의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종단 수장과 정관계 인사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하례법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눈물과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스님.

유철주 기자



군법당 없어진다니 찡 하네요





오는 3월 헐리게 될 호국 충절사.

'마지막 수계법회'. 돌격대대 불자 장병들은 1월15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왼쪽).

"법당이 없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찡하네요. 많은 병사들이 군생활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곳인데. 다시 돌아왔을때도 활짝 웃는 부처님의 얼굴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충절사 윤상철 군종병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올 3월 군 병영개선 현대화 사업으로 내무반을 개조한 법당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1월 15일 오전 10시 돌격대대 불자 장병들이 하나둘씩 수계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호국 충절사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는 장병들의 얼굴은 밝지 않다. 3월부터 부대 막사가 헐리면 8개월간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전방으로 가야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법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서서다.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장병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부대 법당에서 법회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들어 있었다.

증명법사로 수계법회에 참석한 평화 통일사 윤일 스님은 법문 앞머리에서 "30년전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시해 만들어진 법당이 호국 충절사"라며 "뜻있는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법당이 다시 지어질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군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조동종 규정부장 법화 스님(여주 행운정사 주지)을 비롯해 연안 · 청봉 · 청담 스님과 전진부대 서용수 참모장, 서창욱 돌격대대장, 강정기 청호패키지 대표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5월 부대에 배치되어 매주 법회에 나왔다는 김영진 일병은 연비를 받고 부처님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 부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꼭 부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수계법회에서 오계를 수지한 장병들은 모두 64명. 연비를 받고 부처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하는 눈빛이 초롱하기만 하다. 이원희 사단 군법사는 법회관계로 수계법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일일이 법명과 수계첩을 만들어 이날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이기승 돌격대대 주임원사는 "매주 법당을 찾는 70여명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꼭 법당을 다시 지어야겠다고 부처님 앞에 발원하게 된다"며 "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불자들과 사찰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글 · 사진/파주=김두식 기자

파주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충절사 병영개선 현대화사업으로 사라질 위기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부처님오신날 앞으로 100일

연등 제작 공장을 찾아서
연등제작 시즌 개막



손끝에서 연꽃이 피네!

바쁜 세태 반영 사찰연등 대부분 공장서 납품
신제품 연구 계속…주문따라 특화燈 생산도

연등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원단을 연잎크기로 재단하는 과정.



등통에 재단과 형합과정을 거친 연잎을 붙이는 조립과정.



검품 과정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사찰의 대중방은 연잎을 풀어놓고 부처님오신날 내걸 연등을 만드는 손길로 분주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가릴 것 없이 연잎을 마는 풍경은 소담하게 그려낸 한 폭의 그림 같다. 알록달록 물들은 손끝에서 느껴지던 신심….

하지만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던 그 모습은 이젠 가슴 속 깊이 차곡차곡 담아두어야 할 추억이 돼가고 있다. 절의 규모가 커지거나 신도수가 늘어 불자들이 손수 만들던 연등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보다 전문화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서 만든 연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양력 5월5일)을 100여일 앞둔 1월 17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찬덕연등(대표 김기찬)의 작업실에서는 사찰에 납품할 연등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몇 안되는 연등제작 회사이지만 이 또한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반자동화 공장이다. 이들에게는 1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다.

10여 평 규모의 허름한 벽돌공장, 그 속에서 선홍색과 노란색 등 다섯 가지 색을 띤 연잎을 차례로 등통에 붙이는 보살들의 손놀림이 신기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도 한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연등은 60여개에 불과하다.

분업 형태로 이뤄지는 연등제작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가장 먼저 연잎으로 사용되는 원단을 재단하고, 이를 연잎모양으로 주름을 주는 형합 과정을 거친다. 형합기계는 두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3년 만에 개발된 특허 제품. 형합기계에서 만들어진 연잎을 외부에서 주문 제작된 플라스틱 등통에 붙이는 조립 · 포장 과정을 거쳐 비로소 연등으로 탄생한다.

플라스틱 등통은 등살에 한지를 발라야하는 전통등의 제작과정을 간단한 사출로 간소화시킨 대표적인 산물이다.

불을 밝힐 수 있는 소켓을 제작하는 과정과 수백 개의 연등을 한꺼번에 매다는 프레임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섯 가지 일손이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은 비교적 조촐하다. 원단 재단 공간과 형합 공간, 조립공간으로 구분돼 있지만, 여전히 가내수공업의 틀을 벗지 못했다. 연등을 만드는 여타의 공장도 찬덕연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점이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전체 직원이 둘러 앉아 직접 밥을 지어 점심을 먹는 모습에서는 가족에게서 느낄 수 있는 푸근함이 전해진다.

14년 전 연등 개발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아내의 고생길이 열렸다는 김기찬(46 · 송광) 찬덕연등 대표. 하루 종일 새로운 연등을 개발하기 위해 온 신경을 쏟는 그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연등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이다. 사월초파일이 되면 집집마다 연등을 내걸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 김대표의 꿈이다. 그래서 그는 연등에 '미쳤다'.

찬덕연등(031-729-6288)과 같은 공장에서 제작된 연등이 처음 선 보인 때는 그리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기껏해야 30여년 전의 일이다. 이 때만 해도 손으로 만든 연등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비닐등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팔모등, 육각등, 연꽃등, 유등 등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한 제2세대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남/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중국산 비닐燈 한국 절 장악

인건비가 원인…시각적 효과 떨어져

길거리나 야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등은 연등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은 품목이다. 저렴한 가격과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비닐등이 '정성'을 중요시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정서를 이긴 셈이다. 편리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은 절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비닐등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이다. 이미 오래전 국내에서는 생산이 중단돼 연등 1세대 국산시대를 마감했다. 가격 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연등은 중국에서 수입된 연등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에 있다. 화공약품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아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 국내 인건비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연등의 원가와 유통비를 합한 금액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궁인창 찬덕연등 이사는 "살가운 맛이 떨어지고 시각적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비닐등을 포교용으로 거리에 내거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할 문화"라며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연등을 걸어 불교문화가 대중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전통등 관심고조…모형 · 종류 다양화

전통등연구회 발족 후 저변확대

우리나라 최초의 연등행사는 신라 진흥왕 때인 것으로 전한다. 그뒤 연등축제가 현재처럼 사월초파일로 정착된 것은 고려 중엽 무렵으로 <고려사>에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관 주도의 연등행사는 자취를 감추고 민간에 의한 연등제가 행해지다가 일제 강점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등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전통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등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모양의 전통등들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97년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이던 지현 스님(봉화 청량사 주지)이 초파일 연등축제를 한국 전통의 연등축제로 복원해보자며 동국대학 미술대 출신 젊은 작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한 것을 계기로 전통등연구회가 발족했다.

이에 힘입어 98년 수박등 · 종(鐘)등 · 목어등 · 코끼리등 등 20여 점의 전통등을 선보였던 전통등연구회는 이후 시연회와 공예전을 수차례 개최했으며, '전통등 전승공방'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등 제작 강좌를 진행하는 등 우리 등 문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02)723-0306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역시 매년 연초 전통등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를 열고 있다. (02)2011-1747

이은비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DMB시대, 신행도 '진보'





휴대용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DMB)의 출현으로 '손안의 TV' 시대가 활짝 열렸다. DMB란 음성이나 영상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해 이동 수신기에 보내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이동 수신기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라 하겠다.

DMB가 보편화되면 불자들의 신행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큰스님 법문, 불교 강의 등 다양한 불교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정보 접해
사찰 관광객 등에 불교 알리기 확대
불교계 사업자 선정 및 참여 지원 없어
콘텐츠 개발 통한 채널 임대방식 가능

■ 예상되는 신행패턴의 변화

기존의 방식으로는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사찰을 직접 방문하거나,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양대학 등에 나가야 했다. TV나 인터넷으로도 일정부분 가능했지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DMB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고음질의 오디오와 끊어짐 없는 영상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가 원하는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해 필요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불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신행활동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나 주말을 이용해 사찰 등을 방문하고 싶은 관광객 등 비불교도들에게는 불교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어 불교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자들에게는 개인 업무 등으로 인해 사찰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특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을 경우에도 즉시 휴대 단말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어 신행활동의 보조자료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불교계의 향후 대응

방송위원회가 2005년 지상파 DMB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본사와 불교방송이 DMB 코리아 컨소시엄과 NDMB 플러스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위성 DMB는 TU미디어가 독점 사업자이어서 불교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되었고 상용화 되었다고 해서 DMB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하용 교수는 "DMB가 보편화 되고 매체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케이블 TV에서 흔히 행하고 있는 채널 시간 임대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계에서 DMB에 맞는 콘텐츠 개발 한다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경우 CBS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천주교와 불교는 서비스되고 있는 종교 콘텐츠는 없다. 이에 제 종교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DMB사업자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DMB란

DMB는 송출 방식에 따라 위성 DMB와 지상파 DMB로 나뉜다. 위성 DMB는 방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송출하면 위성은 이를 개별 이동 단말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신율이 떨어지는 음영지역에는 갭필러라는 중계기를 설치해야 끊어짐 없는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현재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독점 사업자로 선정, 2005년 5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DMB 전용 채널인 채널블루와 종합교육(EBS), 보도(YTN), 음악(m-net) 등 기존 유선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로 구성되어 비디오 11개, 오디오 26개 등 총 37개 채널을 방송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위성 DMB는 유료 방송 채널로 가입비 2만원, 월 이용료는 1만 3천원이다.

이에 반해 2005년 12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지상파 DMB는 비어있는 VHF 12번 채널과 군사용인 8번 채널을 이용해 지상파 기지국을 통해 방송 신호가 송출된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와 KMMB, 한국DMB CBS, YTNDMB 등 6개 사업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비디오 7개, 오디오 13개, 데이터 8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중계기를 설치해야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없으나 현재 서울 수도권만 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에 1개의 채널을 할당해 지역별 지상파 DMB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2

성능 · 활용도 고려해야

캠코더 구매시 체크 사항

캠코더는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처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캠코더를 사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캠코더는 가격대에 매하기 보다는 성능에 맞추어 예산을 잡는 것이 좋다. 싸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화질이 좋지 않거나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캠코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캠코더 구매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 화소수

화소수는 캠코더의 화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현재 일반 TV에서 볼 수 있는 화소수는 640*480으로 캠코더의 화소가 31만 이상이면 영상을 TV를 통해 보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화질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겸하는 캠코더가 많아 화소수가 높아야 정지화상을 잡는데도 좋다.

● 줌

캠코더에 36X, 100X 등의 표시가 바로 줌에 관한 내용이다. 줌은 광학줌과 디지털 줌으로 나뉘는데 광학줌은 캠코더 자체의 렌즈의 기능으로 줌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디지털 줌은 광학줌을 디지털로 부풀린 수치를 말한다. 캠코더 외관에 표기된 수치는 바로 디지털 줌에 해당된다.

당연히 줌의 수치가 높은 것이 촬영하는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디지털 줌을 사용해보면 멀리 있는 사물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화질은 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액정

캠코더로 피사체를 확일할 수 있는 방법은 뷰파인터와 액정 두가지다. 뷰파인더는 흑백과 컬러로 나뉘어질 뿐 기계마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액정의 경우는 크기와 화소수에 따라 보이는 사물이 달라진다. 크기는 2.5, 3, 3.5, 4인치 등으로 나뉜다. 2.5인치는 액정의 기본 사이즈이지만 촬영후 모니터나 기타 다른 기기로 볼려면 최소 3.5인치가 적당하다. 얼마나 피사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냐는 액정의 화소수에 따라 다르다.같은 100만 화소라도 2.5인치의 액정이 3.5인치의 액정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인다.

●정지화상

최근 출시되는 캠코더는 대부분 사진 촬영 기능이 있다. 캠코더에 촬영된 영상은 6미리 테이프 등에 녹화되지만 정지화상은 메모리 스틱에 저장되기에 컴퓨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CD의 개수와 크기

CCD는 빛의 세기를 전자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빛의 3원색은 빨강, 녹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CCD가 한개인 것은 3원색을 하나의 CCD가 받아들여서 영상으로 처리된다. 이에비해 CCD가 세 개인 것은 각각의 CCD가 하나의 원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CCD가 많을수록 화질은 좋을 수밖에 없다. 가정용에서는 CCD가 1개지만 방송용은 CCD가 3개 내장되어 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3CCD급의 캠코더를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김두식 기자

클릭! 즐겨찾기

접속하면 나만의 공간 '활짝'

부다피아 홈페이지빌더 무료홈피 제공

홈페이지를 돈 안들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부다피아 홈페이지빌더(http://hompy.buddhapia.com) 사이트다. 사찰이나 단체들이 무료로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초보자라도 홈페이지 제작 매뉴얼을 보고 나만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메뉴관리 기능을 통해 손쉽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 쉽게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

개별 홈페이지에서 올린 행사 안내나 기타 공지사항은 부다피아 통합 게시판에 함께 공지되며 부다피아 인물/단체/행사 메뉴와 검색 페이지에도 서비스된다.

서버 사용료나 관리비 등 홈페이지 운영비가 적지 않으며 회원관리 등에 편의성을 갖춰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사이트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불자용 마그토린 웰빙밴드

빠삐자기방+토르마린+오닉스와의 조화
※이런분들에게 권합니다.
- 신경통, 전립선, 관절 및 편두통
- 어깨가 결리고 뒷목이 뻐근하신 분
- 피로가 쉽게 오는 분
- 정신적 안정과 숙면이 필요하신 분
- 정신집중이 필요한 수험생
- 컴퓨터 작업을 오래하는 분

가격 98,000원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높이 88cm, 폭58cm

만사형통의 불화!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불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등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옵셋판화인쇄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려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도 물리치며 시작부터 풍요롭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관세음보살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소원 성취하리라!!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는 금강저도 부착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돼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 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 반매훔 밸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달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옴마니 반매훔**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룩되는 진리의 뜻을 담은 밸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서 화를 미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옴마니 반매훔자동밸트**는 밸트에서 원적외선과 멜토에너지가 발산되어 장과 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밸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재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영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뱐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영가,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장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동자승 모집

◆ 대상 : 만 5~10세 미만의 남 · 여 아동
대한불교조계종 충효사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 연락(문의처)
054)338-1117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	륙	시			전
식	재	재	식	물	충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학인스님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제2기 범음범패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천도재,천수바라작법
011-9601-66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빽빽함, 눈곱,충혈,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秘法전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작용법(瓶)
2 달마사연 장중도법(道)
3 빠른 명상법(禪)
4 돌아가신 조상,무덤 보는법(業)
5 빙의,정신병 치유법(醫)
6 영가천도비법(醫)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010-3189-3525
경남의령 해용사 -법 경-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승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역학방문지도

명리학, 관상, 수리신점
초보에서 고급까지 창업책임지도
스님 특별대우
자연이치가 곧 명리이다
해임법사 ※전화상담환영※
02)3437-8433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육임개인지도

육임정단, 육임운명학, 상수 추명법, 택일법
기초에서 고급까지 책임지도
스님은 방문지도 가능함
대육임연구소 여여학장
02)6404-3540
010-5516-1687
cafe.daum.net/yikiml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변비,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259-5989

산좋고 물좋은 아주 깨끗한 내원암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예천
054)653-1180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김포 위치
011-688-6625

와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비구니스님구함

女행자도 가능함
010-8678-5442
051)248-2477

비구승입니다

개인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을 책임지고 맡아 운영하겠습니다
017-571-55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 80만원
무보시로 절에서 일하실 보살님 및 행자모집합니다
▷경기 파주
010-3070-353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홍천
033)254-8942

물좋고 산좋은 조용한 오래된 암자 황토방 필요하신 비구스님 모십니다

50세이상.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9126-2266

기도스님 모십니다

(40~50세)
051)542-484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재성동
051)781-0089
010-7610-166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화성시
031)356-911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459-36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854-9810

사주와 주역을 통달한 스님입니다 사찰의 주지나 포교당 주지원합니다

60세 비구승
010-4812-7075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포교당 연락주십시오

의식여법하게 하는 비구입니다(100일기도 가능)
010-8482-0075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자 모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챠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방생과 성지 순례의 도량 화마(火魔)도 비켜간 영험의 도량



천연기념물 223호 은행나무



영국사는 5점의 보물과 천연기념물(은행나무)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있는 천년고찰로서 낙산사와 더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뻔 한 도량이었으나 다행히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화마가 도량을 비켜간 신비의 도량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천태산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번지 종무소 043)743-884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동해안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6억

- 위치: 충남
- 법당: 15평
- 요사: 30평
- 부지: 3,000평
- 가액: 3억5천

- 위치: 전남
- 법당: 18평
- 요사: 37평
- 부지: 15,600평
- 가액: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근교
● 평수 900평정도, 실평수 2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총각 2평 요사채 방6개
조방시설완벽
● 특징: 부산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 요세의 사찰임
사찰연역 약 60년 도량
● 가액: 5억

010-4877-590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중산리
● 토굴 기도처 암자110평 상,하채
● 가액: 6500만원

011-827-819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탑동
● 대지 : 600평
법당 : 25평
요사 : 37평
● 가액 : 3억

055)271-8496
011-768-8744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 임야 13,000평, 과수원 4,300평
대지 100평
● 남향 주택 30평 (황토방 있음)
● 가액 : 6억5천만원
※산머루, 옻나무 심어져 있음
산에는 밤나무
정원 잘 꾸며져 있음. 누각 있음

011-232-1993

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원통
고속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전체평수: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4평
황토2중 흑벽돌집
● 신축한지 1년
토굴 또는 별장으로 적합함
부처님 신중탱화등 다 모셔져있음
● 가액: 1억7천만원

016-337-973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 부지 : 3200평
● 법당 : 25평(목조단청)
● 요사채 2동 50평
● 산신각 : 5평(목조단청)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 위치: 경북 고령군
● 부지 약1000평
● 법당 : 40평(목조단청)
● 요사채 : 80평(신축)
● 기타 : 산신각, 석불, 석등, 송각
● 가액 : 4억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영덕 풍력단지 내 영덕대게 특구지역
● 평수 : 940평
전용허가 200평
● 진입로 포장
상수도 완비

010-7109-3281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2-60호
당고개역에서 1분거리
● 법당 : 실평수 18평
1층 반지하 17평, 옥상 다락방
● 부지 평수 33평
※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 뉴타운지역으로 허가됨
● 가액 : 3억 3천만원

02)939-2809
011-894-280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면목역도보 10분거리
● 평수 : 4층건물, 3층 약70평
● 시설 : 법당, 방3, 거실겸주방 욕실,창고,주차장,환기시설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271-760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즘금 3천만 /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10-9929-2907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 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소재
● 법당 : 70평
● 특징 : 교통편리, 건물3층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건물 : 요사채, 법당 : 45평
● 특징 : 소원불, 800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우체국옆
● 시설(40평), 법당, 삼존불, 각탱화, 방2, 부엌,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협의절충

016-542-105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암자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대교에서 10분거리
● 산세 청정 수려하고 오염되지 않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며 전기 도로 되어있는 준 농림지
● 전 830평, 묘지터도 좋음
● 가액 : 2천만원

011-570-131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안산 대부도
● 4층건물중 2층
약 50평 법당 30평 방5개
● 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등 500개 집기류 일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4215-911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교촌동 225-3
● 대지 : 117평
● 법당 한옥 스님방(18평)
삼성각 용왕 큰공양간방, 심야보일러
● 특징 : 시외정류장 인접(최고좋음)
주위아파트 밀집지대, 포교하기 좋음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4)331-5519
011-595-736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신만덕 농협옆 시장부근
● 평수 : 34평 3층중 1층
● 가액: 전세 3500만원(일부 월세가능)
자동차 포함 시설비 일체
최신형 1500만원
● 스님께서 토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포교당을 내놓음

051)341-4373
010-9224-0985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휴게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1-9105-7240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묘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
(방10개)
● 가액: 3억9천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김천시내 작은 구옥 독채)
● 평수 30평, 임법당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월세, 전세가능
(조절가능)
시설비 1천2백만원

010-8622-12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읍,
화왕산 군립공원 내
● 대지 208평, 법당 목조건물,
삼성각 신건물
요사채1동-한옥 황토방 10평
요사채1동-신건물 30평
(각방 화장실, 목욕시설 완비)
150m지하수, 도로, 주차장
소나무, 큰 저수지 전경 좋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575-0396

사찰안내

● 위치 : 창원
● 대지 : 800평
공찰 40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조계종스님이시면
거래가 원만함)

055)291-640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바닷가
● 대지 : 60평, 건물40평(삼존불-동불)
● 부산 오륙도 태종대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조용한 기도처
잠신한 인연 있으면
반값 5500만원에 드립니다
※ 사찰 암자 포교당 사찰부지 다량확보

부산 사찰전문 부동산 연산공인중개소
011-560-8522
051)863-666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부도 내
● 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
● 가액 : 1,000만원 6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010-4215-911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앞
● 평수 36평
● 삼존불, 후불탱화
● 방3, 2층건물중 2층
● 가액 : 보증금 3백 30만원
시설비 3백만원

053)523-7706
011-540-331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량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160-2734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심혈을 기울인

한글 세대를 위한 독송용 경전 ❶~❿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 편안하고 시원한 편집, 알기 쉬운 용어해설!

대강백 무비 스님과 경북대 조현춘 교수가 불자들에게 사랑 받는 주요 경전들을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한글 세대가 독송하기 좋게 경전의 뜻을 정확히 전하면서도 쉽고 유려한 우리말로 옮겨 놓았으며, 기존 독자들을 위해서는 한문 독송용 원문을 함께 싣고 있다.

① 지장경 218쪽/ 7,000원
② 관음경 94쪽/ 5,500원
③ 불유교경 108쪽/ 6,000원
④ 백팔대참회문 136쪽/ 5,500원
⑤ 금강경 194쪽/ 6,500원
⑥ 아미타경 90쪽/ 5,000원
⑦ 보현행원품 190쪽/ 6,500원
⑧ 예불문(천수경) 122쪽/ 5,500원
⑨ 일반법회 120쪽/ 5,500원
⑩ 매일법회 96쪽/ 5,000원

부처님 명호를 독송하거나 모시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

각종 경전에서 일만 부처님 명호를 뽑아내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함을 물론, 부처님처럼 모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월운 스님 감수/1,008쪽/사륙배판
금장 가죽양장/45,000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제 부처님의 이름을 선남자 선여인들이 받아 지녀 읽고 또 외운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 안온히 모든 어려움을 멀리 여의고 모든 허물이 소멸될 것이요 미래에 분명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불설불명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5-1 청송빌딩 3층 출판부 02)926-8361 총판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온주사

“죽음 대비할수록 삶 더욱 윤택”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 ‘웰빙시대의 잘 죽기’


오진탁 교수


안양규 교수


김영욱 연구원


이찬수 교수


강신표 교수


최준식 교수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린다. 남의 일 같기도 하고, 내게는 멀고도 먼 훗날의 일로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일이고 보면,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죽음을 대비할수록 삶은 더욱 윤택해진다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불교계 대중학술지 <불교평론>는 2005년 겨울호의 특집 주제를 ‘웰빙 시대의 잘 죽기’로 정했다.

특집논문으로 안양규 동국대 교수의 ‘붓다의 죽음’, 김영욱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이찬수 강남대 교수의 ‘부활, 웰다잉의 한 해석’, 강신표 인제대 명예교수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의 ‘근사체험이란 무엇인가’의 5편과 총괄논문격으로 오진탁 한림대 교수의 ‘웰빙 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등 6편이 수록됐다.

● 죽음준비는 삶의 교육

일찍이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한림대 오진탁 교수는 “웰빙의 참뜻은 웰다잉에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지 못했다면 잘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죽음을 기피하고, 남의 문제로만 인식하다보니 잘 죽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 병실에서 차가운 의료기계에 둘러싸여 튜브를 몸에 꽂은 채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며 품위 있게 죽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 교수는 “암이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붓지만 정작 중요한 죽음준비는 남의 일인 양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역설적인 세태를 비판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죽음준비는 삶의 유한성을 자각케 해, 현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면, 하찮은 활동과 사소한 관심거리로 소일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 물음을 던지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이 점에서 “죽음준비는 제대로 살기 위한 삶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불방일’로 죽음 맞은 붓다

그렇다면 삶의 진면목을 깨쳤을 붓다나 선사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안양규 교수와 김영욱 연구원의 논문이 해답을 준다.

안양규 교수는 <열반경>에 나타나는 붓다의 죽음을 살폈다. <열반경>에는 붓다가 열반에 들기 전 세상에서의 마지막 가르침과 입멸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붓다는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제행(諸行)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남긴 후 열반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다. 열반경에서 붓다의 입멸 과정은 정각의 순간과도 같이 선정과 밀접히 연계된 것으로 그려진다. 즉 붓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붓다의 모습에 대해 안 교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붓다의 태도는 한마디로 ‘깨어있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대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애통해하지만 붓다는 무상한 육신 너머에 있는 열반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선사들의 죽음은 어떨까. 김영욱 연구원은 “선사들은 죽는 바로 그 순간을 삶의 한 형식으로 수용할 뿐 죽음에 대한 추상적 관념이나 그것을 극복하는 고답적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는다”고 말한다. 죽음을 질곡이나 해방으로 여기지 않는 선사들은 “그것에서 자유롭기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으며, 화두를 놓치지 않듯 죽음의 순간까지 학인을 가르치고 점검하는 등 본분사를 주고받는 일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 ‘부활’과 ‘열반’

기독교에서는 웰다잉의 한 전형으로 부활을 꼽을 수 있다. 이찬수 교수는 부활을 통해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부활을 단순한 소생과는 구별했다. 이 교수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뤄진 생명의 사건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부활은 역사적 인물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듯 우리의 몸도 다시 살게 되리라는 희망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부활과 열반을 비교했다. 이 교수는 “인과의 고통스러운 순환고리를 끊어버린 데서 오는 안식으로서의 열반과 영생을 향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상태로서의 부활은 공통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불교평론>에 실린 강신표 교수와 최준식 교수의 논문은 각각 우리 문화 속에서의 죽음과 근사(近死)체험을 다뤘다. 강 교수는 세상을 떠난 후의 상례(喪禮)와 제례 전통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살폈고, 최 교수는 서양에서 조사 · 연구된 의근사체험 사례를 제시하면서 근사체험의 진실성을 밝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재가자에게 율장 금서 아니다”

마성 스님, ‘철우 스님 입장’ 정면 반박

“율장은 재가자에게 금서”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5년 겨울호 <불교평론>에 실린 ‘율장은 금서인가’라는 논문에서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사진)은 “한국불교 대부분의 율사들은 율장이 금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상의 근거는 전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성 스님은 율장이 금서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을 들었다. 마성 스님에 따르면 철우 스님은 저서 <사분비구니계본강의초> 표지에 “비구 · 비구니 이외는 읽지 말라”는 경고문을 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이 조계종에서 대세를 이루다보니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서 율장은 한때 제외되기도 했다고.



율장을 금서로 간주하게 된 연유에 대해 마성 스님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상가 고유의 갈마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율장을 근거로 출가자의 참회와 징벌 등을 결정하는 갈마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참석이 금지됐는데, 이를 확대해석해서 율장이 재가자 앞에서 설해져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게 됐다는 것.

마성 스님은 “△붓다의 법과 율은 비전의 교설이 아니다 △붓다의 법과 율은 붓다의 유훈이다 △붓다의 법과 율은 진리 판단의 기준이다”고 밝히며 율장은 출가자의 전유물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성 스님은 “출가자가 율장을 배우고 익히면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게 되고, 재가자가 율장을 배우고 익히면 출가자를 더욱 존경하고 외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짜 승려는 점처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진정한 승려는 부처님처럼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7>

선시

물이 달빛을 담지 않는다?

전자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물

선시만큼 선의 경지를 잘 표현한 수단이 있을까. 선시의 단순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을 보면 마음의 경지와 자연의 합일 등이 잘 드러난다.

혹자는 선시에서 지나치리만큼 소극적인 은둔의 태도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시를 좀 더 천착하면 정적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다이나미즘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는 정적이지만, 엄청난 에너지, 활달함, 유머 그리고 적극적인 중생구원을 향한 비원이 담겨 있다.

1900년대 초기를 살았던 한국 불교의 봉우리 경허 선사의 선시에는 ‘바람이 대나무에 머물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물이 달빛을 담지 않는다’라는 시구 또한 유명하다. 바람이 쓸고 간 후, 대나무가 제자리를 찾는 것, 달빛이 물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경지와 비유한 것이리라.

그러나 좀 더 관찰해 보면 놀라운 인과의 법칙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달빛은 달의 표면에서 반사된 태양의 빛이 지구에 다다른 전자파이다. 마치 핸드폰으로 수신되는 음성을 담은 파가 전자파이듯이, 빛 또한 전자파의 일종이라는 것이 20세기 초 맥스웰에 의해서 밝혀졌다.

즉, 전계와 자계가 같이 덩어리가 되어 에너지로 전파되는 파동이다. 전자파의 파장에 따라서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열로 느끼기도 한다. 파장이 긴 성분은 우리의 눈에 붉은 빛으로 보이고, 파장이 짧은 성분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붉은 색보다 더 긴 성분이나 푸른 색 보다 더 짧은 성분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

빨간 사과를 들고는 ‘빨갛다’라고 느끼는 것이 집착인가, 인연인가를 묻는 승산 스님께서 가르치시듯이 우리가 ‘빨갛다’고 느끼는 것은 진화라는 인과의 결과일 뿐이다. 다른 동물이 또한 우리와 같이 그 파장의 전자파를 빨갛게 느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파(달빛)가 물에 들어왔다가 가면 물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물이야 말로 전자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이다. 물은 두개의 작은 수소가 큰 산소에 대칭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머리에 달린 뿔 마냥 붙어 있는 모습 때문에 전기적으로도 비대칭을 이룬다.

즉, +전기를 띤 중심과 −전기를 띤 중심이 다르다. 이를 흔히 ‘극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달빛이라는 전자파가 들어오면, 물분자는 특수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특수한 파장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은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는 편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러한 전자파와 물분자와의 반응관계가 바로 지구의 생물이 태양, 달빛과 교통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생명의 출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은 달빛을 담아내지 않는다’라는 선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우주와 생명의 오묘한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도록 하자. 우주 만물이 인연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해 나가는 화엄경의 우주론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제1기생 모집
2006학년도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동방문화의 중심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세계 풍수지리학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

교육내용

음양오행론, 십이포태법	명리학 기본이론 및 감정법
산형론(龍, 穴, 砂, 水)	주역의 원리와 응용(상수역)
심혈법, 정혈법	구성학 이론
나경 패철사용법	동양 천문 해석
형국론	서양 천문 해석
팔십팔향법	민력 이해와 활용법
장택법	택일법
양택삼요, 동서사택론	수맥
가상학	응용풍수, 풍수인테리어
유년도, 본명궁	현공풍수

입학자격
◆ 입학자격 : 풍수지리학 분야 기초이론 연구자.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입학 특혜. 전문상담사, 권위 있는 교육 강사 희망자 대환영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정원 : 81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120만원 (1학기)

교 수 진
한중수/최병용/곽민석/최경준/박영창/유방현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및 졸업패'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풍수지리사'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양택감정사' 자격증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풍수지리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로 위촉

교육기간
◆ 입학식 : 2006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 개 강 : 2006년 3월 4일 토요일
◆ 교육기간 : 1년 (2학기)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15:00-19:00

입학안내
◆ 접수기간 : 2006년 1월 5일 ~ 2월 24일
◆ 접 수 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문화교육원 교학과 (또는 소개해 준 담당 교수)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문 의 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학과 ☎ 02)745-2140
담당 011-9902-4640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생노병사의 근본진광대도통비법 및 진광묘유신비의 천안통육경신대법회

윤달든 병술년 일년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삼재팔난 일체고액 소멸 천도 범패 봉행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생명과 건강은 태양에 있어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하는 경신 도통 천안통 대법회



생노병사의 비밀인 근본에 대해서 언급한바없는 비밀법의 허공청정, 진공묘유인 운명과 수명 생명은 경맥동맥 호흡이 다하면 사후의 세계로 떠나는 영과 혼의 비밀법을 병술년 윤달든 정월초 삼일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자와 卍자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을 공개하노라

모든생명은 태식 비법에 천하의 생명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달마도법 태식법은 도통군자들의 최고의 비법인 것이고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마장과 질병의 살찌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육경신수행법인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병술년 정월 초 2일과 3일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아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인 것을 경신일 하늘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베일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도통하여 업장소멸 하시고 만사 형통하소서.

특히 이번 천안통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생전예수재 병술년 윤달 든 음 정월 초 3일 오시에 생전예수재 및 1년 한해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삼재팔란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대재 범패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어 재수대통 하소서. 특별불공 250, 350, 550 동참불공. 독신자 15, 가족동참 35, 55동참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조상 5대 외가조상 3대 처가 친정조상 5대 외가조상 3대에 제사 못자시는 영가와 처녀, 총각, 영가 혼례제, 모태, 수자령, 유산영가들의 명단을 팩스번호 02)821-7768로 주세요. ※선착순 접수

(당일 행사는 혼잡함)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천안통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윤달든 병술은 음 정월 초삼일에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에 1번이 들고,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천안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고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 자아완성은 물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도술, 의술, 침술, 점술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병술년 정월 초 2일과 3일이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배속에 검은똥은 삼시구충과 저승사자인 고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건강찾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도통하시어 큰 부자 되시고 재수대통하소서! 금년 삼재묵는 띠는 인오술 양충띠(토끼,잔나비,뱀)

특별 생노병사 해탈법 및 태식법과 건강, 운명 상담
☎ 02)821-7767 Fax 02)821-7768

● 입제 : 양력 2006년 1월 30일(음, 정월 초이틀)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1월 31일(음, 구정 초 3일) (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 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일주문



'연우회' 창립법회서 법문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은 1월 25일 오후 6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일산불교병원 불자회 '연우회' 창립 법회에서 법문한다.



자매결연 20주년기념 日서 법문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은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후지학원고등학교에서 청담학원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법문을 했다.



설맞이 행복여행 실시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춤과 음악을 이용한 템플스테이 '설맞이 행복여행'을 실시한다. (041)841-6221



제천 등 신도회 신년교례법회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1월 16일 제천 유유예식장에서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 영월 원주 신도회 신년교례법회'를 거행했다.



지관 스님 초청 신년대법회

진주사암연합회 회장 불산 스님은 1월 25일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청 신년대법회를 봉행한다.



성남시불교사암총연합회장에

성남 봉국사 주지 효관 스님은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봉국사 심검당에서 성남시 불교사암총연합회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031)755-0329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으로

목아박물관 박찬수 관장은 1월 13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2006년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 위촉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는 1월 12일 불교 유적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으로 추가 위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前 해군본부 군종감 강남석 법사는 1월 10일 열린 이취임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대승사 등 석불친견법회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장은 2월 5일 경북 문경 대승사와 묘적암 일대의 마애불을 찾아 석불친견법회를 떠난다.

"이천시대 개막… 재활치료센터 마련"

조계종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시설장 묘전 스님

2006 큰일 준비해요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 산하 소쩍새마을이 비인가시설 시대를 마감하고 올해 승가원자비복지타운으로 거듭난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지 꼭 24년만이다.

새로 건립되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은 불교계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최대규모일 뿐 아니라 재활치료와 연구까지 함께하는 종합시설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승가원은 치악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그간 건물을 증축할 수 없어 시설이용자들이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등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 방침에 따라 인가시설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승



가원은 지난해 200여명의 시설 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 이천으로 소쩍새마을을 이전하고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3만평 부지에 들어서는 '자비복지타운' 건설운영의 현장총괄 지휘자인 자비복지타운 시설장 묘전 스님(사진)은 "복지타운이 건립되면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한국 불교계 최대규모와 시설을 갖춘 복지타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8명의 시설장애인 이사가 완료되는 것은 3월이지만 묘전 스님에게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올해 말까지 장애인재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2010년까지 체육관과 재활센터, 작업재활시설, 의료센터, 자비복지연구소 등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으로 완성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산책로와 자연학습장을 갖추고, 체육관과 의료시설도 주민을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요즘 스님은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다. 시설 건립비만 약 50억 이상이 들지만 정부 지원은 11억 7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묘전 스님은 "불자 한분 한분의 뜻있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02)928-0750 **이은비 기자**

"지혜세상 이끌 여성지도자 양성"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이영숙 원장

"불국토의 도시인 부산에서 여성불자들이 한데 모여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크고 웅대한 사업보다는 덕 있고 지혜로운 여성을 키우는 작고 소박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1월 1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창립법회를 연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이영숙 원장(73 · 법명 근관 · 코모도호텔 대표 · 사진)의 포부는 너무나 소박하다. 경험 없이 호텔업에 뛰어들었을 때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길잡이 삼아왔던 이 원장이기에 불법을 펴는 일이라면 아까운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큰마음'의 소유자다.

'풀이 눈에 띄면 그 풀을 발견한 그 사람이 뽑아야 하고, 일거리가 눈에 띄면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신념 때문에 원장직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은 이 원장은 1984년부터 부산불교신년하례회 장소와 음식공양을 20년 동안이나 도맡아 왔을 만큼 '큰손'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지원인 만큼 중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지역 지원이 생기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문화포교에 앞장"

봉은사 새 신도회장 김경남씨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봉은사, 현대적인 행정체계를 갖춘 봉은사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COEX) 상무이사 김경남(52 · 법명 대원 · 사진)씨가 봉은사 6대 신도회장으로 당선, 1월 13일 취임했다.

김 회장은 신도회 활성화 방법과 투명한 재정운영 방안, 조직 네트워크 계획을 세워놓았을 뿐 아니라 봉은사 도량 내 신도들의 주차문제 해결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 회장은 한 달에 한번은 문화공연의 장을 마련해 불교문화공연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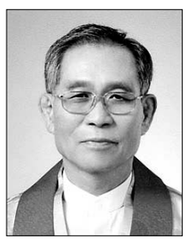


김광식 교수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에



조계종 교육원은 1월 12일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에 김광식 박사(사진 왼쪽)를, 승가교재담당 연구원에 서수정씨를 각각 임명했다. 김광식 박사는 부천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수정씨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효강대종사 총지종 종령 재추대



효강 대종사(사진)가 1월 12일 총지종 서울 통리원에서 10대 종령으로 재추대됐다. 효강 대종사는 2004년 5월 총지종 제 9대 종령으로 추대됐으나 열반한 룩정 대종사의 잔여임기로 추대돼 이번에 재추대하게 됐다.

효강 대종사는 "총지종의 부흥을 위해 시대변화에 걸맞는 교화방편의 개발, 도제양성, 의식과 의궤의 개혁, 불단장엄, 사회복지의 활성화, 포교방법의 개발 등을 마련해 교화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동산불교대 한일불교문화교류공연

동산불교대학은 1월 17일 일본 북해도 양원사를 초청해 제4회 한일불교문화교류공연을 열었다.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산아미타합창단, 동산바라반, 동산 다도학과 학생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양원사 신도들은 퉁소연주, 일본 찬불가 합창 등을 공연했다.

LA 포교사단 신년하례 · 4대 단장 취임식



조계종 미국 LA 포교사단은 1월 14일 달마사에서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소속 주지스님과 포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황경권 포교사가 제4대 포교사단장에 취임했다. 황 단장은 △양로원 방문 불자 위로 △노숙자 방한복 담요 지급 △환경미화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노원구사암련, 불우이웃돕기 하루찻집



노원구사암연합회(회장 선혜)는 현대불교신문 등의 후원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루찻집을 1월 16일 노원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다도시연 등이 열렸으며 1200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노원구사암연합회는 올해 초파일 이전 사단법인화를 추진중이다.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 창립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회장 송시향)가 1월 15일 실내체육관에서 '박완일 교수와 함께하는 붓다의 향기' 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행사는 동화사 주지 지성, 운문승가대학장 명성 스님, 대한불자가수회장 김흥국씨를 비롯한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축하하는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다시 보는 화제의 신간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고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종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신국판/김백만 편저/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의와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5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 팩스 접수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불자 세상보기

문윤정
수필가

결혼, 생명과 인연의 고리

청혼하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조건으로 '주방 없는 집'을 요구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주방이 없는 집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독신자'가 증가하고, '무자녀' 생활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이다.

2,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결혼과 직장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30%를 훨씬 웃돌았다. 또 출산과 직장 중에서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대답도 30%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연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연의 고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어느 고리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된다.

우리의 생명 속에는 앞서 간 수많은 조상들의 생명이 축적되어 있으며, 결혼을 통하여 앞으로도 무수한 생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이어 온 생명의 고리, 인연의 고리가 점점 설득력과 힘을 잃어가고 있다. 결혼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 교육정책의 끊임없는 실패로 아이 낳기가 두려워졌다는 것 그리고 산모와 육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혼여성의 출산기피가 아니라,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만 있다면 가사노동이 수반되는 결혼은 사양하겠다는, 또 힘들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면 된다는 어느 미혼여성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의 밑바닥에는 책임의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자녀 없는 부부생활이나 독신생활은 책임질 부양가족이 없어서 홀가분하기도 하겠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과연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가져다줄는지 의문스럽다.

부처님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 겪어야 하는 다섯 가지 고통이 있다고 쌍윳다니까야에서 설하였다. 나이가 어릴 때에 시집가서 친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 월경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은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한다는 것, 여성들은 남자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꼽았다.

부처님은 또한 여성에게는 다섯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하였다. 용모의 힘, 재산의 힘, 친족의 힘, 자식의 힘, 덕성의 힘이다. 임신과 분만이 여성에게 고통이기는 하지만, '자식을 두었다는 것'이 '여성의 힘'이라고 설하신 것에 우리는 한 번쯤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혼을 통하여 생명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무수한 인연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사회와 인류로 확대되어질 수 있는 공공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는 여성들이 결혼과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종책모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화엄회 일승회 등의 움직임이 바빠졌고, 또 새롭게 '미래를 여는 승가회'라는 종책모임이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모임들이 종책의 창출과 종단내에서의 권력의 창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조계종 내부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실이다.

문제는 그 두 축 가운데 어떤 축이 중심축이 되고 있느냐 이다. 아무리 출세간의 법을 지향하는 불교 종단이라 하더라도 일단 세속 속에 종단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일정한 정치행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이 모임들이 이름 그대로 종책의 창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권력 창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계종 종단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힘들다.

건강한 종책모임을 위해

오직 권력창출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의 파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불자는 물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불교의 위신을 추락시킨 예도 있었다. 이왕 정치적 행태를 띌 수 밖에 없다면, 정말 세간의 모범이 될 만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출세간법에 바탕한 세간법의 운용은 저렇구나!" 하는 찬탄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임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있었던 지난 총무원장 선거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있을 동국대 이사장 선출, 하반기 제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종책모임들의 본질과 지향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모임들은 종책의 창출을 축으로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종책모임이 되어야 한다. 종도의 뜻을 수렴하고, 종책을 수립하며, 수립된 종책을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통해 차츰 인맥과 파당의 색채를 씻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권력창출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님들의 모임이라면 결국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하는 천만불자들의 엄한 질책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를 묻는 초심의 자세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노력 보이기를 촉구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양극화

"이익 되거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손해되는 것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툼과 분쟁이 없어진다." 〈열반경〉

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극화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세계경제포럼이 갤럽에 의뢰해 세계 62개국 정치 · 경제지도자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각국 정상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양극화'(16%)가 2위에 올랐다. 1위로 꼽힌 '경제성장'(17%)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격차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핵심에는 갈등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빈부 갈등이나 노(勞)-노(勞) 갈등, 상대적 박탈감, 범죄유발 등은 양극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노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양극화 해법에 대해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결국 세금 올리자는 말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이들이 있는가 하면 "혁신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라며 힘을 북돋우는 이들도 있다.

부처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은 쌀로 밥을 만들고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은 모래로 밥을 만든다"고 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불만과 다툼이 아닌 원만하게 풀어나가려는 지혜와 노력이다.

■박봉영(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 진입로 포장

입지여건 고려가 우선

무조건 사찰 진입로 포장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각 사찰마다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찰 진입로가 일주문까지 라면 그곳까지는 포장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찰 진입로가 일주문 안쪽까지라면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는 경내로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땅을 밟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진입로에 사하촌이 있는지도 포장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된다. 예를들어 수덕사와 같은 경우는 일주문까지 진입로가 짧고 주변에 상가로 구성돼 포장된 것이 좋다. 하지만 절반만 포장돼 있는 의성 고운사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가와 사하촌이 없고 숲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포장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사찰이 지니고 있는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각 사찰도 상황이 변하고 있다. 진입로 주변이 상가와 사하촌으로 밀집돼 있으면 포장을 하고, 숲으로 조성돼 있으면 생태환경 보호 차원에서 포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접근성 높여야 사찰기능 원활

자연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찰 진입로는 포장이 안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사찰 규모도 커지고 대중 살림도 늘어나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사찰 진입로 포장은 불가피하다.

불자들도 참배하러 오기 위해서는 진입로 조차 포장이 안되면 불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상업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사찰 시설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절에 와서 시설물들을 아끼고 주변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찰 진입로 포장의 유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사찰의 삶도 이제는 하나의 현실이고 생활의 일부다. 무조건식으로 보호만 한다는 명목으로 생활의 편리를 무시한 채 그대로 놔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봉(충주 흥천사 주지)

보행자 위한 배려도 필요

사찰 진입로의 포장에 반대한다.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과연 흙을 밟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지 않다. 사실상 아스팔트 포장이 범람하는 이시대엔 유일하게 산에 올라가야만 흙을 밟을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 사찰 진입로까지 포장한다면 정말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닐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

사찰 진입로 포장은 보행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가 다니기 위해서 많은 사찰들이 포장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차를 타고 사찰 앞마당까지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찰 입구에서부터 흙을 밟으며 한발짝 한발짝 부처님 전에 가까이 가는 것도 불자들의 참도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사찰 주변의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산길을 포장하면 야생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백승호(경북 구미시)

'생명존중' 차원서 자제를

부처님께서는 생명존중과 환경보호를 강조하셨다. 말못하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중생들의 이기심때문에 포장과 건설을 일삼는다면 불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불편하더라도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길은 자연 그대로 였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자연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과 공생하는 사찰의 모습이 좀더 신심있는 불자들을 양산해내는 참 수행도량의 진면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종성(대불청 회원)

'현대' 만평 심민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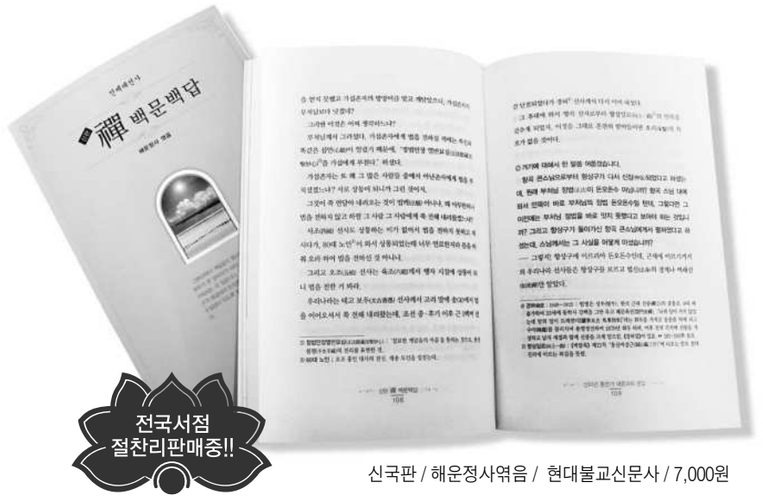


진제대선사의 법문집 신판 禪 백문백답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정상 무너지고
벽력같은 일 할에 천만 갈등 흔적 없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납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진제스님의 법문집 선(禪) 백문백답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좌담법문(1997년)'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과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 치의 막힘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평소 일반대중에게 걸림돌이 되고 화두가 되었던 질문과 스님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북송담(인천 용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스님의 신판 선(禪) 백문백답 !
이제 온라인 여시아문과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해운정사엮음 / 현대불교신문사 / 7,000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화주문 : 02_2004_8220 팩스주문 : 02_737_0696 yosiamun@buddhapia.com

불교문화산업의 모든 것 한자리에

“불교문화산업 발전의 기폭제”

고부가가치 창출 · 수익환원 방안 모색

interview BBS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2006 한국불교박람회’는 불교문화와 불교 관련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교 인구 증가에 따른 불교 관련 산업의 팽창과 맞물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불교 산업 발전 원년의 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의 포부다.

그동안 불교계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정체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

이번 3월에 열리는2006 한국불교박람회는 이러한 불교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불교문화와 불교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사회 문화적 변화를 수용해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성언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사업성’과 ‘공익성’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고 말한다.

“박람회 참가업체들이 관련 분야에 진출 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자문역에 주의를 둔 것은 물론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해 공익성을 띤 행사로 자리 잡게 하기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006 한국불교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종류와 분야도 다양하다. 불교문화 발전을 이끄는 단체, 불교 관련 산업, 일반기업 등이 참가하고 사찰건축 · 유지보수, 장례문화, 행사기획, 불교용품, 종단 및 교육, 전통차, 불상, 탱화, 승복, 친환경 먹거리, 불교웰빙관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시 되는 것이 그것.

불교문화와 불교산업을 아우른 큰 행사다보니 어려움도 많았다.

“불교계에 만연한 대형행사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불교관련 대형행사가 대부분 성공하지 못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계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이것이 행사준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체들의 참여뿐 아니라 관람객들의 참여에도 낙관하고 있다. 우선 박람회 내용이 스님과 불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벌써부터 박람회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람료 또한 전액 무료로 경제적 부담 없이 불교에 대한 모든 유 · 무형의 정보를 관람할 수 있다.

끝으로 이성언 사장은 “이번 행사가 21세기 미래문명의 대안으로서 불교를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사회적으로 불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한국불교박람회 3월23~26일 서울무역전시장서 개최

한국불교 문화 · 산업 발전을 위한 박람회가 최초로 열린다. BBS불교방송과 (주)제이컨벤션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이 주관하는 ‘2006한국불교박람회(www.bexpo.org, 3월 23~26일)’가 그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웨딩박람회 등은 많이 개최됐지만 사찰건축 · 불교용품 · 사찰음식 · 장례문화 등 유 · 무형의 불교관련상품이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제1전시관에서는 사찰건축, 전시용 불교문화상품이 제2전시관은 전통차, 사찰음식 등의 전시가 제3전시관은 장례문화(납골), 불교용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2006 불교계 첫 대규모 행사인 불교박람회의 이모저모를 미리 들여다봤다.

불교계 참가업체

 # 고령기와

이 업체는 전통한식형기와 제조설비의 혁신적인 개선과 품질개발로 전통한식형기와 제조에 있어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불교계와 인연을 맺어온 기업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1위의 한식형그을림기와 전문생산업체로서 50여년 간 국내 주요 궁궐, 사찰 등의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건물에 기와를 생산 · 공급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와제조과정 소개와 각종 기와를 전시할 예정이다.

(054)954-8000 www.rooftile.co.kr

 # 범종사

구리와 상납을 사용한 전통주조공법에 따라 종을 만드는 범종제조전문업체다. 특히 범종사에서 만든 종은 그 소리가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제2의 애밀레종 제조소’로 더 유명하다. 범종사는 이번 박람회에 500관 규모의 범종 1개와 20 · 30관 규모의 법당용 종 각각 1개, 금고 2개를 출품한다. 또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법당용 종을 직접 쳐볼 수 있는 ‘타종체험’도 마련된다.

(02)735-1045 www.beomjongsa.com

 # 불교미술감상실



단청, 탱화, 황금탱화 등 사찰 미술 장엄을 맡고 있는 불교미술감상실도 2006한국불교박람회에 참가한다. 특허 제0499668호인 황금탱화(황금지장탱화, 황금수월관음도 등)는 물론 황금단청 5점과 그동안 아껴두었던 작품들을 공개 전시하여 불교미술을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단청과 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황금33관음도 채색 시연회도 가질 예정이다.

(031)295-2985 www.danchung.or.kr

 # 불제대원기업

1989년 신심 있는 불자들로 구성되어 불교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업을 하여 ‘불제 연등용 전선(사찰용)’과 건전지용초,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를 주력 제품으로 오늘까지 꾸준한 제품개발로 생산에서 시공까지 하고 있는 불자기업체다. 특허청으로부터 화재예방 안전과 견고한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받은 제품을 전시한다. (02)2266-2634 www.bulje.co.kr

 # 거성옛날장식

최고의 제품이 거성장식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사찰장식, 한옥장식, 전통장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전장식 하나하나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온 기업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문 뒤틀림을 방지하는 연꽃무늬격자티자와 접이식 문인 삼대못, 경첩역할을 하는 돌쩌기 등 200여 점의 장식품을 선보인다. 또 한옥대문이 만들어 지는 일련의 과정을 시연해 보일 예정이다.

(02)2253-9923 www.gsdeco.com

문화관련 참가업체

 # 명원문화재단

한국다도 종가 ‘명원문화재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전통 다례 재현, 문화체험, 문화교류 행사를 후원한다. 또 전통 다도 예절과 차 문화를 알리고 명원전통다례법도 시연할 예정이다.

명원문화재단 김거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우리 전통차 문화가 널리 향유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행사 참가로 차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명원문화재단은 명원 다례 전수관, 한국 명원 차 문화연구소, 명원 다도 대학원, 삼청각 명원 차 문화원, 운현궁 예절학교, 지리산 명원 茶園, 전국 지부와 지회, 해외 지부에서 명원 다인을 교육 ·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 다문화 연구를 위하여 명원 다례서, 명원 다문화 논문집도 발간한 바 있다. (02)742-7191 www.myungwonculture.org

 # 귀일 스님의 차탁과 국화차



봉정사 지조암 주지인 귀일 스님의 출시품은 차탁(차받침대)과 국화차. 안동 국화차는 그 맛과 향이 뛰어나 차인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스님의 차탁은 대웅전 등을 개 · 보수 할 때 나오는 폐자재인 서까래를 재활용해 불교 고유의 상징물인 연화문이나 꽃구름 등을 그려 넣어서 불교문화상품으로 재탄생한 것. 특히 오방색으로 구성된 연꽃 차탁은 관광기념품과 생활도구로 인기가 높다. (054)852-5759 www.kiwart.com

 # 전통등연구회

전통등의 맥을 다시 잇고 있는 전통등연구회. 이 연구회는 단순히 등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고증과 연구 작업을 거쳐 수 천 년의 세월을 넘나들면서 전통문화의 씨줄과 날줄을 다시 이으며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등을 복원하고 있다. 전통등연구회가 2006한국불교박람회에 야심차게 선보일 등은 야외에 전시될 용, 학, 코끼리, 사천왕을 형상화한 30여점의 대형 장엄등이다. 실내에서는 실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연꽃등, 갓등, 전통등 50여점이 전시된다. (02)396-0308 www.korealantem.com

일반 기업체

 # (주)풍산

동 및 동합금 등 동가공품업계의 선두주자.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 해외생산기지 구축으로 생산 판매의 국제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06한국불교박람회에는 동기와, 동판대장경소재, 수맥방지동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02)3406-5063 www.poongsan.co.kr

 # 한국모노레일



지형에 맞게 움직이는 차세대 운송방식인 모노레일 시스템의 국내 대표기업이다.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운송시스템인 모노레일시스템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2006한국불교박람회에서 직접 모노레일을 설치해 현장시연은 물론 모노레일 탑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02)546-2621 www.monorail.co.kr

 # 대한한옥개발(주)

이번 박람회에 소개될 주력 제품은 초경량 기와인 ‘천년와(千年瓦)’. 이 기와는 레진 콘크리트라는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기존 토기와 무게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전시부스를 전통한옥식 사찰로 만들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31)406-5253 www.daehan21.net

 # 능전석재

현재 각종 불교조각품은 물론 장묘제도개선의 선구역할을 하는 납골묘(납골당)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35년의 축적된 기술을 보여준다. 납골묘, 묘석, 석등, 불상, 석탑, 석공예품, 기타 수백점의 작품들을 10개 규모의 대형 부스에서 전시회 기간 동안 상설 전시한다. (031)764-3609 www.njstone.co.kr



아·름·다·운 삶·사람

/category/bosal.asp

“가족보다 따뜻한 말 있나요?”

가출청소년들의 ‘삼촌’ 유재성기사



향기 도반의

고아원 앞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한 눈에 안기는 그 나무 꼭대기를 소년은 매일 같이 올랐다. 오가는 많은 사람들, 시원한 바람결…. 땅에 내려가기 싫었다. 나뭇가지를 부둥켜안고, 허공에 발길질만 해댔다.

하늘은 잔인하게 파랬다. 뭉글 피어 오른 구름은 엄마의 젖가슴처럼 포근했다. 하지만 미군이었던 아버지가 훌쩍 떠나고, 어머니는 영등포역 허름한 여인숙에서 목을 매면서부터 그에게 세상은 누런빛이었다.

나이! 마흔 여섯이라더군요
아는것이 없어 억울하게
12년간 징역살이도 했죠
앵벌이 아이들 보면 나 같아
한 두명 데려 온 것이
어느새 16명이나…
택시운전하며 번 전재산으로
쉼터 만들 땐 어찌나 좋든지…

희망 심어 줄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이 꿈이에요



버려짐과 그리움

‘가출청소년들의 삼촌’ 유재성씨. 서울 신월동 반지하 방에서 만난 그는 흐릿한 기억부터 내놓았다.

“제 나이를 물으셨나요? 마흔 여섯이라 하더군요. 그나마 추정치라고 하지만. 고아원에 들어간 것은 6살 때였던 같아요. 어머니 손잡고 창경궁 나들이하고 여관방에 들어왔었는데…. 다 늦은 저녁에 경찰들이 왔었죠. 그날로 경찰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들어왔죠.”

고아원 이야기가 시작되자, 말끝에서 ‘그리움’이 묻어났다. 늘 혼자였다는 유씨. ‘가족’이란 개념조차 몰랐던 그는 ‘가족’이란 말을 연신 되뇌였다.

두개의 주민등록증

17살부터 두 개의 이름으로 살게 됐다. 유재성과 최영철. 어긋남은 유씨가 고아원 큰 형이었던 최씨의 병역신검을 대신 받으러 가면서 시작됐다. 얻어맞기 싫어 최씨의 병역면제를 받은 유씨. 그대로 최영철이 돼버렸다.

“신원을 증명할 생각으로 버리지 않았던 형의 주민등록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고아원에서 나와 꽃가게에서 일할 때, 빌린 사진기를 친구의 실수로 잃어버리면서 경찰에 불잡혀갔죠. 최영철이란 이름으로 신원조회를 해보니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못할 짓은 다 했더군요. 소명할 기회도 없이 구속됐죠.”

그렇게 공주교도소와 청송감호소에서 12년간 옥살이를 했다. 얌전히 지낼 수 없었다. 너무 억울했다. ‘내가 아니다’라고 외칠수록 전과자의 상투적인 수법이란 눈초리에 얽매였다. 그 안에서 갈 때까지 다 갔다. 나중에는 몸 하나 겨우 가둘 수 있는 작은 공간에 갇히게 됐다. 거기에서도 발악을 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죽겠다고 하니, 감시하는 전담교도관까지 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악하는 유씨에게 경비교도대원이 귀찮은 소리를 던졌다.

“아저씨, 아저씨! 내가 공부를 하니 조용히 좀 해요.”

“야! 너는 여기에 앉아서 맨날 책만 읽고 있냐?”

“아저씨! 정말 글 몰라요? 책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저씨가 정말 억울하면, 공부해서 아저씨를 알려요.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 소리나 꽥꽥 지르지 말고.”

큰 충격이 있었다. 공부의 출발은 의외의 순간 불같이 일어났다.

몰랐기에 ‘배워야 했다’

“‘모른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12년간 징역살이를 해야 한 것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세상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이 ‘무지’ 때문이란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억울함이 뼛속까지 스며들더군요. ‘이제는 알아야 겠다’는 욕구가 솟구쳤어요.”

1992년. 34살 늦은 나이에 책을 움켜들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앞이 캄캄했다. 유씨를 감시하던 경비교도대원에게 글 읽는 것에서부터 덧셈 뺄셈까지 살뜰히 배웠다. 재미가 생기자 욕심이 생겼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교도소 교무과에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마침 징벌기간이었고. 그래서 책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갇힌 그곳에서 던져진 책 몇 권은 너무 귀중했어요. 통째로 외워버렸죠. 외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읽다보니 외게 된 거죠.”

책을 외니 글이 쓰고 싶어졌다. 하지만 쓸 펜도 공책도 없었다. 마루바닥에 맨 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얼마 후, 초등반 검정고시를 덜컥 합격했다.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다. 중등반과 고등반 검정고시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곧장 95년 중학검정고시 수석, 96년 고등검정고시 전과목 만점 수석이란 진기록도 세웠다.

가출청소년들의 보금자리

그해 겨울, 교소도 문을 나왔다. 일단 택시면허를 따고, 서대문 산동네에 1평짜리 고시원 방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서대문 육교에서 구걸하는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서, 불현듯 옛날 고아원 때 생각이 스쳐갔다.

“차라리 못 봤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용산역에서 맞으면서 앵벌이를 했었는데…. 저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인데.’ 그런 생각에 며칠 밤을 고민했죠.”

그 아이를 그대로 택시에 싣고, 고시원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맹목적이었다. 대안이 없었다. 안되겠다 싶어 방 한 칸을 얻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없는 돈을 쪼개 남대문시장에서 옷을 사 입히고 목욕을 같이 했죠. 그렇게 두 달을 살았을까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 금세 식구가 다섯이 되더군요.”

고시원, 지하 단칸방, 쪽방, 옥탑 방으로 힘겹게 보금자리는 옮겨야 했다. ‘혹시 내가 이 아이들이 좋은 복지시설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뺏고 있지는 않을까?’ ‘능력도 없는 내가 아이들을 고생만 시키고 있지 않을까?’ 변명으로 위안 삼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래도 행복했다. 수없이 보금자리를 옮겨 다녔지만,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기쁨 그 자체였다. 피붙이보다 더 뜨거운 가족애가 유씨를 휘감았다.

아이들이 아프면 난감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주민등록증이 있는 아이들의 보험증을 갖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똑같은 아이의 이름으로 치료를 계속 받다보니, 금세 들통이 났다. 치료비와 생활비에 허덕였다. 돈을 구할 때도 없고,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아도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7년 전, 유씨는 10년 넘게 택시운전으로 벌어놓은 전 재산 3천만 원을 강원도 외진 곳에 버려진 폐교에 쏟아 부었다. 오로지 안정을 못 찾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에게 쉼터를 마련해주고 싶어서였다.

“몸으로 때웠죠. 밤늦게까지 땅 파고, 못 질하고.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16명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였죠. ‘어머니’로 모시는 반신불수의 어르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딸, 그리고 9명의 아이들, 아내와 아들 딸, 장기수 할아버지가 함께 살 집을 갖는다 생각하니 혼자서도 피식 웃음을 나왔어요.”

온 재산 쏟아 ‘평화쉼터’ 만들다

하지만 유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겨울이면 뿔뿔이 흩어진다. 9명 아이들은 서울 신월동 반지하 공부방으로, 어머니는 영월 ‘평화쉼터’, 아내와 자식들은 마산 처갓집에서 겨울을 난다. 매월 들어가는 4백만 원 가량의 생활비와 난방비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씨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간 거쳐 간 40여 명의 아이들이 사회 곳곳에 제 몫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고등반 검정고시에 16명, 중등반 20명이 합격했고, 나머지들 역시 기술을 배워 각자 밥벌이를 잘하고 있기에 늘 마음이 든든하다.

유씨는 요즘 그런 아이들의 소망과 희망을 담아 꿈을 꾸고 있다. 대안학교 설립이다. ‘평화쉼터’를 활성화해 아이들이 편안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늦은 저녁, 택시운전을 나가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유재성씨는 꿈이 있기에 행복하다. (011)389-5357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연말연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 농 협 053-01-265785 현대불교신문사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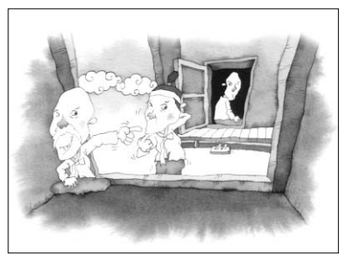
<52> 청출어람(靑出於藍)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다.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수직적인 사이인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므로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서로 커간다고나 할까. 스승과 제자는 때로는 긴장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나의 경우도 젊은 학인들과 선어록을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은 늘 질문이 들어와 당황하곤 했다. 그 때 모르는 건 같이 모르고 아는 건 같이 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마조 선사의 '너무 잘난 제자' 서당지장(735~814)과 백장회해(749~814)는 스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지냈을까?



제자들의 공부가 일취월장하면서 마조 역시 후학이 버거울 때도 있었을 것이다. 두 제자 역시 스승이 마뜩찮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가 '마조백비(馬祖百非)' 공안이다.

어떤 납자가 마조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사구(四句)와 백비(百非)를 떠나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곧장 보여 주세요."

이는 언어를 빌리지 않고 진리의 당체를 바로 보여달라는 정형화된 선문답이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등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대답을 해주려다가 말고 그 순간 마조는 '번쩍' 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다.

이놈들이 '남들의 칭찬만큼' 공부를 하긴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 납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심기가 불편하니 지장에게 가서 물어라." 원문에는 이 말 밖에 없지만 내심으로는 이렇게 더 주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너석이 한 대답을 그대로 나에게 와서 전해다오."

그 납자는 시키는 대로 지장에게 갔다. 건너편 지장은 방장실에 들어갔던 납자가 자기 방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그 납자는 마조선사께서 '조사서래의'를 지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단박에 이 노장이 나를 떠보려고 하는 짓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질문을 던질 일이지 남에게 왜 시키누. 괜히 배알이 틀어졌다. 아무리 스승이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지. 내가 속마음을 보여 줄줄 알고. 그래서 핑계를 댔다.

"나는 오늘 두통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저쪽에 있는 백장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면서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흉내를 냈다. 백장이 가만히 보니 웬 납자가 스승의 방에서 나와 지장의 방을 거쳐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아닌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래서 그 납자에게 전말을 물었다. 어쭈 이봐라. 내 살림살이까지 확인해보려는 것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놓을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나는 모른다."

영문도 모르고 대답도 듣지 못하고서 경내를 '다리만 아프게' 한 바퀴 빙 돈 그 납자가 마조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보고했다. 마조는 '이것들을 그냥' 하는 표정을 짓고는 총평했다.

"장두백(藏頭白)이요, 해두흑(海頭黑)이로다(지장 머리는 희고 백장 머리는 검다)."

홍건적이라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산적 도둑놈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흰 띠나 검은 띠를 둘렀던 산적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 말은 "내 법을 훔쳐간 이놈들이 속내도 드러내지 않고 스승한테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어. 이 도둑놈들아, 밥값 내놔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너무 의리선(義理禪)적으로 헤아린 것인가.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제자들의 공부 수준 떠보려던 마조선사
한마디 대답도 못 듣고 "藏頭白 海頭黑"

소박한 일상언어로 수행해 보실래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기까지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 때문에 일상의 말에 녹아든 수행의 가치를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진은 법왕정사 군자법당에서 감사수행을 하고 있는 재가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 마디 말로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비난한다. "당신 친정 사람들 보면 한결 같이 저질이야!" 갈라서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민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응대하는 아내의 말에 따라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최근 들어 일상의 용어를 통한 '쉬운 수행'이 뜨고 있다. 일상용어로 자기 삶을 닦아가는 수행이 재가불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일상용어에도 수행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표현은 '쉽게', 내용은 '깊게', 일상의 삶을 경영하는 동사섭, 보현행원, 감사수행의 세계로 들어가 봤다.

반응하는 순간 깨어있기

■ 동사섭, '~구나, ~겠지, ~감사' 실천

동사섭(同事攝)수행은 일상의 어법으로 수행법을 말한다. '~구나, ~겠지, ~감사'의 실천이 바로 그것. 가령 친정집을 비난하는 남편의 말에, 동사섭수행은 "남편이 비난하는 구나", "사정이 있어 불같은 노여움을 내겠지" "더 심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하며 바깥 경계를 수용하는 힘을 강조한다. 즉 반응에 접촉하는 순간, 깨어있으라는 의미다. 또 일상용어에 녹아든 수행의 진면목을 캐어내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사섭 수행자 김종근(46 · 사천고 교사)씨는 "'구나, 겠지, 감사'의 실천은 일상 속에서 수시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긍정의 힘이 길러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좋은 점을 우선 보게 됐다"고 말한다.

1980년부터 용타 스님이 주창한 동사섭수행의 특징은 '좋은 느낌', 즉 행복을 얻기 위해 제시한 5대 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正體)' '큰 희망 갖기(大願)' '마음 잘 다루기(修心)' '마음 잘 나누기(和合)' '잘 역할하기(作善)'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이 '활불(活佛)'임을 현실생활에서 구현해나가라고 말한다. www.dongsasub.org (063)227-1000

너그러이 허물 덮어주기

■ 보현행원,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는' 보현행원(普賢行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94년 '널리 바치고 섬기라'는 <보현행원품> 언구에 감동을 받고 보현행원 수행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종린 거사(서울 홍익소아과 원장)는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의 실천을 강조한다.

여기서 '고맙다'는 세상이 일체 중생의 공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감사하고, '잘했다'는 어느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인정해주며 너그러이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가짐이다. 또 '미안하다'는 매사가 자신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참회하는 말이다.

이 거사는 "이 세 마디는 고맙지 못한 일까지 '고맙다' 소리를, 잘하지 못한 일에조차 '잘했다' 소리를 나오게 하며, 미안하지 않은 일에조차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잘못을 자신의 허물로 안고 가게 한다"며 "보현행원은 이렇듯 쉽고 소박한 마음과 일상의 말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일상용어를 통한 보현행원 수행은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란 믿음에서 출발한다. 일상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현실은 사라지고 수행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행은 쉬워야 하고 그 말은 일상용어가 돼야,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거사는 강조한다. cafe.daum.net/bohhyun (02)2659-1035

지금 이 순간에 감사

■ 감사수행,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메마른 심신을 일상의 말로 기름지게 하는 생활응용 수행. 염불선 수행원리를 응용한 '감사(感謝)수행'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3년 전 감사수행을 계발한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에 대해 감사를 표하자는 의미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 속에 '고맙습니다'는 긍정의 말이 생겨,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수행자 정정옥(34 · 서울 서초동)씨는 "5시간 넘게 행선(行禪), 좌선(坐禪), 절을 이어가면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반복해서 외면 저절로 고마운 일이 생겨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며 "특히 이 말을 지극히 염송하면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염송만 남게 되는 체험도 한다"고 말한다.

이런 감사수행의 원리는 '염불하는 이 놈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를 화두 삼아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워 결국, 무념의 경지에서 '내가 부처(自性彌陀)'임을 깨닫는 염불선 수행법에 있다. 즉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란 일상의 언어가 감사수행의 화두가 된 셈이다. (02)456-4994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서울 육조사, '선가귀감' 강설

서울 육조사는 선원 돈암동 이전을 기념해 2월 16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선가귀감> 강설 법회를 봉행한다.

5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이번 강설에서는 주지 현웅 스님이 강주로 나서며,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출 · 재가 제한이 없고, 참가비는 15만원. (02)953-5291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관법명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 과정의 '제17차 관법명상 수련회'를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 보현당에서 봉행한다.

이 대학 명상학 황용식 교수가 지도하는 이번 관법명상 수련회는 관법명상 소개, 단체 명상, 사랑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인원 30명, 참가비 15만원. (02)890-2834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 연구개발자 :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안전성검사 : 시험번호 제 G02128호
● 상표등록번호 : 40-2001-0031242
● 구입문의 : 성모암 법연 스님 (010-9282-0733)
● 특별판매가격 : 125,000원(100㎖×60포)
◎ 본 제품판매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금에 사용됩니다.

서울 돈암동 六祖寺 현웅스님의 禪家龜鑑 강설



선원장 玄雄스님

나이 20세에 구산 선사로부터 선의 기본을 익히고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대중생활을 뒤로하고 산중에서 6년간 홀로 지낸 뒤 공부에 변화를 경험하고 토굴 생활을 끝냈다. 20년간 서양에서 간화선을 지도하고 1년 반 전에 고국에 돌아와 육조사 선원을 개원 했다.
조계사 선원장 초청 간화선중흥법회를 시작으로 국내 백고좌 법회, 성천아카데미에서 육조단경, 한국정신치료학회에서 기신론, 서울불교대학원에서 간화선 강의, 불교방송국에서 간화선 상담과 신심명, 증도가 등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선수행집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 날 짜 : 2006년 2월 16일 ~ 5월 18일(양력)
▶ 시 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00 ~ 8:30
▶ 장 소 : 새로 이전한 서울 돈암동 육조사 禪房
▶ 입방대상 : 신심 있는 사부대중, 출 · 재가자들은 다 가능함
▶ 입방문의 : (02)953-5291 ▶ 입 방 비 : 15만원
▶ 입금계좌 : 우체국 <014233-01-001347 >
●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과 좌담회를 가지며 묻고 대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 정원제 이므로 조기에 입방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禪 家 龜 鑑은 ***

이조시대에 백화도인 西山 스님께서 자신의 안목으로 부처님 경전과 조사님들의 어록 <금강경, 육조단경, 벽암록, 전등록 ,몽산 법어 ,보조법어 등> 중에서 요긴하고 간결한 골수만 뽑아 발췌 해 놓은 선문의 모음집 입니다.

선방에 앉아 있다고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혼자 하게 되면 습관만 잘못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고쳐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방황과 헛된 아상만 자라나며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병만 남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인님네들의 간절한 지침서를 의지해 그 깊은 뜻을 다시 드러내어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신심을 고쳐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입니다.



교리공부와 수행은 신행의 기본, 이제는 자원봉사 등 나눔이 재가불자의 대표적인 신행 형태가 되고 있다. 사진은 불자들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나누는 마음속에 불법 향기 솔~솔

신행의 확산 코드는 '회향'

조계종 포교사단 상담분과에서 포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최숙희(57 · 법성화)씨. 전법활동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부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최씨가 매주 화요일마다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곳이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청각장애인실이다.

"내게 딱 맞는 신행은 봉사"

최씨가 하는 일은 수화 강좌를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어르신들과 비장애 어르신들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한다.

그저 어르신들의 배움 열의가 좋아서, 정상 어르신들에 끼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청각장애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서 센터가 문을 열었던 6년 전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수행하고 절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8재계를 지키려고도 노력하지요. 그런데 제게 가장 잘 맞는 신행 방법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이 수화 봉사였습니다."

최씨는 '신행은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포교활동과 서울 노인복지센터 봉사가 없는 날에도 각 대학교 수화 동아리 강의에서부터 몇 군데 서울지역 복지관 봉사까지, 최씨의 일주일은 나눔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이 같은 신행활동은 비단 최씨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나눔이 이제 신행의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 신행단체, 직장직능 단체들이 이전에 교리공부와 수행방법 알리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회향'까지 밟을 넓혔다. 즉 불자들이 앎의 욕구 충족, 개인의 마음 닦기에서 벗어나 사회 참여를 통한 '자비' 실천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봉사 등의 나눔활동이 신행현장에서 온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 교리공부와 수행 못지않게 중요한 신행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나눔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보시야말로 자비 구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신행의 기본 사상도 한 요인으로 작용됐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 회원들도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각 지회마다 분기별 또는 월 1회씩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 '운전기사 불자'라는 이름 아래서 활동하는 것이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에도 큰 도움이 된다.

마음닦기에서 사회참여로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정영을)도 꾸준한 봉사 모임을 갖고 있다. 1997년부터 분기마다 기금을 조성해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적산)에 전달,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회원들의 뜻이 모일 때마다 구로복지관과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청소, 목욕 봉사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제대로 된' 나눔 실천을 위해 법우회 회원들은 2004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까지 이수했다.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 정영을 회장은 "누구나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 그런지 봉사활동을 할 때는 법우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편"이라며 "회원들끼리 '나눔을 실천할 때 가장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교리 공부로 기초 단단히해야

그러나 '나눔'이 완전한 신행 패턴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돼야 할 점들도 있다. 불자들이 우선 기초교리공부부터 마친 후 나눔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눔이 어째서 신행이 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회향'부터 챙기려 하다보면 자칫, 나눔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무조건 '나눔'을 선호해 현장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신행단체의 규모와 재정,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됐는지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조계종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불자들이 점차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통해 개인적 영역의 수행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신행 활동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신행단체들은 물론 개인 불자들이 종단에서 마련한 신도 기본교육을 통해 올바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철도불자들의 단결과 안전 최우선"

interview 이채권 철불협 신임 회장

"우리 철도공사 불자들의 신행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열린 한국철도공사불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이채권(54 · 열차영업팀장 · 사진) 회장. 철불협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철불협 창립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 회장은 "무엇보다 철도공사 불자들의 안전과 화합, 단결을 가장 먼저 서원한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우선 철불협이 매년 봉행하고 있는 '무사고 발원 법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운행이 안전 수송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신행 활동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대회, 월 1회 성지순례 및 연합회 통합 모임, 내실 있는 단위기관 지원 등 회원들의 신행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포교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법팀을 활성화시켜 철도포교를 강화함은 물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사이버 포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회장은 내부적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철불협이라는 조직의 대외 활동 강화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와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등과 공동으로 환경캠페인 및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5분 명상으로 능률 올려요"

보석세공사 임순기씨

서울 압구정동 골목에 자리한 보석세공업체 작업실. 임순기(45 · 법명 바라밀 · 사진)씨의 잔뜩 웅크린 뒷모습이 눈에 띈다.

작업대에 앉은 임씨는 동그란 반지 모양의 금을 조각하고 있다. 보석은 손님이 원하는 모양에 맞춰 갈고 광택을 낸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보석 세공. 불과 1센티미터 남짓한 반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꼬박 사흘간 씨름한다. 그러는 동안 손 안의 돌은 계속 갈고 닦여지고 손바닥에는 그 돌만한 굳은살이 생긴다. 그럴수록 임씨의 마음속 환희심은 커진다.

"세공품 하나하나를 갈고 닦는 과정이 다 마음 닦는 방법 같아요. 그렇게 단련된 덕분인지 이제 일에 대한 과도한 욕심도 줄고 스트레스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임씨는 일터에서 흔히 일어나는 동료와의 의견 차도 부처님 말씀에 따라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두 이해되는데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씨도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디자이너들과 의견 차도 있었고 그 때 마다 짜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도 보석처럼 닦여 반들반들해졌다.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사실 임씨는 목발 없이는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다. 그러나 지체장애 1급에 척추장애까지 겹친 중증 장애인이이라는 사실은 임씨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서도, 신행생활에서도.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지만 누굴 원망해본 적은 없어요. 원망하면 뭐해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마음만 잘 닦으면 되지요."

24살부터 직업훈련원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던 덕에 현재의 기술을 가지게 됐고, 그 즈음에 인연이 된 동산반야회는 임씨의 평생 귀의처가 됐다. 활달한 성격의 임씨는 동산청년회가 조직되면서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임씨는 요즘 '위빠사나' 수행에 푹 빠져있다.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수행의 재미까지 느낀다고 한다. 벌써 8년째다. 성한 사람도 한 자세로 앉아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기 마련인데 척추 장애인이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니,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정작 그는 태연하다.

"내 몸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은 거지요. 장애가 있다는 게 불편하긴 해도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정상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려 하면 곤란해요."

수행은 일터에서도 톡톡히 도움을 준다. 그래서 주위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수행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임씨 자신이 과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일터에서 5분간의 명상을 통해 그 시간을 이겨내기 때문이다.

"회사가 내 일터지만 수행처이기도 합니다. 늘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본만 지키면 직장이 더 즐거운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김강진 기자

동화사 전통강원 학인스님 모집

여법한 수행강당 공부하는 청정강원 팔공산 동화사 전통강원에서
불기 2550년 신학기 신입 · 편입 학인스님들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0명
사교반 00명 / 대교반 00명
(편입자는 전학증 혹은 수료증 지참)
2. **모집기간** : 신입방부 3월 1일 ~ 3월 25일(치문반)
편입방부 3월 1일 ~ 3월 31일
(입방 1차 : 15일, 2차 : 25일 / 31일)
3. **구비서류** :
- 입방원서 1, 2(강원 소정양식)
- 건강진단서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은사스님 추천서
- 승려증(수계증명서 · 행자교육필증) 사본 각 1부
- 사진(3×4) 3장, 법명도장
4. **준 비 물** : 가사(만의), 장삼, 발우
5. **문 의 처** : 강 원 053)983-2500 / 053)985-1984
종무소 053)985-4404

강사 및 중강스님 모집

◆ **교 수(강사)** : 승랍 10년이상 / 전강, 전문기관, 대학(원) 졸업자
혹은 동등자격 인정되는 분
◆ **부교수(중강)** : 기본교육졸업 구족계수지, 소정연수 이수한 분

봉 행

성남시 불교사암총연합회 제 18대 회장 이취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성남시 불교사암총연합회 제18대 회장으로
봉국사 주지 효관스님께서 추대되어 이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이와 더불어 불우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이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손모음

◆ 일 시 : 불기 2550년(서기 2006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봉국사 심검당
◆ 문 의 : 봉국사 031)755-0329 (사무국장 016-223-0639)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 이름이나 형상에 얽매이지 말라

'그 무엇'이란 법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불변(不變)과 중생의 인연을 따라 그때그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수연(隨緣)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3장에서 말한 "법에는 많은 뜻이 있다"라고 한 것은 수연의 뜻을 따랐다고 했다.

이는 변치않는 '그 무엇'이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가귀감> 4장에서는 그 드러난 모습에 붙인 이름이나 형상에 얽매여서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고 한다.

强立種種名字 或心或佛或衆生 不可守名而生解 當體便是 動念卽乖

온갖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혹 마음이라 하고 혹 부처님이라 하며 혹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지만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나느니라.

<선가귀감> 1장에서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3장에서는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그 무엇'이 그때그때의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한다.

이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임시방편으로 온갖 이름을 '그 무엇'에 갖다 붙여 설명하기도 한다.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이라 하고, 반야부(般若部)에서는 '공(空)'이라고 하며, 정토종에서는 '극락세계'라고 한다. '그 무엇'을 '깨달음'이라 하고, 이것을 깨친 사람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기신론>에서는 '그 무엇'이란 법에 중생심(衆生心)이라고 하여 '중생'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 무엇'에 '마음' '부처님' '중생' '공(空)' '깨달음'이란 이름들을 갖다 붙여 설명하는 것은 중·하근기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쓰신 방법들이다.

팔만사천법문은 이런 임시방편의 가르침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무엇'에 바탕을 두고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공(空)'을 이야기하며 '극락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조주 스님은 말씀하신다.

若依根說法 自有三乘十二分敎
我這裏 只以本分事接人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자면 온갖 법이 있게 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다만 본분사(本分事)로써 사람을 대할 뿐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온갖 법'은 곧 팔만사천법문을 말하고 '본분사(本分事)'는 '그 무엇'을 말한다. 알고 보면 팔만사천법문의 그 밑바탕이 같은 것인데도 어리석은 중생들은 '마음'과 '공(空)'과 '극락세계'로 달라진 표현에만 집착한다.

그것이 '그 무엇'에 다가가기 위한 임시방편인줄 모르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착각한다. 그리하여 방편에 얽매여서 알음알이를 내게 된다. 근본을 모르고 곁가지에 집착하여 그것이 부처님의 옳은 법이라고 시비하고 분별하게 된다.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근본을 몰라서 곁가지에만 집착하고 시비와 분별을 일삼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시비와 분별이 바로 번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조사스님들은 중생의 이런 잘못들을 바로 보시기에 단숨에 이를 고쳐 주고자 한다. 그래서 '그 무엇'에 임시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이나 허상에 얽매여서 알음알이를 내지 말고 그 근본 바탕을 보라고 한다.

근본과 하나가 되어 대상경계로서의 근본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질 때 주객이 사라지고 모든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다.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 마음에서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드러나고 팔만사천 법문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 조사스님의 마음 그 당체(當體) 그 밑바탕에서는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법으로서 같아진다.

조사스님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조사스님이 된다. 이 자리에서는 모든 법을 드러내거나 없앨 수도 있고 모든 법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도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그 무엇'에 억지로 '마음' '부처님' '중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은 교(敎)의 처지에서는 부득이한 일이었고, 이름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지 마라는 것은 선(禪)의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온갖 법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며 내세우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모두 온갖 법의 왕이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다."

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고 한 생각 일으켜서 시비와 분별만 일삼는다면 바로 근본 뜻에 어긋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久旱逢佳雨 他鄕見故人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요
천리타향에서 만난 옛 고향 친구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방편에만 집착하면 알음알이 내게 돼
시비·분별 끊어질때 8만4천법문 온전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부전, 지전, 노전스님은 어떤 분?

"노전스님, 어디 계세요? 저희, 기도 올려야 하는데요." "부전스님, 이것 좀 같이 해요."

절 집에 가면 흔히 말하거나 듣는 말이지요. 그럼 '노전·부전'이란 말이 스님의 법명일까요? 아닙니다. 소임입니다. 노전(爐殿), 부전(副殿), 지전(知殿)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향과 초를 올리며 불공, 염불, 마지 등 의식을 맡아 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전은 향로전(香爐殿)의 줄인 말로 기도를 도맡은 스님을 일컫습니다. 지전은 주로 선원에서 쓰는 말로 맡은 일은 노전과 같습니다. 흔히 지전(持殿)이라고도 사용되지요.

부전은 때로 부존(副尊), 부전(扶殿)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부전은 일반적으로 노전이나 지전스님이 혼자서 불공 기도 법당 관리를 하다 보니, 일손이 모자라 이들 스님들을 보좌한다는 뜻에서 '부(副)'자를 넣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큰 절에서는 대웅전을 맡고 있는 노전 밑에 지전이나 부전을 두어 관음전 등의 작은 전각을 맡게 하거나 노전스님의 일을 돕게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26강 : <금강경>의 콘즈 영역 소개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한 콘즈(E. Conze)의 <금강경> 영역본을 한번 맛보여드리도록 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제는 한역보다 영역이 더 우리말에 가까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마라습의 한역이 원본 산스크리트본과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보시라는 뜻에서이다.

콘즈의 <금강경> 2장 영역

2. At that time the Venerable Subhuti came to that assembly, and sat down. Then he rose from his seat, put his upper robe over one shoulder, placed his right knee on the ground, bent forth his folded hands towards the Lord, and said to the Lord: 'It is wonderful O Lord, it is exceedingly wonderful, O Well-Gone, how much the Bodhisattvas, the great beings, have been helped with the greatest help by the Tathagata, the Arhat, the Fully Enlightened One. It is wonderful, O Lord, how much the Bodhisattvas, the great beings, have been favoured with the highest favour by the Tathagata, the Arhat, the Fully Enlightened One. How then, O Lord, should a son or daughter of good family, who have set out in the Bodhisattva-vehicle, stand, how control their thoughts? '

After these words the Lord said to the Venerable Subhuti: 'Well said, well said, Subhuti! So it is, Subhuti, so it is, as you say! The Tathagata, Subhuti, has helped the Bodhisattvas, the great beings with the greatest help, and he has favoured them with the highest favour. Therefore, Subhuti, listen well, and attentively! I will teach you how those who have set out in the Bodhisattva-vehicle should stand, how rogress, how control their thoughts.' 'So be it, O Load', replied the Venerable Subhuti and liste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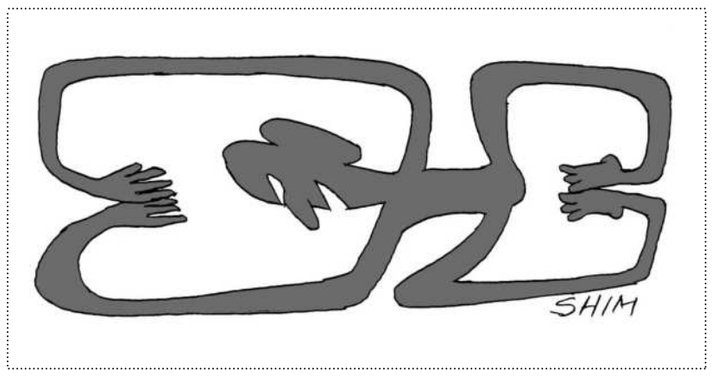
콘즈의 영역을 번역해보면

1. 수부티가 청하다.

2. 그때 수부티 어르신이 그 모임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의 옷을 걷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구원자께 합장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멋들어진 일입니다, 구원자시여! 참으로 멋들어진 일입니다, 잘 가신 이여! 위대한 사람, 보살들에게 온전히 깨달은 사람, 여래, 아라한이 준 그 크디 큰 도움이라니! 멋들어진 일입니다, 구원자시여! 위대한 사람, 보살들에게 온전히 깨달은 사람, 여래, 아라한이 지운 그 높디높은 부탁이라니! 그렇다면 구원자시여, 보살의 수레로 나선, 좋은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서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까?"

마하살, 깨달음의 위대한 영적 영웅



이 말을 듣고, 구원자께서 수부티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 잘했다, 말 잘했다, 수부티야! 그렇다, 수부티야, 네가 말한 그대로다. 수부티야! 여래는 위대한 사람, 보살들에게 크디 큰 도움을 주었고, 그들에게 높디높은 부탁을 지웠다. 그러니 수부티야, 주의 깊게 잘 들어라. 내 너에게 가르치노니, 보살의 수레로 나선, 좋은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서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는지를."

"그러셔야지요, 구원자시여!"라고 수부티 어르신이 대답했고, 그리고 그는 들었다.

콘즈가 붙인 몇 가지 주석들

수부티(수보리): 아나타핀디카의 조카. 무대가 되고 있는 이 정사가 완공된 기념으로 부처가 행한 설법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생각과 길이 다른 사상가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지녔다 한다.)

테라바다(상좌부)나 사르바시티바딘(설일체유부)에서는 부차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승반야부 경전에서는 '지혜의 완성(반야바라밀)'과 '비어있음(空sunyata)'을 해설하는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등장한다.

<증지부아함경Anguttara Nikaya>에서는 그를, 자비에 대한 명상을 바탕으로 아라한을 성취한 제자로, 또 구분이나 한계 없는 다르마를 가르치는, '벽지의 땅에서 평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으뜸'인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다.

잘 가신 이여(여래):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을 밟아 니르바나(열반)로 가셨기에 이런 표현을 썼다.

보디사트바(보살): 대승불교의 이념형이다. 부처가 되도록 운명이 예정된 사람이되, 고통받는 뭇삶(衆生)들을 위해, 니르바나의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 나고 죽는(生死輪廻)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를 미루고 있는 성자들을 가리킨다.

원어는 Bodhisattva. bodhi(깨달음)-sattva(존재 또는 본질)로, '깨달은 사람' 혹은 '깨달음의 본질을 구현한 사람'이란 뜻이다. 문맥에 따라 글자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라 옮기기도 했다.

위대한 사람(마하살): 원어는 mahasattva. Maha(위대한)-sattva(존재 또는 용기). 보살이 어째서 위대한 존재로 불리는가?

나가르주나(龍樹)는 다음 몇가지 까닭을 들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이며, 위대한 친절과 위대한 동정심(즉 자비)을 일구기 때문이고, 이어지는 3장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티벳인들은 mahasattva를 '위대한 영적 영웅'으로 번역한다.

<불사의경Acintyasutra>에 의하면 그의 바람은 진정 영웅적 스케일의 것이다: 그는 모든 곳의 모든 삶들을 교화시킬 것과, 모든 곳의 모든 부처들을 받들고 기릴 것과, 모든 곳의 모든 부처 나라를 정화시킬 것을 열망한다.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단단히 보지하기를 원하며, 모든 부처 나라의 세세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며, 부처를 둘러싼 모임이라면 무엇이든 파악하기를 원하며, 모든 존재의 생각 속으로 뛰어 들어 그들의 때를 벗겨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재보고 싶어한다.

보살의 수레로 나선(발보리심): <반야부> 경전들은 구원에 이르는데는 몇몇 다른 방도 혹은 길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대체로 세 가지 '수레'를 든다. 아라한의 수레, 연각(緣覺)의 수레, 그리고 보살의 수레.

좋은 집안의 아들(선남자): 원어는 kulaputra. kula(가문)-putra(아들). '훌륭한 정신적 자질'을 지녔거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있거나, 혹은 둘 다를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강연 등에서 예를 차리는 공식적인 어사일 뿐, 엄밀한 의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의 물음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완전한 지혜를 실천할 것인가?"

"선다" 혹은 "깃든다"는 말은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결심을 가리킨다. (그 결심이 보살의 행동 전체를 좌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아가다"는 것은 명상과 지혜를 향한 스테디한 성장을 가리키며, "생각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쪽의 고요한 중심에서 흐트러지려는 경향을 다잡는 능력을 가리킨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왜 '58년 개띠' 일까



58개띠들의 이야기
임백천외
도서출판 화남|9500원

잡초같은 생명력으로 비주류 대명사에서 우리사회 주역이 된 58년생 27인이 풀어놓은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

'58년 개띠'.

말이 필요없는 개띠의 대명사이다. 46년 70년생도 개띠인데 왜 유독 58년생만 '58년 개띠'라는 수식어가 붙는걸까. 58년 개띠는 4 · 19나 5 · 18 세대처럼 역사의 흐름에 주역으로 나선 적도 거의 없다. 그래서 58년 개띠는 사회에 섞이지 못해 비주류의 대명사라는 피해의식도 강하다.

그런데도 '58년 개띠'가 신드롬을 일으키는 원인은? 6 · 25 전쟁이후 생겨난 베이비붐의 절정을 이룬 띠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 잡초같은 생명력을 지녀서일까. 아니면 사회의 비주류라는 피해및 동료의식이 강해서 였을까.

전국의 58년 개띠들을 대표하여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27명이 병술년 새해를 맞아 눈물겹고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벌써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책은 화남출판사가 최근 펴낸 <58 개띠들의 이야기>.

이 책의 집필에는 가수이며 아나운서인 임백천 씨를 비롯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김강석 SBS 멀티미디어팀장, 김광일 조설일보 문화부장, 김상철 중앙대 교수, 이대환 포스코청암재단 이사, 서홍관 국립암센터 암예방센터 의사등이 참여했다.

특이한 점은 집필자중 유난히 입산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불교인연 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승속을 넘나든 사람들은 시인 장용철(윤이상 평화재단 사무처장) 방남수(도서출판 화남 대표) 이진영(문학과 경계사 대표) 판화가 류연복씨 등이다.

위영란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불교출판사인 민족사에서 근무하다 1996년 불교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상률 숭의여대 겸임교수, 중광 스님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온 임백천씨 등도 함께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 살아온 58년 개띠들. 이들이 어떠한 힘과 에너지로 한 시대를 견뎌왔는가에 대한 시대적 증언속으로 들어가 보자.

장용철 사무처장은 58년 개띠의 유년시절에 대해 "하루일과가 마을 산을 뒤져 불온 삐라를 줍는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위영란 국장은 "고교 평준화 1세대로 이른바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들어온 선배들은 우리와 동문회 명부를 달리했다. 이때 처음 사회가 얼마나 개인을 지배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었다"고 말을 이었다.

방남수씨는 "그 무렵 58년 개띠들은 하루세끼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상급학교 진학은 쉽지 않았다. 결국 공부를 위해 입산했으나 10.27법난등을 거치면서 다시 하산했다"며 "꼭 10년마다 인생이 바뀌었으니 참 곡절이 많았다"고 덧붙인다.

"박정희 대통령을 거의 절대시하던 당시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워야 했고, 교련복을 입고 온동장에서 박박 기어야 했다"고 임백천씨가 회상하자 이진영씨도 "지독한 역마살 냄새가 난다는 58년생들은 어느 주류에도 편입되지 못한 채 존재의 확인을 위해 개처럼 헐떡이며 슬프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다"고 화답한다.

이제는 마흔아홉. 58년 개띠도 대부분 사회의 주역이 됐다. 하지만 부지런한 58년 개띠들은 아직도 치열한 삶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류연복씨는 "이제는 위로부터의 변혁이 아닌 밑으로 부터의 변화를 꿈꾸기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박상률씨도 "지금도 늘 마루장 밑에 웅크리고 있는 개처럼 고독해진다. 하지만 어울려 살기를 꿈꾼다. 한데 어울려 잘쏘다니는 개떼처럼"이라고 독백처럼 얘기했다.

이진영씨는 "아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백발인 중년은 역마살을 참지 못하고 절로 갈 생각만 한다"며 웃음지었다.

지천명(知天命, 50세에 하늘의 명을 앎)을 눈앞에 둔 58년 개띠들. 비록 지난 날들이 '슬프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개처럼 팔팔한 인생을 살아보길 기원해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에의 희망

겨울나기 함유선 옮김 | 샘터사 | 8500원

"속이 텅빈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만 해요. 내면의 공허. 만일 나의 내면을 탐사할 수 있다면, 머리와 가슴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람처럼, 사막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들판처럼."

2004년 콩쿠르 단편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문단의 기대주 올리비에 아당이 지은 단편소설 '한밤의 여자'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리에서 승객을 찾아 헤매는 택시기사는 아버지의 유골상자를 든 한 여인을 우연히 차에 태우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한다. 택시기사는 자신도 아버지의 유골을 파묻던 날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고, 승객과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지샌다. 지속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따듯한 관계를 가지는 순간만큼은 서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듯.

실존주의로 한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 문학의 전통을 이어갈 신예작가인 올비리에 아당의 단편 9편을 묶은 <겨울나기>가 샘터사 발간으로 나왔다. 아홉편의 주된 정서는 외롭고 나약하고, 소외된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에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불꽃처럼 지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대화



대담 휴머니스트, 도정일 외 지음

이 책을 읽다보면 내내 지속적인 긴장감과 빛나는 지성의 합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화'라는 방식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 기법이다. 그 옛날 플라톤 할아버지도 그 효과에 반해 모든 저작을 이 방식으로 쓰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옛날의 대화는 일방적 혹은 산파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대담을 '반전 대화'라고 명명하고 싶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 천착해온 두 꾼이 생동감 있고 박력 있게 주고받는 이야기에는 불꽃 같이 강렬하게 뇌리를 자극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단어로 심오한 견해를 펼쳐내는 추임새는 감동 그 자체이다.(승주나무, aladdin.co.kr)

명사들이 말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



젊은 날의 깨달음 인물과사상사, 조정래 등 지음

"인생이란 연습도 재공연도 할 수 없는 단 1회의 연극"이라고 규정한 조정래는, 마흔살 부터 20여년 동안 대하소설만 연달아 세 편을 써냈다.

이 외에도 정혜신, 박노자, 고종석, 손석춘, 장회익, 박홍규, 김진애, 홍세화씨 등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알만한 이들이 젊은 날을 돌아보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 방면에서 홀로 일가를 이룬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숙연해진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 복판에서 조용히 열정이 끓어오른다. 이것이 돈오(頓悟)의 느낌인지 점오(漸悟)의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평생을 두고 매진해야할 가치를 깨닫는다. (손병목, yes24.com)

환경을 논하려는 자, 우선 자신부터 바꿔라



2030 기후대습격 달팽이, 로버트 헌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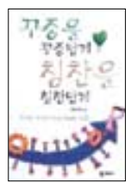
나부터 변해야 한다. 이 말이 이책의 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지구는 우주에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별이지만 그 보호막은 연한 대기에 작은 자력선에 의해 유지되는 작고 왜소한 별이다.하지만 그안에는 사람의 인체만큼이나 복잡한 여러가지 시스템이 피드백과정을 반복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환경을 논할 첫걸음을 밟는다고 말하고 싶다.

이책에서 살펴지는 세계의 각종 환경 위험인자에 대응하는 인류의 모습은 마치 절벽을 등뒤로 하고 손에든 병든 사과를 먹어치우면서 조금씩 절벽으로 뒷걸음치는 인류의 모습을 낙인처럼 떠올리게 한다. (장은지, bookto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 마음은 그림을 아주 잘 기억한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시각화 방식은 기억력에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제공한다. 연관짓기를 할 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라. 마음속의 그림은 되도록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도록 하라. 예를들어 레몬을 기억하려 한다면 레몬을 한입 깨물었을 때 입안에 레몬맛이 퍼진 느낌을 상상하라.-<백만불짜리 공부습관> 112~113쪽, 이순희 옮김, 용오름



○… 칭찬의 양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주도록 한다. 진정한 인정과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일단 칭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상대가 만족스럽다고 느낄 만큼 아낌없이 충분하게 칭찬한다. 칭찬을 하기는 하는데 그 양에 있어서나 강도에 있어서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칭찬의 효과는 떨어진다. -<꾸중을 꾸중답게 칭찬을 칭찬답게> 116쪽,박성희 지음, 학지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종
천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우희종 교수

무엇을 위한 생명복제인가

우희종 교수 본지 연재글 묶어 '생명과학과 선' 발간
"과학은 생명에 무지 … 생명복제도 결국 욕망 때문"



생명과학과 선
우희종 지음 | 미토스 | 9800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떠들썩한 뉴스는 단연 배아줄기 세포연구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 우희종 교수는 본지에 연재했던(불교와 생명과학, 2004년 1~12월) 글을 묶어 <생명과학과 선>을 발간했다. 우교수는 이 책을 통해 "생명복제 논란은 생명에 무지한 과학이 돌이킴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한다. 즉 생명과학자들의 질주 뒤에는 잉여가치만 지상선으로 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여지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 교수는 "'생명복제'는 알고보면 생명을 품고 있는 껍질, 즉 '생명체'의 복제일 뿐"이라며 "생명 그 자체는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 것(반야심경)'임에도 '생명체'를 다루는 생명과학자들은 정작 '생명'에 대해 무지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에 무지한 이유로,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생명'은 본래의미가 아닌 '생명체'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생명과학이 '생명'을 다룰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죽음이라는 '개체의 소멸'과 늙음이나 병이라는 '소멸과정'을 다루는 '죽음과학'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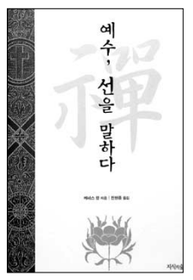
그렇다면 생명과학자는?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통한 철학적 사유를 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의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우 교수는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 창출자로서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한 연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더욱 그렇다는 확신이다.

우 교수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위한 생명복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연구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혹여 인간의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자는 것이다.

우 교수는 "인간의 생명을 일종의 기계작용으로 파악해서 다루는 현대과학만으로는 우리의 고통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단정한다.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고통은 치료해야 하지만 유한한 우리 존재에 내재해 있어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고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욕망은 선악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욕망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됐습니다. 물질문명의 근간을 이루게 된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수단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다보니 노동착취와 생태파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예수, 선을 말하다
진현종 옮김
지식의 숲
2만2000원

종교가 서로 배타적이고, 질시와 반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차이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규정짓는 시각 때문이다.

종교간 대화의 역사도 고 잠재적인 갈등도 적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할까.

<예수, 선을 말하다>는 성공회 신자이며 불교와 도교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는 케네스 렁(Kenneth S. Leong, 예술가 저술가)이 기독교와 선불교의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선을 종교 또는 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신문화라고 정의한다. 이 책에서 1장부터 3장에서 선을 주로 예술과 비교하면서 선의 특징을 총 10가지로 규정한다. 자기 내부와 주변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현전성(現前性)', 비범하고 기적적이며 자연스러운 방법인 '평범함', 독창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며 일상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열정',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자연의 길을 따르는 '무위'를 설명한다. 또 삶을 아름답게 하는 '부드러움', 간단하게 내보이는 진리인 '단순함', 실재의 본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역설', 받아들이고 상상하고 균형잡고 적응하는 '우뇌적인 태도', 절대적 자유와 연관된 속박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자유'를 들고 있다.

> "종교의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4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천국, 사랑, 믿음등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본개념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와 선의 유사성과 합일점을 찾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진현종씨는 "이 책은 예수를 불교의 선종에 예속시키거나 혹은 선종을 예수에 종속시키려 하거나 어설픈 종교 통합주의를 주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오히려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타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종교 전통의 잃어버리거나 숨겨진 부분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아시아의 핵심 화엄사상 쉽게 풀어



중국화엄사상사 정병삼 옮김 | 민족사 | 1만2000원

동아시아 불교학의 중요한 바탕 가운데 하나인 화엄사상이 중국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적절한 책이 나왔다.

민족사가 발간한 <중국화엄사상사>는 전통적인 중국화엄의 중심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뿐 아니라 송대이후 화엄사상과 다른 불교 사상과의 연관에 대한 검토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저자인 기무라 기요타카(동경대 문학부 명예교수)는 이 책에서 '화엄사상'과 '화엄교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화엄경>에 기초하여 그것을 근거로 형성된 사상일반을 '화엄사상'이라 이름하고, 그 위에 중국, 한국, 일본의 화엄종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계적인 사상을 '화엄교학'이라 분류한다. 즉 중국 화엄종의 계보에 속하지 않으면서 화엄경을 연구한 이통현의 사상은 화엄사상에, 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면서 화엄종 제 4조에 열거된 징관의 사상은 '화엄교학'이라는 것이다.

책의 구성은 <중국화엄사상사>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 중국에 한정된 느낌이 있으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화엄사상까지 포괄할 정도로 서술범위가 넓다.

또 제 1장 화엄경전의 성립과 유포, 2장 화엄경의 번역과 연구, 3장 화엄경관의 전개, 4장 화엄교학의 형성, 5장 화엄교학의 대성, 6장 이통현의 화엄사상, 7장 화엄교학의 혁신, 8장 근세 화엄사상의 여러양상까지 다루고 있어 사상사라기 보다는 제요 혹은 요설로 볼 수 있을 정도다.

특히 제 8장 '근세 화엄사상의 여러양상' 편은 화엄사상 가운데 특히 사상사(思想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선연, 각원의 화엄사상과 원오극근, 만송 행수의 선과 화엄, 이지의 불교를 고찰한 성과가 돋보인다.

김원우 기자

나와 이웃 함께 행복해지는 수행



붓다의 러브레터 김재성 옮김 | 정신세계사 | 9500원

크나큰 자비심을 지닌 붓다가 남겨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러브레터. 그것은 잠재된 사랑을 깨닫고 길러내는 것은 물론 자기와 남을 보호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자애(慈愛)명상이다. 정신세계사가 발간한 <붓다의 러브레터>는 내안에 잠재된 사랑, 고마움 사람들, 사랑스런 친구들, 밉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 내안의 가다로운 측면, 온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자애를 보내도록 해주는 명상 수행법을 알려준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해야하는 네가지 수행법인 붓다의 덕목, 육체의 부정함, 죽음에 대한 명상을 거쳐 마지막으로 하는 명상이 자애명상이다. 자애명상은 이른바 자비관이라고도 불리는 수행법으로 실제적인 삶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마음 닦는 법이다.

이 책에서 저자인 샤론 살스버그(미국 통찰수행회 지도법사)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네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붓다가 일반 재가제자들에게 실천하라고 제시한 세가지 덕목인 베풂(보시)와 계를 지키는 이유, 천상에 이르기 위한 수행인 사무량심(四無量心)에 대해 설명한다.

새로나온 책

■ **깨달음에 이르는길**(달라이 라마, 하얀연꽃, 1만2800원)= 달라이 라마가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강설한 <입보리행론>을 정리한 것. 티베트 불교의 중요 경전인 <입보리행론>을 달라이 라마의 탁월한 견해와 명쾌하고 간결한 주석으로 만나본다.



■ **마이산의 메아리**(이왕선, 신아출판사, 9000원)= 진안 마이산 탑사의 돌탑군의 축조기법과 축조자인 이갑용 처사의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돌탑 연구자료 및 역사사료를 비롯 축조 목격자 증언과 전문가의 견해도 실려 있다.



■ **노자와 똥막대기**(최진, 유원출판사, 1만4500원)= 노자의 <도덕경> 전문 번역 및 해설서로 선불교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노자의 도(道)를 무(無)로 해석한 기존의 태도와 달리, 무는 도가 아니며 현상계의 두 양태(有와 無)의 하나로 확인한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총카파, 4만3000원
· 금강경(깨달음에는 길이 없다)	운주사, 김광하, 9000원
·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줌	바움, 문윤정, 1만원
·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	조계종출판사, 편집부, 1만5000원
· 달라이 라마의 반야심경	무우수, 달라이 라마, 85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 내림이다.

『묘법연화경』 내(內)에는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이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宇宙間)의 법(法)》이며 제이(第二)의 법(法)이 현재 문자(文字)로 전하여진 경(經)으로써 이를 《세간법(世間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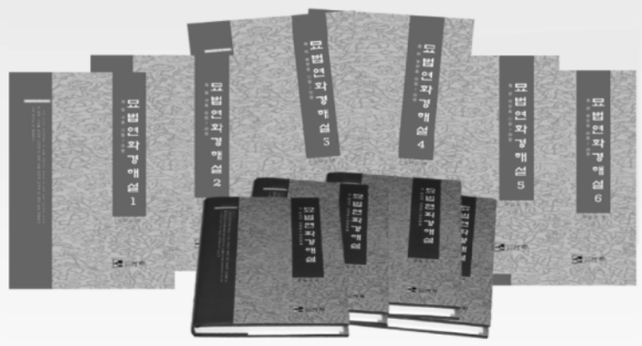


◇ 무량의경 Ⅰ / Ⅱ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一)을 이루게 되면 제삼(第三)의 근본진리(根本眞理)의 법(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묘법연화경』은 《우주간의 법》과 《세간법》과 《근본진리의 법》 셋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經)이다.

이러한 경(經)의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이치에 따라 모두 드러낸 것이 『묘법연화경』 해설경이다. 또한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보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온 묘법연화 해설경이니 바른 부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품 / 방편품 / 비유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모든 종교(宗敎)와 종파(宗派)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잠자리 알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는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새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도서출판 阿那



2003년 '영산재' 를 처음으로 무대 예술화 시켜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영산작법-니르바나' 는 각필악보를 재현해 주목받았다.

세계의 불교음악

선율 달라도 감동은 하나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는 불교음악이 없다. 힌두교 전통음악인 '드루빠드' 가 남아있을 뿐이다. 불교음악은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지를 중심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의식음악 범패에서부터 네팔 몽고 등지의 불교전통음악, 유럽에서 재즈 풍으로 재탄생한 불교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불교음악의 '맛' 은 어떨까?

한국 범패- 고려때 번창 28가지 의식무 전해

삼국시대에 유입된 한국의 불교음악은 고려 때 번창했다. 감로탱에 남아있는 의식모습에서는 조선시대의 음악과 의식무 형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범패를 중심으로 음악과 나비 바라 법고 타주춤 등 28가지 의식무용이 어우러져 전승됐다. 이런 형식의 불교음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987년에는 범패와 불교무용으로 구성된 불교의식 '영산재' 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 중국 법사음악- 출가자 선문 · 재가자 응문불사로 구분

중국의 불교 법사(法事)음악은 사원에서 출가자 주체로 거행되는 선문불사(禪門佛事)와 시주한 재가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응문불사(應門佛事)의 두 가지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응문불사는 다시 도시중심의 경(京)음악과 지방중심의 겁(怯)음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경음악은 북경을 중심으로 발전됐다. 겁음악은 북경 교외에서 오랫동안 불사를 거행했던 장광천락사(張廣泉樂社)에서 계승했다.

1986년 문화혁명 속에서 살아남은 예승(藝僧)들을 중심으로 북경불교음악단이 창립돼 전 세계에 중국의 불교음악을 알리기 시작했다.

한편 대만과 홍콩의 불교음악은 중국의 경음악을 이어받아 발전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불광산사가 중심이 된 100명 이상의 스님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통 범패와 창작찬불가로 1999년부터 전 세계 순회공연을 할 정도다. 200개에 가까운 불교음악 CD가 출시되기도 했다.

■ 네팔 챠르야- 46개 시로 이뤄진 불교수행음악

챠르야는 네팔 카트만두 계곡의 네와르 불교 승려들 사이에 살아남은 연주 전통이다. 챠르야의 노래 가사들은 특정 '라가' 로 시작해 각각 후렴(드루바)을 가진 2행 연구(連句)로 짜여져 있다.

챠르야는 1916년 동인도 지역 방언으로 이루어진 46개의 시가 발굴되면서 더 주목받았다. 11세기 작품인 시들은 무슬림이 침략할 때까지 동인도에 잘 알려졌던 불교 '탄트라' '바즈라야나' 학교의 비전 법칙들을 담고 있다. '바즈라야나' 의 전통은 노래와 춤 의식을 통해, 첫 입문에서도 한 생애 안에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13세기 후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고 붕괴됐을 때 카트만두 계곡에 남은 '바즈라야나' 전통의 승려들인 '바즈라챠르야' 들은 탄트라의 교리에 따라 불교의식과 명상과정을 보존했다. 챠르야는 네와르 불교에서 필수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 몽고 가곡- 찬미가 형식으로 전승

몽고의 불교 가곡은 성악 기악 외에 가무 종교가무극 등 풍부함을 자랑한다. 폭넓은 불교 학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불교음악체계가 구성돼 있는 것이 바로 몽고의 불교음악이다.

몽고 불교성악은 송경조(誦經調)와 불교가곡으로 나뉜다. 송경조는 몽고 라마가 아침저녁으로 읽거나 법회 등에 사용한다. 불교가곡은 송가와 찬미시 잠언시 의식가곡 서사가곡 등을 포함한다. 중국과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몽고는 찬미가 형식으로 불교음악이 전승되고 있다.

■ 티베트 성악- 음색 · 선율 결여로 아주 독특

티베트 불교성가는 티베트 대중음악과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티베트 대중음악이 이웃민족의 음악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비하여 불교 성악은 음색과 선율의 결여로 아주 독특하다. 이 성악이 5 · 7 · 12 음정으로 나눌 수 있는 옥타브의 순환구조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티베트 불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은 인도음악에서 파생된 음계와 선율을 지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별한 음악형식은 티베트 불교성악을 대중음악이나 다른 모든 전통 불교 음악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티베트는 다람살라를 중심으로 6개 정도의 큰 학파가 불교음악을 전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밀교의 '진언' 과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의식무인 '참' 이 매해마다 큰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



■ 일본 성가 쇼묘- 찬불가 없이 의식만 남아

일본의 전통 불교성가는 '쇼묘(聲明)' 라고 부른다. 진언종과 천태종을 중심으로 계승돼온 쇼묘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음악교육이 서양음악 중심으로 바뀌면서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후 진언종 천태종이 의식음악 중심으로 해외공연을 하고 있다.

1900~20년 서양음악 전공자들에 의해 10여 곡의 창작찬불가가 생겨났다. 그러나 일본에는 지금 찬불가가 없다. 의식은 스님만 하는 것으로 정착되다 보니 창작찬불가가 발전되지 못하고 소멸한 것이다.

■ 미국 · 유럽- 재즈 등으로 다양하게 재 생산

기독교권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명상, 선불교,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불교명상음악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 경음악은 재즈나 팝 형식으로 발매되고 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불교음악이라는 장르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뉴에이지 음악들이 생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루 종일 불교음악만 틀어주는 붓다바(Buddha Bar)도 성행하고 있을 정도다.

96년에 문을 연 프랑스 붓다바의 DJ 클로드 샬은 99년 컨필레이션 앨범 '붓다바' 시리즈와 '니르바나 라운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붓다바 시리즈는 프랑스에서만 100만장이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 음반이다.

동국대 국악과 교수 법현 스님은 "유럽에서는 한국의 범패를 '신의 목소리' 라 찬사하며 깨달음의 음악이라고 부르는 등 동양의 사상과 불교음악에 매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도움말 및 자료제공=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 · BBS '불교음악의 세계' 진행자)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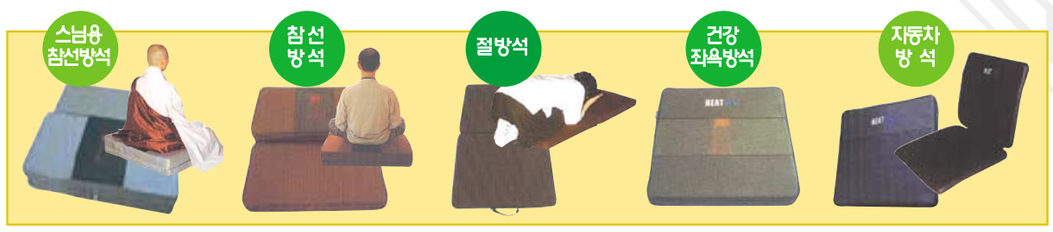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구리색,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

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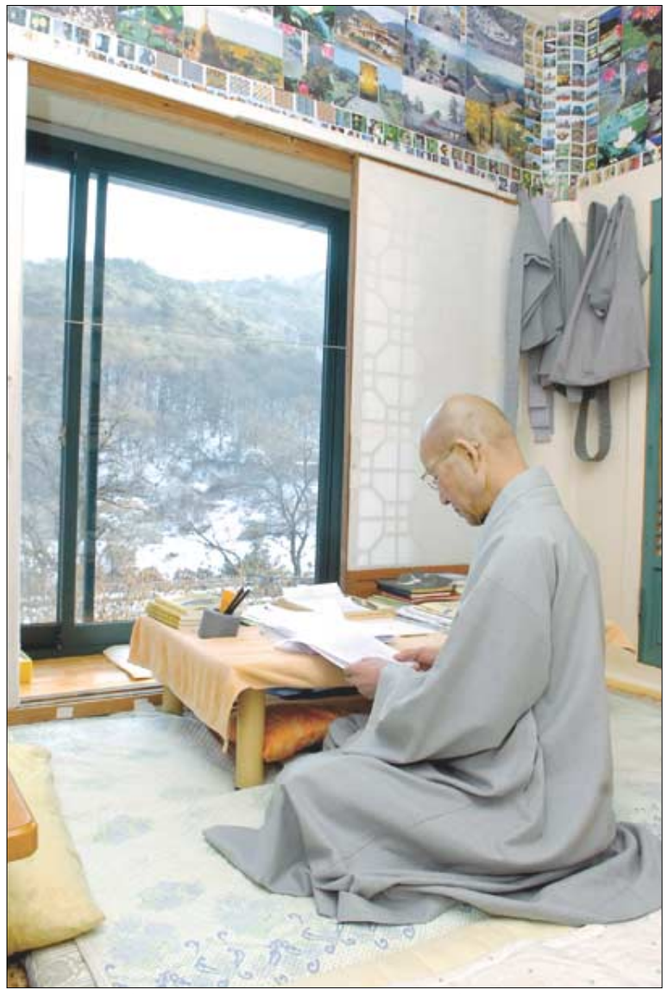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불자기업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삶에 밴 검약 일상이 수행이어라



정무 스님이 앉아계신 창밖으로 녹지않은 서설이 눈부시다. 지난 40여년간 신도교육과 포교에 매진해온 정무 스님은 최근 태교에 대한 법문을 정리한 설법집의 원고 집필에 여념이 없다.



생활이 곧 수행인 정무 스님은 아직도 손수 빨래를 하신다.



송광사 강원의 젊은 학인들에게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근본을 설명하고 계신 정무 스님.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정무 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사흘 전 내린 눈은 아직도 녹지 않고 그대로다.

안성 서운산 북쪽 자락에 위치한 석남사는 해가 짧은 탓이다. 주말이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석남사는 안성의 대표적 전통사찰로, 높지도 깊지도 않은 서운산의 산세를 닮아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아하다.

조용한 겨울 산사. 정무 스님과 눈길 위를 걸어가는 동안 '뽀드득 뽀드득' 소리 외에는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스님과 함께 걷는 산행은 녹녹치 않았다. 대뜸, 기자에게 "날이 풀리면 대청봉을 같이 오르자"고 하신다. 세수 일흔 여섯인 스님은 젊은 기자가 따라 걷기에도 벅찰 만큼 빨랐다.

"경찰대학 법사를 시작(1987년)하면서 매년 졸업생들과 대청봉을 오르는데, 이놈들은 아직도 나를 못 쫓아와, 허허."

"그래도 스님 너무 무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내 여든이 되면 그때는 좀 늙었다고 인정해 줄까? 아직은 젊어, 괜찮아."

언뜻 봐도 스님의 건강은 남다르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님의 건강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한때 생식을 잘못해 곤혹을 치른 뒤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그러다 자연건강법을 만났다.

수십 년 연구 끝에 자타가 공인하는 자연건강법의 대가가 됐다. 중생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병, 몸이 아파 고생하는 이들을 만나면 언제나 스님만의 건강법을 설파하신다.

의외로 스님의 자연건강법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내가 보기에 '아는 게 병'이여, 요즘 사람들은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야. '피식지심(皮食肢心)'만 잘 살펴도 건강 때문에 큰 고생은 안 해. 사람 몸의 피부는 '산득산득'하니 자연바람이 통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껴입으면 그게 곧 병을 불러.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잘 먹으면 좋지만 매 끼니는 오곡밥(곡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5가지 곡물이면 된다고)을 빠뜨리지 말아야 해. 운동은 사지를 흔들고 걷는 것만한 것이 없지. 마지막으로 정신은 '양(良)·능(能)·선(善)'으로 무장해야 건강의 기본이 지켜져. 양 능 선이란 매사를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각한다는 거지."

산을 내려와 경내를 둘러보던 정무 스님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물 제823호 영산전 보수공사에 대해 "몇 달이면 끝날 것을 시간만 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화재청이 발주한 보수공사는 사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를 진행 중인 기술자들은 스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기 그지없다. 삼보를 호지한 불사의 정신은 빠진 채 단지 건축물을 복제(複製)하는데 급급한 왜곡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행정의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손수 군불 지펴 데운 물 한바가지로
세수하고 발 씻고 양말까지 '싹싹'
자타 공인 자연건강법의 대가

스님이 석남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6년 남짓. 그동안 석남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처음 이곳에 와서 무허가 슬레브 건물 8동을 내 손으로 헐어 냈다"는 스님은 대웅전과 영산전 주위로 아무렇게나 지어진 요사들을 부수고 가람의 틀을 새롭게 정비했다.

지난해 석남사는 분뇨를 퇴비화 하는 전통 해우소로 주목을 받았다. 불교환경연대가 사찰환경의 모범사례로 지정할 만큼 잘 지어진 해우소다. 스님도 "목재만을 이용해 지어진데다 통풍과 채광이 뛰어나 수세식 못지않게 냄새가 적다"며 자랑을 결들였다.

작은 법당을 겸한 스님의 처소로 들어섰다. 평생 검약이 몸에 밴 탓에 웬만해서 난방도 잘 하지 않는다고. 심야전기로 온기를 채우는 스님의 방에는 방이 식지 말라고 겨울 내내 두꺼운 요가 깔려있다. 요 밑으로 발을 파묻고 스님과 마주 앉았다.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과 작은 침상. 조만간 출간을 준비 중이라는 스님의 설법집 원고가 놓여있는 낮은 책상까지 방안 구석구석에서 스님의 빈틈없고 단정한 성품이 그대로 배어 있다.

"천정 좀 봐." "어! 전등이 없네요."

"우리 절에는 천정에 불을 안 켜, 머리위에 그런 게 있으면 안되니께."

정말 그랬다. 스님의 방뿐만 아니라 법당, 공양간 등 석남사는 천정 어디에도 조명이 달린 곳이 없었다. 한쪽 벽면에 사람 가슴높이로 전등이 달려 있는 것이 신기했다. 늘 같은 생각, 같은 행동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기자에게 '발상의 전환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경책하는 것 같아 머쓱해졌다.

하루 종일을 따라 다녔지만 귀찮아 하는 기색없이 하나라도 더 일러 주시려는 듯, 어떤 때는 오히려 기자가 묻기를 기다리는 눈치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해가 바뀌니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하고 말을 꺼냈다. "어리석은 소리 말어. 사주는 주역을 근거로 하는데, 주역은 기계론이야. 기계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냐? 그런데, 마음을 공부하는 불자가 기계에 의지한다는 게 말이 돼나?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매사가 낙천적인 스님이지만 삿된 생각에는 거침없는 일침을 가했다. 해박한 교리를 바탕으로 한 스님의 말씀은 한참을 이어졌다.

"부모노릇, 부부노릇, 자식노릇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고 세상은 갈수록 어지럽기만 한데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꿨지. 유식을 공부할 수록 태교의 중요성이 절실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포교전략을 태교로 정했어. '8식'이 아이의 머릿속에 깃들기 시작하는 뱃속에서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워야 세상이 변할 거야."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짧은 해가 꼬리를 감추려 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님은 뒤뜰의 아궁이 앞에 앉아 군불을 지폈다. 도회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온수와 난방이 한번에 해결되지만 스님은 "시주를 아끼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얼마든지 감내 할 수 있다"며 기꺼워하신다.

가마솥에 김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기자에게 떡국을 대접하겠다며 공양주보살이 뜨거운 물 한 솥을 퍼갔다. 잠시 후 스님도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양동이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세수를 하고 그 물로 다시 발을 씻었다. 밖으로 나온 스님의 한손에 양말이 들려있다. 스님은 아무런 말없이 발 씻은 물에 양말까지 빨았다.

저녁때가 돼 스님을 찾아온 송광사 강원 학인들과 나란히 앉아 떡국을 공양했다. 원로스님이지만 스님은 따로 공양상을 받지 않는다. 큰스님부터 학인들, 그리고 재가자들이 둘러앉아 먹는 떡국맛이 유난히 좋았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효도하라" 남다른 강조

정무 스님은 정무(正無) 스님은 1931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불교정화가 한창이던 1958년 전북대 수의과를 다니던 스님은 나라를 되찾았으니 불교도 되찾아야 한다는 '분심'에 뚝섬에서 배를 타고 봉은사를 찾아가 불문에 귀의했다. 곧바로 그해 1월 엄동에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았다. 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까지 김제 흥복사와 대구 동화사 등지에서 참선 수행에 몰두했다.

1968년 안거를 나기위해 범어사 선방으로 내려가던 중 영주포교당에서 하루밤을 묵은 것이 인연이 돼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다. 1971년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주지를 맡았다. 오늘날 용주사가 '효행본찰'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효도하라"고 강조하는 스님의 원력 때문이다. 2000년부터는 안성 석남사 회주로 불자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고 있다.





'10억 모으기'보다 베풀며 살자



5계 가운데 두번째를 설명하고 있는 정무 스님. 스님은 본성에 효순하는 것이 계의 근본이라고 설했다.

정무 스님의 가르침

인간은 타인 위해 살때 보람
자비 · 봉사 · 순결 · 지혜 실천을

● 계율 왜 지켜야 하나?

불교공부는 '계정혜'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 · 행(行) · 마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참선에 들어 바른 지혜를 얻으려 제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계행이 청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도가 일렁거려 달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파도가 그쳐야 비로소 달빛이 강물위에 비치듯 계율로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어야 선(禪)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를 지키면 마음을 고요히 집중할 수 있고, 정에 이르러 혜가 그대로 구족해집니다. '막행막식(莫行莫食)' 하면서 지혜를 얻겠다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만큼이나 헛된 짓입니다. 조선말 불교가 어지러워지면서 일부에서 '구두선(口頭禪)'만 떠들면서 계를 함부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될 말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불교 스스로 자정력이 생기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계율이 청정하고 맑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 5계의 기본은 '불음주'

출가하지 않은 세속의 불자들도 마찬가집니다. 먼저 가정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인성(人性)이 회복돼야 합니다. 율사들이 계를 주면서 '살도음망주(殺盜淫妄酒)'를 지키라고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계를 받고도 불음주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 율사들조차도 조금만 먹으라고 사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맛도 보지 말라 했어요. 오죽하면 오백세에 손가락하나 없는 인과를 받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살도음망'이 모두 술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었답니다. 술을 먹다보니 기운이 뻗치고 몸이 근질근질한데 마침 마당에 닭이 지나가고 있어요. 앞에 있던 돌을 던져 닭에게 던졌더니 닭다리가 똑하고 부러졌습니다. 주인이 알면 큰일이다 싶으니 이놈을 부엌으로 몰래 들고 가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내 닭 주인이 나타나 지나가던 닭을 못 보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딱 잡아떼고 못 봤다고 거짓말까지 해버립니다.

이것 보세요, 술 한 잔으로 '살도음망주' 5가지 계율을 거침없이 파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계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성입니다. 그러면 인성이란 뭔고 하니 '본원(本願) · 청정(淸淨) · 광명(光明) · 환희(歡喜)'가 핵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더 알아듣기 쉽게 '자비 · 봉사 · 순결 · 지혜'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진선미(眞善美)'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 지금은 본성조차 일그러진 겁니다.

● 지계는 인성에 효순하는 것

나는 계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율은 삼보(三寶)에 효순(孝順)하고,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에게 효순하는 것이 계율이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이나 자기 부모나, 남의 부모나 똑같이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라의 자장 율사는 인간이 목숨을 잃으면 일생이 끝나지만, 계를 잃으면 세세생생 만겁을 악도에 헤맨다고 했어요. 공자가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노후대책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노후를 맞아 고생하지 않으려면 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토지나 상가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해서 10억을 모을 수 있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상 그런 방법으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지금 35살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저축을 한다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해서 10억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강도'는 되어야 겨우 그 돈을 모을 수 있겠다 싶어요. 모두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쨌든 무슨 방법을 써서 10억을 모았다 칩니다. 그런데 55세 정년이 되어서 이것을 쓰면서 편안히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아온 이런 사람들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아까워 10억원을 다 써보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생 그 큰돈을 모으기 위해 주위사람들에게 몹쓸 짓하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았을 테니 누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걱정해 줍니까? 결국 한을 먹고 가더란 말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 살 때 삶의 만족을 얻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살의 정신이 있는 탓입니다.

● 계율 지키며 살면 행복

무한 경쟁사회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본성에서 멀어져 갑니다. 예의염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4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첫째, 본성을 모질게 하는 직업, 즉 생명을 도살하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 인성을 거칠게 하는 직업, 남을 못살게 만드는 깡패 같은 일입니다.

세 번째, 인성을 어지럽게 하는 술장사, 마약장사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성을 타락시키는 직업입니다. 흔히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분한 수익을 제공한다는 말로 유혹해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시키는 직업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약이 독해 병은 나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만큼이나 덧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앞장서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계를 지키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첫째 불보살이 옹호를 해줍니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착한 사람만 만나집니다. 세 번째, 항상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네 번째, 자원이 구족해집니다. 낭비를 하지 않으니 자연히 재물이 풍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내생에는 착한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행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9>



좋은 이름 찾아 길 떠난 소년

한 스승 아래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항상 "나쁜 사람아, 어서 오너라. 나쁜 사람아, 거기 서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소년은 자기 이름이 불길하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름을 바꿔 주십시오. 제 인생을 활짝 꽃피울 좋은 이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은 말하였습니다.

"좋다. 대신 네가 이름을 찾아오너라. 이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이름을 알아 보거라. 네가 정말 좋은 이름을 찾아오면 앞으로는 그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소년은 스승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좋은 이름을 찾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어느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그 도시의 큰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슬픔에 잠겨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소년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분은 '수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명이 있는 사람도 죽습니까?"

"당신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군요. 수명이 있는 사람이나 수명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름이란 하나의 부호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소년이 그곳을 떠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왜 매를 맞고 있습니까?"

"빚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물지기'입니다."

"이름이 보물지기인데 어찌하여 빚을 갚지 못한단 말입니까?"

"보물지기이건 보물지기가 아니건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름이란 하나의 부호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정말 무식하군요."

소년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죽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을 이름을 찾아서 정처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군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길눈이 밝은 이'입니다."

"길눈 밝은 사람도 길을 잃습니까?"

그러자 그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이름이 무슨 상관이요? 누구나 길을 잃을 수도 있소.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은 정말 처음 보았소."

결국 소년은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름을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아무런 이름도 찾지 못한 채 맨손으로 스승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래, 네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찾았느냐?"

소년은 말하였습니다.

"스승님, 목숨 있는 이도 목숨 없는 이도 죽습니다. 보물지기도 보물지기 아닌 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길눈 밝은 이도 길눈 밝지 않은 이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란 하나의 부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을 따라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행운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본생경 97번째 이야기)

지금 무얼 하느냐 따라 나의 미래 결정
이름 · 사주에 매달린다고 행복해 질까

대체 행운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내 행운이 숨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이름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액난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며 부적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네잎클로버와 같은 행운을 상징하는 소품들을 가방에 매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인지상정인지라 결코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그게 행운을 불러 올까 하는 것에는 회의가 짙습니다. 애당초 정해진 운명이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액난을 멀리하고 행복을 부르려면 행복해지는 일을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고 술담배를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 자는 시간에 머리를 싸매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제쳐두고 이름이나 사주에 매달린다면 죽을 때까지 행복은 내 품에 안기지 않을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 복 향 당

감사의 향기 삶의 향기를 추구하는 주)만복향당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거듭 태어난 저의 주)만복향당이 지면을 통해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전통향 시리즈 1 (견성향 · 자단향 · 천연목향)

견성향
참숯과 천연 허브 에센스를 사용하여 라벤더의 상쾌함과 부드러움을 재현한 고급 무연향

자단향
오랜 동안 향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벗이 되어 온 만복당이 권하는 대표적인 고급 선향
기를 고르게하여 정신을 맑게하며, 피로를 풀어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향

천연목향
자단과 함께 사랑받아 온 천연 목향과 백단의 풍부한 맛이 어우러진 깊고 부드러운 향취
자연향으로 냉기를 치유하고, 강한 진정효과가 있다. 혈압을 낮춘다.

세계적 수준의 조향기술을 자랑하는 일본향당(Nippon Kodo)과 합작하여 만든 (주)만복향당이 엄선된 원료들로 만든 고급향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 드릴 것을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신제품
진품 향기인 青雲 아모레

천연백단과 천연식물정유를 사용하여 강한 항균작용과 개미, 빈대등 방충효과가 탁월하며 비타민E가 첨가되어 노화방지에 좋은 고급향입니다. 420년 전통의 일본향당(NK)이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제품입니다. 아모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 세이운아모레 – 사랑의 선향입니다.

화풍 시리즈



라벤더 백매 히노끼 대나무 아쿠아

● 제품의 특징
상쾌한 잔향이 긴 시간 남아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 시켜줍니다. 또한 각종 악취(담배연기, 지하실의 습한 냄새 등)를 원천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공기를 맑게 하여 줍니다.
특히 연기가 적어 연소 후 맑은 공기를 유지하여, 향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고급향입니다.

(株)萬福香堂 MANBOKHYANGDANG CO., LTD.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티 3층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외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쑥향 양초의 특징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③ 천연쑥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쑥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쑥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 약쑥향양초 1호(돈타대) 5.6中 × 27cm 연소시간 約 100시간
• 약쑥향양초 2호(밀대) 4.6中 × 25cm 연소시간 約 40시간
• 약쑥향양초 3호(돈타대) 3.4中 × 22.5cm 연소시간 約 2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中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연소시간 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컴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1 ~ 4호 밀납초 받침대)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리茶 소중함 일깨우는 쉼터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에 매진해 온
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용운 스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전남 무안의 초의선사 탄생지. 그곳에는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 작업에 매진해 온 용운 스님(초의학술재단 이사장 · 사진)이 있다. 1970년대부터 우리 차문화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차 잡지와 서적 등을 펴내고 대중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외부활동을 자제한 채 초의선사 탄생지를 가꾸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 100권 기획의 <한국차문화자료집> 발간과 초의선원 · 초의미술관 건립,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용운 스님을 1월 15일 만났다. 이날은 스님의 유일한 대외활동이라 할 수 있는 '차문화 강좌'가 열리는 날로,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듣기 위해 달려오는 서울 · 경기지역 회원들을 만나는 날이다. 회원들을 맞이하는 스님의 반가운 얼굴 한편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지난 30여 년간 수집한 차문화 관련 자료를 엮어 펴내는 <한국차문화자료집> 원고 작업 때문에 하루 종일 자료뭉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류하고 입력하느라 매일 8~9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스님이 수집한 차 관련 자료를 망라하게 될 자료집은 1차 50권, 2차 50권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1~5권이 나온데 이어 이달 중으로 6~10권, 5월에 11~16권이 출간되는 등, 4~5년 안으로 100권을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1차분 50권에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사서(史書)를 비롯해 문인 · 사대부들의 시문집에 나타나는 차 관련 문헌이 소개된다. 2차분 자료집에서는 스님들의 시문집과 비문(碑文), 유물 등에 나타나는 자료, 다구와 다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불필요한 자료로 보일지 모르지만, 차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더 많은 차문화 연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귓등을 때린다. 요즘 한창 교육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 작업으로 옮겨갔다.

스님은 무안군과 함께 1997년 초의선사 생가터를 복원한 후 기념관, 명선관, 다성사 등을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생가터가 위치한 삼향면 왕산리 일대 6만여 평을 '초의문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무안군은 최근 7년에 걸쳐 '1단계 초의선사 현창사업'을 마무리한 후 '제2단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착수했다. 그 첫 결과물로 현재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안으로 초의미술관 건립도 시작된다.

"5월까지 교육관과 요사채 등이 완공되면 주말마다 다도와 헌다의식, 참선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초의선사 헌다의식이 열리고 행다법과 배래법 강의, 차음식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편, 시민선방 형태의 '초의선원'도 문을 연다.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탄생지에 머물며 참선과 다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초의선원은 주춧돌 하나, 기둥 하나에도 초의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다송>의 내용을 새긴 글자문과 안쏠림 기둥 등의 독특한 공법은 이미 건축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초의선원.

하지만 이 같은 '초의문화단지' 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았던 초의 스님의 정신이 엄청난 규모의 문화단지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의문화단지'를 단순히 초의 스님의 생가 복원지로만 생각한다면 현재 건립되고 있는 역사문화체험관이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차문화 중흥조인 초의선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곳인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차와 수행을 통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관과 문화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권 기획 '차문화자료집' 발간 위해 진력
5월경 교육관 열고 주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복원 이상의 현대인들 위한 체험공간 될 것



지난해 사단법인 초의학술문화원을 초의학술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문화제 집행과 성역화작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운 스님. 스님은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 작업은 혼자만의 원력이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원들과 무안군, 정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종교를 떠나 우리나라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선사의 사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초의선사 현창사업의 방향타이자 차문화 자료 구축의 디딤돌이 될 용운 스님의 행보에 많은 차인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머무는 이유다.

글 · 사진/무안=여수령 기자

다구 공모전 등 행사 다채
티월드 페스티벌 6월 21~25일 코엑스

국내 차문화 ·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4회 티월드페스티벌'이 6월 21~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2006 독일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개최된다는 점에 착안해 세계 32개국의 차문화를 소개하는 '티 월드컵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차를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차문화를 알리고, 축구를 매개로 젊은 층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능력 있는 공예작가를 발굴하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차도구 개발을 위한 '제1회 국제다구디자인공모전'도 개최한다. '쓰임의 다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도자기, 목공예품, 금속공예품 등 찻자리에 필요한 차도구라면 어떤 작품이든 응모 가능하다. 홈페이지(www.teanews.com)에서 출품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차 관련 단체와 업체의 전시, '우리 차 마시기' 캠페인 전개, 학술심포지엄, 차문화 특강, 세계명차전시, 우리 옷 패션쇼 등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티월드위원회(위원회 김정순)는 "지난해 130여 업체, 200여 부스가 참가한데 이어 올해는 150개 업체 230부스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행사를 통해 젊은층의 관람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6000-8000

짱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3. 보이차의 명성

보이차를 한번쯤 접해본 사람이면 너나할 것 없이 보이차에 대해 '한 말씀' 할 정도로 보이차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난다. 이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보이차 브랜드의 형성'이다.

항간에서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가난한 변방소수민족들이 마시던 조잡한 차를 홍콩, 타이완 장사꾼들이 유행하게 만든 것이 보이차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시류에 따라 상인들의 '띄우기 작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세기 상업주의에 의해 탄생된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보이차'라는 것이다.

상품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자의 연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학자의 선행연구 성과를 통해 상품의 시장 활성을 이끌어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후속작업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다. 보이차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청대 보이차 문화를 보여주는 <연원직지>.

청, 상류층 애용했음이 '연행록'에 글 남아
'도차변증설'에선 보이차의 인기·명성 기술

뒤늦게 출발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차의 팽창속도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이다. 물론 필자의 연구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럼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처럼 보이차는 진정 별 볼일 없는 차인가? 역사적으로 중국 상류층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가? 이 질문에 대한 지금의 필자의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금의 답'이라는 의미는 몇 개월 전만해도 필자의 답이 '그렇다'라는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이자, 그러한 잘못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이차는 적어도 청나라 초기부터 중국 집권층, 상류층들이 마셨던 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발견된 최초의 글은 조선과 청나라간의 정치 · 외교적인 의미를 지니는 기록문학인 <연행록(燕行錄)>이다.

고려 때부터 외교 사신들의 임무 수행 이외 많은 식자들이 사행(私行)으로 중국에 건너가 외국의 제도나 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100여 종이 넘는다. 사행에 참가하여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당대의 지배층 식자들로서 그들이 만나고 보았던 연경(燕京, 지금의 베이징)의 실상은 청나라의 지배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그들의 기록은 곧 청나라당시의 풍속도이자 현실문화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연경에는 보이차가 있었다. <연원직지(燕轅直指)>와 <계산기정(薊山紀程)>에서 모두 보이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보다 상세하게 소개한 것이 <연원직지>다. "차의 품목의 수는 다양하다.

그들은 황차(黃茶)와 청차(靑茶)를 항시 이용하며, 그 다음은 향편차(香片茶)이다. 그러나 가장 진귀하게 여긴 것이 보이차다. 다만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라는 기술은 당시의 수도인 연경에서도 '짝퉁' 보이차가 등장할 만큼 수요층이 많았다는 얘기다.

19세기 지식인 이규경(1788~1856)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도차변증설(茶茶辯證說)'에서는 보이차의 인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 연도(燕都)에서는 차의 품목이 많고 성행하는데, 이 중 보이차가 제일이요, 백호차(白毫茶)가 둘째, 청차가 셋째, 황차가 넷째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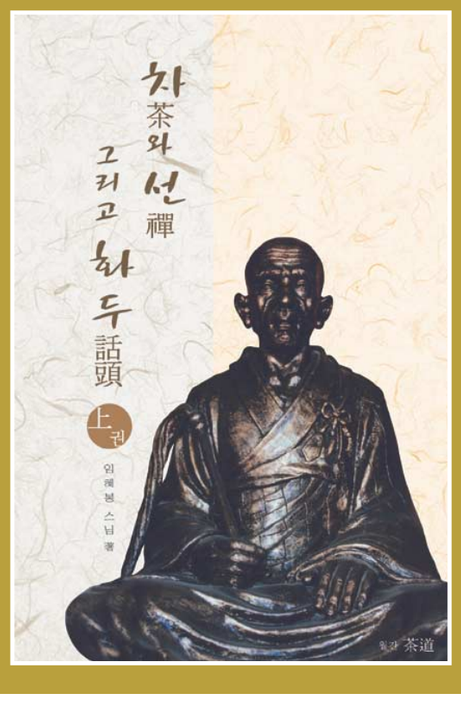
청나라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의 왕실에서도 보이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정조의 둘째 사위이기도 한 홍현주(洪顯周)는 "대나무 차통에서 고운 흰 비단을 풀어보니 둥근 달과 같은 보이차가 보인다" 등의 시구(詩句)를 남겼다.

이러한 기록들은 보이차가 21세기뿐만 아니라 17세기 청나라 때부터 이미 중국의 최고 명차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 한서대학교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예정



곧 발간됩니다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통권 2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황우석 사태를 보는 불교의 눈'(조성택)을 비롯한
흥미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웰빙 시대의 잘 죽기'
웰빙 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오진탁)
붓다의 죽음 (안양규)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김영욱)
부활, '웰 다잉'의 한 해석 (이찬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강신표)
근사체험(近死體驗)이란 무엇인가? (최준식)

논단
율장은 금서인가 (마성 스님)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김광식)
일본 불교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국불교에의 시사 (박광준)
공안 언어의 사회적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한 상념 (박진영)
조선전기 관세음보살의 응신묘법의 도상과 그 창조적 재현 (강소연)
틱낫한의 프럼빌리지 선수행 고찰 (김은종)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전화확인 하셔야 합니다)

■ 불교평론 광고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4, 010-7339-8688, 팩스 02)737-0696

음식물 쓰레기 없는 설 음식 장만하기

설음식 안 남기기 장보기부터 시작이죠



"명절 음식은 푸짐해야 제 맛이지."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한 상 가득 차려내야 '명절음식 답다' 고 여겼던 과거와 달리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 알뜰하게 먹자' 는 음식문화가 일고 있다. 자원과 경제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도 줄이자는 뜻에서다. 지난해 140여만 명의 동참서약자를 이끌어낸 사단법인 에코붓다(대표 유정길)의 '빈그릇 운동' 이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면, 이번 명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볼 때다. 환경부와 사단법인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의 도움말로 명절음식의 계획적인 재료구입과 조리법을 알아본다.

준비할 음식 · 재료 목록 꼼꼼히 작성

▷ 재료구입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는 계획적인 식품구매에서 시작된다.

흔히 명절음식이라고 하면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재료구입 전에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들이 나눠 먹을 음식을 구분해 준비할 음식목록을 정확히 작성한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몇 명의 친척이 모이고 어느 정도의 손님이 예상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구입해야 할 재료의 양을 결정한다.

준비할 음식이 많지 않다면 대용량 포장 대신 소량 포장된 재료를 선택해야 버릴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어든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양을 눈대중으로 짐작해 준비한다면 명절 연휴기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야채 껍질째 조리 … 큰 냄비 NO!

▷ 조리할 때

재료를 온전히 써서 요리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핵심이다. 감자, 당근 등의 야채는 가급적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조리한다.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식초에 담궈 놓거나 소금으로 문질러 씻으면 농약 걱정을 덜 수 있다.

차례상 음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일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먹는다. 과일은 껍질과 씨에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는데, 특히 과일껍질의 섬유질에는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해독기능과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탕국 등의 국물 음식을 만들 때는 적절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양보다 지나치게 큰 냄비를 사용할 경우 식사량과 관계없이 냄비 크기에 맞춰 조리하게 돼 남겨지는 국물의 양이 많아진다.

요리를 약간 싱겁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양념을 적게 쓰면 염분섭취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음식이 남아 다른 요리로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약간 모자란듯 담아 덜어 먹자

▷ 상차림 및 식사

가족 식사나 손님 상차림에는 적절한 그릇에 약간 모자란 듯 음식을 담아낸다. 필요 이상으로 푸짐하게 음식을 담으면 남은 음식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개인 접시에 적절한 양만 덜어 남기지 않고 먹는다.

먹을거리가 많은 명절일수록 간식이나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떡이나 식혜, 부침개 등 각종 명절 음식에는 생각 이상으로 열량 콜레스테롤이 높으므로 식사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섭취량도 조절해야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

남은 재료 손질해 냉장보관

▷ 남은 음식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남은 재료는 즉시 1회에 사용할 분량으로 손질해 나눈 후 냉장고에 보관한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재료를 실온에 방치하면 상하거나 변질돼 버려야할 양이 늘어난다. 투명용기에 내용물의 이름을 써 붙여 정리하면 다음에 활용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조리한 음식이 많이 남았을 때는 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에 기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번 없이 1377번을 누르면 지역에서 가까운 푸드뱅크와 연결된다. 단, 남은 음식은 가급적 빨리 기증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산적과 나물, 전 등을 새로운 음식으로 재가공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색다른 맛도 즐길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남은 설 음식으로는 이런 요리를



 # 영양주먹밥

재료: 산적 100g, 나물(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등) 150g, 당근 30g, 밥 3공기,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식용유 2큰술

1. 산적은 곱게 다지고 나물과 당근은 잘게 썬다.
2. 팬을 달군 후 식용유를 두르고 당근을 볶다가 산적과 다진 나물을 넣어 살짝 볶아낸다.
3. 뜨거운 밥에 볶은 재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참기름을 넣어 섞는다. 이때 산적과 나물에 간이 되어 있으므로 소금간을 맞출 때 주의한다.
4. 밥을 한입 크기의 완자로 빚어 통깨를 뿌려낸다.



 # 모듬전 매운볶음

재료: 호박전 등 각종 전 200g, 대파 1대, 붉은고추 1개, 마늘 2쪽, 생강 1쪽, 풋고추 1개, 통깨 약간, 식용유, 매운소스(간장 2큰술, 고추장 1큰술, 맛술 1큰술, 물엿 1큰술, 물 4큰술)

1. 남은 전은 팬이나 오븐 등을 이용해 따뜻하게 데운다.
2. 대파는 4cm 길이로 채썰고 붉은고추, 풋고추도 반을 갈라 씨를 털고 짧게 채썬다.
3. 마늘, 생강도 채썬다. 매운소스는 혼합해 놓는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 생강을 볶아 향을 낸 후 대파, 붉은고추, 풋고추를 넣어 볶는다.
5. 4에 혼합한 매운소스를 넣어 한번 끓인 후 전 위에 끼얹어 낸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

진간장과 별미간장 –나물 양념의 비밀



간장에 버섯 · 과일 등을 더해 조리한 진간장(왼쪽)과 별미간장.

어릴 때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배탈이 나면 어머니는 쌀 한줌으로 흰죽을 정성스레 끓여주셨습니다. 반찬이랄 것도 따로 없이 그저 간장 한 종지만 상위에 함께 놓아서 주시곤 하셨지요. 따뜻한 죽 한술에 간장을 조금 떠놓아 먹던 그 맛.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도 죽을 많이 드십니다. 그저 허기만 달래고 수행에 방해가 안 될 정도의 곡기를 취하기 위해 죽만 먹으며 수행하는 스님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반찬이라고 해 봐야 그저 간장 한 종지지만, 아주 귀하고 풍성한 상차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스님들의 수행에도 필요했던 간장은 사찰에서는 소금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양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된장으로 담근 간장에 양념을 섞어 맛간장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소스로 만들어 사찰음식의 맛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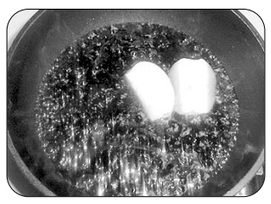
처음 사찰에서 나물을 먹었을 때 그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궁금했는데, 홍성 한 암자의 공양주 보살님이 간장에 조청, 버섯 등을 넣고 끓이는 모습을 보고 나물 양념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별미간장' 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드는 법만 알면 언제든 별미 간장으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드는 법



<진간장> 재료 검정콩물 3컵(검정콩1컵*물 2ℓ), 다시마, 말린 표고버섯 5장, 조청 1컵, 집간장 1ℓ, 물 2ℓ

① 검정콩 1컵과 물 2ℓ를 넣고 끓여서 검정콩물 3컵을 만든다. ② 검정콩물 3컵에 다시마와 말린 표고를 넣고 끓여서 검정콩물 2컵으로 만든다. ③ 집간장 1ℓ에 물 2ℓ, 조청 1컵을 넣고 만들어진 검정콩물 2컵을 넣고 끓여준다.④ 한 번 완전히 끓으면 거품을 걷어내고 30%까지 졸여지면 불을 끈 뒤 완전히 식혀 다시 한 번 더 끓인다.



<별미간장> 재료 말린표고버섯물 3컵(표고버섯 5장*물 1ℓ), 검정콩물3컵(검정콩1컵*물 2ℓ), 진간장 3컵, 사과 1/2개, 생강편 2조각

① 말린표고버섯물과 검정콩물, 진간장을 1:1:1 비율로 섞어 끓여주다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과와 생강을 넣고 끓여준다. ② 끓인 간장이 완전히 식으면 다시 한 번 더 끓여서 보관한다.

맛 포인트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사용한다.
–쓰고 남은 간장은 냉장보관하고 장마철이나 여름에는 다시 한 번 끓여준다.
–단맛을 내고 싶으면 재벌 끓일 때 감초 5~7조각을 넣고 끓여준다.
–진간장은 국 끓일 때, 별미간장은 조림이나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나혜석, 일엽 스님 등이 머물던 곳



숱한 사연 묻고 새단장 된다

근 · 현대 예술인들 불심 담긴 명소
이응노 화백 손자 이종진씨 증여
수덕사, 문화공간으로 활용 계획

수덕사 일주문 바로 왼편의 수덕여관. 주인 없는 빈집으로 방치된 지 5년여 만에 수덕사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수덕사(주지 법정)는 1월 16일 이응노 화백의 손자 이종진씨로부터 수덕여관을 증여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폐허로 버려져 있던 수덕여관. 알고 보면 엄청난 사연이 서린 '보물'이다.



수덕여관을 얘기할 때는 일엽 스님, 나혜석, 이응노 이 세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다. 한때 나혜석이 주석했고 이응노 화백이 머물렀으며 일엽 스님이 속가의 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는 곳이 바로 수덕여관이다. 여관 현판도 이 화백이 직접 쓴 것이다.

일엽 스님뿐일까? 수덕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찾아왔던 가족들도 아마 이곳에서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수덕여관은 세간과 출세간의 가운데 놓인 '인연의 가교'가 아니었겠는가.

신여성이자 여류화가 나혜석은 1937년부터 1943년까지 말년을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나혜석은 작품활동을 하며 선승처럼 수행자처럼 단촐하고 조용하게 살았다.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승복을 입으며 무소유 · 무애행을 실천했다고 전한다.

그가 출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화가 내려온다. 하나는 당시 출가해 수덕사 견성암에 머물던 일엽 스님을 찾아가 출가할 뜻을 비쳤으나 무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덕사에 주석했던 고승 만공선사가 몇 번이나 찾아온 나혜석에게 인연이 아니라며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암 이응노 화백은 인근 홍성 출신이다. 이 화백의 생가와 수덕여관은 차로 10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다. 이응노 화백은 선배였던 나혜석을 만나러 오면서 수덕여관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수덕여관에 드나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944년 여관을 사들였다.

1958년 후배 화가인 박인경씨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수덕사 부근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렸다. 이 화백은 수덕사를 드나들며 스님들과 인연을 맺었고 덕분에 수덕사는 의식 있는 문인 예술인들의 보림처로 많이 애용됐다.

이응노 화백이 프랑스로 떠난 후에 본부인 박귀희씨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여관을 운영했다. 2001년 박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 화백의 흔적과 정갈한 음식맛 등에 반해 수덕여관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일엽 스님이 일본에 남겨두고 왔던 속가 아들 일당 스님이 열네 살 나이에 현해탄을 건너 어머니를 처음 만난 곳이 또한 수덕여관이다. 일당 스님은 학생시절 모친을 찾아 수덕사를 방문할 때마다 수덕여관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당시 일엽 스님은 아들에게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불러라"고 했다. 아들은 이후에도 어머니를 찾을 때마다 수덕여관에서 묵었는데 나혜석은 마치 자식을 대하듯 일엽 스님의 아들을 보살폈다고 한다.

예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수덕여관은 여관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충남도에 의해 1989년 도(道) 지정 문화재기념물 103호로 지정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해 12월 수덕여관을 '보존해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수덕여관을 수덕사에 증여한 이응노 화백의 손자 이종진씨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정취가 남을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수덕사에 요청했다. 수덕사 이인수 종무실장은 "등기 이전 작업을 마치는 대로 현재 논의 중인 문화공간, 템플스테이 등의 수덕여관 활용방안이 매듭지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사진/예산=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이응노의 문자추상 암각화 '눈길'

이응노 화백은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2년간 옥고를 치룬 뒤 69년부터 2개월간 요양을 위해 수덕여관에 머물렀다. 그때 작업한 것이 바로 수덕여관 뒤뜰 너럭바위에 남아있는 암각화이다.

두 개의 바위에 각각 나눠져 새긴 암각화는 '만물의 쇠하고 흥함'을 문자도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화백이 60년대 한창 빠져있던 문자추상을 보여주는 이 암각화는 한글 자모들이 풀어져 서로 엉키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큰 바위의 오른쪽 구석에는 보일 듯 말 듯 '이응노'라고 자신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다. 이 화백의 문자추상의 경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수덕여관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작품이다.



가수 김종국 해인사 간 까닭은?

어린시절 살다시피 … 참배 후 장경각 불사 동참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함께한 가수 김종국씨.

종횡무진 방송가를 누비는 가수 김종국씨가 1월 12일 합천 해인사를 참배했다.

해인사를 방문한 김종국씨는 "할머니 댁에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가족과 함께 해인사에 왔다"고 말했다. 할머니 댁이 해인사 신부락에 있는 김종국씨는 어린시절 해인사에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해인사와의 인연이 깊다.

1시간여를 해인사에서 머문 김종국씨는 법당과 장경각을 참배한 후 동판 팔만대장경 불사에도 동참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김종국씨와 차를 마시며 "일본 중국에까지 진출해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

배지선 기자

KBS 기획다큐

마음

KBS1TV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일 저녁 8시)을 통해 마음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검증작업을 벌인다. 1월 15일 방송된 제1편 '마음 몸을 지배하다'에서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첫 회에서 정의한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두뇌의 활동과 뇌에서 나온 전기신호이다. 22일 방송된 제2편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는 역도 장미란 선수 등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 변화를 보여줬다.

무의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마음'은 앞으로도 네 차례에 걸쳐 마음과 무의식, 기억과 용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3편 '무의식에 새겨진 마음을 깨우다'(2월 9일)는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하고, 제4편 '기억을 버려라'(2월 5일)는 대형 참사의 고통과 창의성 부족 등을 기억의 측면에서 해석한다. 제5편 '편안한 마음이 좋습니다'(2/12)는 이완과 명상을 통해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위대한 심성인 '용서'를 제6편 '당신을 용서합니다'(2/19)에서 과학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서공임 길상화 초대전

불자 민화가 서공임씨가 2월 5일까지 한국일보 갤러리에서 길상화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견도', '신구도' 등 개 그림 20점과 용 호랑이 닭 등 십이지신도 20점이 함께 선보인다. (02)724-2613

고암 정병례 전각전

고암 정병례 전각전이 2월 5일까지 서울 팔판동 갤러리 진선에서 열린다.

'길상'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길상집' '적복' '까치와 호랑이' '오봉산일월도' '삼족봉황'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길상문을 집안에 걸어놓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네 풍습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02)723-3340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인도불교성지순례(룸비니,니르바나,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계로 2월 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 20만원 동참금 205만원

제1일 델리도착
제2일 델리, 럭나무,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헤트)
제3일 룸비니 | 마야데비 사원 | 구룽못 | 아쇼카 석주 순례.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르 홈무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샬리 | 파트나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빔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련선하(Niranjana River) | 칠선처 | 금강보좌
제7일 갠지스강의 일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항하사 순례 | 다메크 수토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바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룸비니

구마모토 성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아소산,벳부,지옥온천)

4박5일 2월16일-20일 동참금 55만원

선박료,호텔및식사(선내식),관광입장료,부두세,항만세.
여행보험(1억원)가입,가이드및기사팀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키 향발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궁 :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제3일 사루마와시 원숭이쇼 | 아소활화산 | 쿠사센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옥천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제4일 벳부 | 하모니랜드 관광 | 우사신궁 관광 | 시모노세키항
제5일 KTX 84 | 서울역

지옥온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 2004-8295 Fax (02) 2004-8296 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발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에는 지난 1년의 불교계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 · 하 두권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큰스님 법문, 불교교리 및 다양한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로 참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주문 및 문의

- 구 성 : 상권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 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 격 : (상 · 하 2권) 총 80,000원 (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과년호 한정판매!!

-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 | Email: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62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월 25일(음력 12월 26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스님: 복 많이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질문자1(남): 심응회 회원입니다. 스님께서는 고구정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미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 용지를 보시고) 이 종이를요, 이렇게 뒤집어서 쓱 한번 접어 보세요. 뭐 다 요량이죠.

▲질문자1(남): 먼저, 신선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연연해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싫어하니, 세상이 싫어서 신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바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이야기처럼 세상이 싫어서, 왜 이런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혹은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게 다 공부 재료로 알고 감사히 생각해야

▲큰스님: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부자를 건너다 볼 수도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예, 허허허…, 포기해서 신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신선이라는 것은, 내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도리를 알아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도리를 안다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신선이에요. 그러니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오는 대로 모든 것을 대치해서 놓고, 가는 것도 잡지 말아라.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공부 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신선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질문자1(남):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처지가 힘드니까 신선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나왔는가 이런 것을 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큰스님: 으응,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서 아주 피치 못하고 그냥 사는 거니까, 자기가 벌려 놓은 거니까 자기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나오는 것도, 못나게 나오는 것도, 모습을 짐승으로 나오는 것도, 뭐 개로 나오는 것도 모두가, 부자로 사는 것도 자기가 지어 놨기 때문에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지 누구한테 원망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닥치는 대로 그것을 재료로 알고 '어, 내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감사하구나, 오히려.' 그러고선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간다면 다시금 그게 바꾸어지죠. 운명이나 팔자,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 인과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없어지죠. 지금 없애고 가시는 길이죠, 모두.

▲질문자1(남): 예, 스님 말씀을 '현실에 오는 어려움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큰스님: 예. 사실인 걸요, 뭐.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어느 도인의 말로는 우리 나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감이 태어나기는 해도 이 땅이 골육상전의 기운이 있는지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인물을 죽여 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거나 세상을 살아 보아도, 나라를 망치거나 사업을 실패할 때도 적이나 경쟁자보다는 같은 민족이나 친한 사람의 해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끼리 더 해치려는 마음이나 시기심이 강한지, 또 이런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런데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든 국민성이 물질로만 치닫는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계의 그 모든 너그러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숨겨져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보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서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나섰다 하더라도 치워 버리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상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보죠. 아까 내가 떡 먹는 사람 얘기했죠. 저 중국의 왕이 '음, 조선을 치면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이야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모두가…, (질문자에게) 그 뜻이 안 돌아갑니까, 그렇게 고개짓을 하시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이 생명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 세계로 비추어 볼 때 전력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력들은 다 통하게 돼 있죠. 어떤 용도로 쓰든 전력은 전력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바퀴는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불바퀴와 저 불바퀴를 한데 합치면 (손바닥을 서로 부딪쳐 보이시고) 둘이 아닌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든지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희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어.' 하고 관해 보세요. 모두 물질계에서 처잠하게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밟으면 또 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마음들을 한데 합쳐서 기울여 보시면 중국에서 말한 뜻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질문자1(남): 결국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스님: 그렇죠. 평등공의 법이라는 것은 철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선지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부 한손이 돼서 응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깐요.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중국의 사업가가 한국 사람들이 신용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류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큰스님께서 '좋은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나 가족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사로 거짓을 말하면서 큰스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신용이 없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큰스님의 말씀에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면, 어쩌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신용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한국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애는 애 노릇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 하랬지 누가, 아니, 어른 노릇 해야 할 때 애 노릇 하라고 그랬고, 애 노릇 해야 할 때 어른 노릇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속상해서 병이 들까 봐, 자기의 속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효(孝)고 거짓이 아니죠. 또 자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분계세요? 다 못하죠? 그게 거짓 아닌 거짓이면서도 아주 참, 뜻이 깊은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거짓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 아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질문자1(남): 네, 스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겠지만 특히,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애가 어른이 다 됐다고 우기는 그런 입장에….

모든 것을 근본에다 하나하나 놓고 간다면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고가 몰락 그냥 없어져

▲큰스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처가 돼도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냐?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 보죠. 댁들 몸속에 중생들이,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혼자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자1(남): 더불어 먹었죠.

▲큰스님: 더불어 먹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었다' 그러고 내세울 수 없죠?

▲질문자1(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 하고 천차만별로 다 그렇게 나투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랬으니 이게 닥쳐오는 대로 그러한데 뭐 그게…, 할 일은 해야 하고 안 할 일은 안 해야 되는 거고,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다고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다 내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나다' 한다면 이 속의 생명체들이 '흥, 네가 했다고, 네가 안다고 한다면 너 혼자 실컷 알아 봐라. 너 혼자 실컷 해 봐라.' 이러고선 작용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자꾸 빗나가게끔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는 게 이 부처님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으니 나 혼자만이 있다고 세울 게 없는 것이 여래니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것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때때로 큰스님께서 가르치는 여러 생활의 방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몇 년간의 한마음 공부가 수행하는 태도에 오히려 방만과 자만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고, 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재하자고 말하고 싶어도 왜 걸리냐는 상투적인 반응이 싫어서 아예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난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매사에 걸리지 않는 자재로움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권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스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큰스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그러죠. 애가 갓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거와 같이 이 마음공부를 하되 진짜로 맡기고 진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그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살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을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다면 어떤 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생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건 무명을 벗겨 주니까 먹어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 '어린애는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라' 이겁니다. 허허, 먹되 무명을 쓰고 애탄지탄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주인공에 맡기고 먹어라. 그 몸뚱이의 살점 하나를 그런 사람이 먹기를 바라면서 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게 벗어나기가 힘드느냐 하면, 소로 살았으면 소의 습성이 잔뜩 붙어서 그 영(靈)도 사람으로 가지 않고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면치 못해요.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잘나 알았으면 훌떡 뛰어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명을 벗지 못하고 세세생생에 그 모습을 쓰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을 벗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라도 선승(禪僧)들이 그 살점 한 점 잡수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고 그냥 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풀 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소가 왜 여물만 먹고 삽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먹히는 고기나 먹는 사람들도 다 방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큰스님: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먹든지 그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지혜롭고 틀림없는 사람들 같다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먹되…, 옛날에도 이런 점이 있죠.

산간 절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됐어요. 제자가 생각을 하니 참 무엇을 어떻게 갖다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통을 들고 나갔어요. 지렁이를 그냥 수백 마리를 잡아서 푹 고아 가지고선 그거를 체에다 착 받쳐 가지고 버리고선 '지옥을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지옥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갖다가 드리니까 "이게 무슨 물인데 이렇게 맛있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뿌리를 고은 물입니다." 하고선 갖다드렸더니 그것을 먹고 병이 완쾌돼서 건강하게 도로 다니시더랍니다. 그래도 이것은 풀뿌리라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갔겠네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아닌 거짓이 효가 된다 이랬죠. 자기가 죄를 받고 죄를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오직 그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다 죽였다면, 그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골바로 인간으로 전부 환생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닭을 수십 마리를 죽였다 해도 닭의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뜻을? 닭 수효대로 사람으로 화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면 30마리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환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손들이,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신(應身)으로 화해서 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천도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이 없죠.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도리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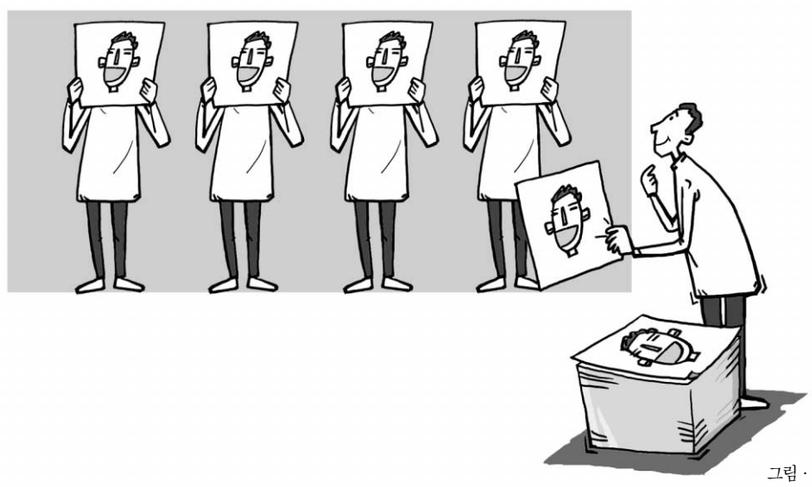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질문자1(남):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경허 스님은 무애행(無碍行)을 많이 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 열반에 드신 성철 스님은 그 입장을 조금 배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 입장을 뭘요?

▲질문자1(남): 경허 스님의 무애행 그 자체는 긍정을 하시지마는 일반 대중들에게 비쳐지는 데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무애행을 권장하는 입장과 다른 입장에 서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큰스님: 이거 보세요.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철 스님은 그거를 자기가 알더라도 중생들에게 비칠 때 누(累)가 되지 않게 하지 그랬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겠죠. 또 경허 스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뛰어넘어라.' 하고서 (오른손 주먹을 쥐어 들어 보이시고)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높으냐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피장파장이에요. 한 분은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고, 한 분은 그거 왜 자꾸 누가 되게 하느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요.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대중 박수)

▲큰스님: 이 마음의 길을 걷지 않고는 그 도리를 모릅니다. 모두 몰라서 내가 이런 대답을 해도 '저게 뭐 마땅한가?' 이러겠지만 사실이 그러니까요. 한 손에 뼈다귀를 들고 다른 손에 술을 한 바리 때에다 착 들었으니, 야! 뼈다귀 든 거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건지고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됐고, 술 바리때를 든 것은 수레바퀴처럼 물처럼 모든 중생들이 다 찰나찰나 돌아가느니라, 하는 거죠. 물이 수없는 중생들에게 양식도 될 수 있지만 또 뜻을 크게 본다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리때예요. 그러니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부요, 공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을 쓰다 달다 생각 없이 그냥 참, 그대로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나처럼 말입니다. 하하하…. (대중 박수)

▲질문자2(남): 스님,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드릴 요지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안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냐 흑이냐 하고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러고 '그거 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거기에서 지금 약간 맴돌고 있기에 질문드리러 나왔습니다.

▲큰스님: 긍정적인 일은 해야죠?

▲질문자2(남):네.

▲큰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렇게 댁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게 묘법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게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두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 소리예요. 한 구멍에다가!

▲질문자2(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하는 데 있다 그러는데, 선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뒤에는 또 악행이 뒤따른다 하는 상반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옳은 길이면 가면 된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선행이 있으면 악행도 있는데 선행과 악행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큰스님: 이거 봐요. 받아들이라는 이치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했다, 접근을 해 온다, 망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소립니다. 왜냐? 전력에 비유한다면 어떤 용도에 쓰든 전력이 똑같듯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나 좋게 하는 사람이나 그 전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리만리도 멀다 하지 않고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에 그 마음과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응신이라고 그러죠. 만보살(萬菩薩)이 응신으로 화해서 각계각층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 나투어 주신다! '나투어 준다' 하는 거는 병을 앓는 데는 의사가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돼 주고, 또 좀더 살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칠성이 돼 주고, 이렇게 나툰단 말입니다. 딴 걸로 화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질문자2(남): 네.

▲큰스님: 자꾸자꾸 바뀌어서 만나고, 바뀌어서 말하고, 바뀌어서 듣고, 바뀌어서 보고, 발자국을 떼어 놔도 딴 데를 자꾸 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모든 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도 하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차차차차 잘못되는 그 자체를 잘되게끔 자꾸 연결이 돼서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야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건지라는 거지, 악한 거를 버리게 되면 인과가 돼서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과 선을 몽땅 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그냥 되돌려 놔라는 겁니다. 남이 그르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아. 그 사람도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깐 그렇게 해.' 하고서 거기다 놨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그리고 그 뒤에 말 한마디 또 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차례차례로 녹음을 하죠, 네? 녹음한 대로 차례차례로 먼저 한 거부터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한 거는 맨 끄트머리로 나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과거에서부터 녹음이 돼서 차례차례로 쌓여졌다고 할까요? 쌓여진 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업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딴 사람은 그렇게 잘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됩니까." 하고 오는 사람 앞에는 아무 말 없이 "정성이 지극하면 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업이 너무 쌓여서 그게 모두 다 녹아야 되니까 나온 자리에다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지면서 줄어들 텐데, 그래서 그게 거반거반 다 됐으면 '어, 이제 거반거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악업들이, 모두 나쁜 고가 쌓인 것이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 있고 지혜롭고 이래야만이 입력된 걸 무난히 다 폐지시킬 수가 있죠. 새로 좋은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질문자2(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삼 배를 올리는 질문자에게) 삼정례(三頂禮)를 일정례(一頂禮)로 합쳐서 하나로 합해서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자유스러운 법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거든요. 허허허….

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고 가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맡기고 진짜로 물러서지 말아야 해요

▲질문자3(남): 큰스님, 저는 수유동에서 왔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 치고 부모님의 병환에 대해서 근심 없는 자식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님께서 모 대학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직껏 살아오시면서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옳게 살아왔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옳게 살기를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스님 말씀대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육신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큰스님, 저희 모두에게, 저희 아버님에게 한마음 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음, 그러시다면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하더라도 '내 깊은 마음속의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네 몸뚱이의 병을 고칠 수 있어.' 하고 그것 한 마디만 관(觀)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꼭 접근이 될 겁니다. 통신이 돼야 됩니다. (합장을 하시며) 또 없습니까?

※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포항 운주산
도 선 사



주 지 운산(김정열)
신 도 일 동

병술년 새해 새날을 맞아
본사 소승이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일로,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표창장(제35228호)을 받은 것은 평소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신 여러불자님에게 그 공을 지면으로 나마 회향하고자 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2리 1488
전화 054)246-4467
팩스 054)241-4718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2. 6 월 · 화 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서화당인생풀이 V2.2(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특별 할인 후 : 총3장 220,000원(무료?)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 상담기록, 출력기능, 상호등록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문답형), 알기쉬운 약선요법(식품류, 약재류) 사상의학강의실, 나의건강정보, 생활속의 약선요법, 사상체질식단 등
인장성명학 개요(성명학,인장학,개운법) 성명풀이(한글,한자) 음양오행 사주풀이 작명(음양,음오행,수리<원격,형격,이격,정격>,감명결과) 상호등록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국내최초 동양철학 사주자판기 "사주천하 특허 획득" 및 "LG산전 500여대 납품실적"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 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110,000원 총 ₩440,000원에서 -50% 할인 후 ▶총3장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구입방법 1안 : 금번행사 특별가격 ₩220,000원을 입금하고 구입하는 방법
2안 :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가입을 변경하고 ₩110,000원에 구입
3안 : 사무실과 집의 인터넷을 변경 후 "무료"로 구입하는 방법

위 특가행사의 구입방법중 고객님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통신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이명수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구요! 지금보다 최대 25배 빠르고 저렴한 LG파워콤(방송광고중) 또는 현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쓰세요.
전화 한 통화로 전국에 가입 설치합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740901-01-310096 우체국 313049-01-003391
농 협 453050-55-002174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 전 대 학 교 철 학 과 교수 송인창
전국대표번호 ☎ 1600-4684(사주팔자) / H·P 010-3366-3366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불사
● 주 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산 134
● 대표(주지) : 송경락

위 사찰과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위에 탈종함을 알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지장행자의 길 가렵니다 (하)

- 현대불교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작 -

총화종 총무원장상 / 김남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선배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게 됐지만, 출근하기 전 10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지장기도 회향 일이 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하루라도 빨리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퇴근 후에 기도를 해서 회향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원만 회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 절에서 기도하기가 여건상 어려워서 입제와 회향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며 오고가는 차안에서 등 시간이 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고 그 다음 부터는 <천수경>의 '정구업진언' 부터 '개법장진언' 까지 하고서 <지장경>을 1품부터 13품 까지 1독을 하고 발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장보살 정근을 천주를 10번 돌리면서 1만 번하고 그 다음에 다라니를 10번 이상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하고서 회향을 합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걸어가면서 아니면 차안에서 등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구애 받지 않고 한답니다.

그리고 불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70여개의 불교 카페에 가입을 해서 신행수기도 올리고 부처님 말씀도 전하면서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신행단체에서 포교부장의 임무를 맡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가사의한 경험을 한 내용이 많이 있으나 한정된 지면인지라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올리고 이 보잘 것 없는 글이 인연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 발심하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이 있다면 작고하신 외할머님을 위해 절을 지어서 은혜에 보답하고 종단에 시주를 하는 것이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포교사가 되어 설법 제일 부루나 존자님과 같이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를 누비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생과의 인연을 마감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혹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만 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한번쯤은 그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생 업장 때문에 현생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취직 후에도 기도는 생활의 큰 부분
70여 불교카페 가입하고 포교에 열심
"일심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 되리라"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되면 마지막에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기도와 수행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신심을 갖고서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한다면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정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신의 업장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지 않고는 소원성취는 물론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법력이 높은 선지식을 만나서 좋은 기도법을 전수받아 열심히 기도정진을 하면 업장소멸이 빨라지고 소원성취도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장기도를 권해드리고 싶고 지장기도야 말로 업장소멸은 물론 소원성취를 빨리 이룰 수가 있고 성불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자세부터 올바르게 갖고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체의 의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려야 하며 앉으나 서나 지장보살, 자나 깨나 지장보살, 꿈속에서도 지장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보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지식들께서는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는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담긴 보시를 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진솔한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참회와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한 다음 보시를 통해 복을 지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복이 차차 쌓여지면 소원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기도를 하다보면 하기 싫어질 때가 더러 있고 또 장애가 생겨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즉 '마장' 이라는 것인데 대개는 여기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럴 때는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더욱 용맹심을 내서 기도정진에 몰두를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든다면 그 때는 영험록과 소원성취 수기집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마장이 나타나지만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는 마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거든요.

우리 불자들은 너무도 조급하고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인연이 도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노력과 신심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앞당길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최소한으로 천일기도는 해야만 된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의 본바탕인 마음자리는 상주불멸이라 생로병사가 없는 진여의 자리라 말할 수 있겠지요. 금생에 이 몸 받았을 때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에 인간의 몸을 받아서 수행정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에는 4난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생에 인간의 몸을 받았고 불연과 전생에 지은 인연공덕으로 인해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전에서 지장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전생의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고 금생에 더욱 정진해서 소원성취와 복락을 누리시고 사후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인도아래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56억 7천만년후에 도솔천에서 강림하사 화림원 용화수 아래서 부처님이 되실 미륵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 설법을 듣고 깨달아 우리 모두 중생고를 벗어나서 성불합시다.

나무 중생도진 방증보리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구독안내 : 구독료 월 5천원 / 납부방법 : 1. 전화요금합산 2. 자동이체 3. 지로
신청문의 : 고객1팀 02)2004-8211~2 / Fax 02)737-0697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100% 적중률 의 육임천문학 CD 한 장이
직업에는 대박! 명예는 운세박사!



선택? 누구든지 배움은 전혀 필요없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소자본및 무점포 창업) 운세의 배움이 전혀 없어도 전문상담용 CD의 출간으로 구입즉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CD내용의 실력은 20년이상 운세상담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실력면에서 월등히 앞서가며 인간사에 필요한 운세의 모든 상담이 가능하고 적중률은 100%를 자랑한다.

2006.1.15. 판매시작
▶CD가격 : 150만원

선택? 운세의 상담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사업이고 육임천문학이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5,000년동안 육임학은 운명학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는데 배우기가 어렵고 난해하여 모두 중도에 배움을 포기했지만 우당 천문학연구소에서 몇 년간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육임학의 신비함과 천문학이란 과학적인 운세의 학문을 결합하여 CD에 수록된 내용을 통하여 그냥 말씀만 하셔도 100% 적중하는 운세의 새바람과 확실한 직업으로 각광받는다.

선택?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고 뛰어난 적중률의 운세프로그램은 없었다. 2005년 대한민국 운세의 년매출이 약 2조원이 된다고 언론및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였고 역학상담소및 무속인,포교원등의 영업장소는 전국에 2000여만 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90%이상이 적중률에서 뒤떨어져 있어 육임천문학을 쉽게 배우기를 갈망해 왔는데 우당 육임천문학 연구소에서 개발된 CD가 확실한 내용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킬수 있다.

※ CD영업사원 모집 (월500만원 - 1,000만원가능)
우당 천문학연구소
연락처: 031)675-0202 / 032)345-3444

※ 육임천문학 CD는 정확한 적중률로 운세통신 사업에도 초강력 태풍을 몰고왔다.
통신사업 희망자 신청안내 : 2006년 1월 20일부터 - 2006년 2월10일까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진 합장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사가 한창인 다솔사 선방은 전통방식을 그대로 살려 대나무로 엮은 외(畏)로 벽을 만드는 등 생태건축의 본보기라 할만하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3) 사천 방장산 다솔사



①일주문과 천왕문 역할을 하는 다솔사 들머리 솔숲.
②적멸보궁 사리탑 뒤 언덕 아래에 위치한 다솔사 만덕산 표지석.
③다사(茶寺)로 불리는 이유중 하나인 야생차밭.
④너덜로 쌓아 석실고분을 연상케 하는 다솔사 산내암자인 보안암 석굴.
⑤긴꼬리가 돋보이는 오목눈이. 방장산에서는 겨울철에도 오목눈이를 만날 수 있다.









자연소재와 옛 건물자재 재활용해 불사

생태건축의 본보기

우리나라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지리산을 비롯해 '방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들이 많다. 경남 사천의 봉명산도 '방장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지리산에서 갈라진 낙남정맥의 한 지봉인 방장산 기슭에 다솔사(多率寺)가 자리 잡았다.

70~80년된 울울창창 소나무들 삼문 역할

다솔사는 연기(緣起) 조사가 개창한 이래 도선국사, 나옹화상 등 고승대덕들이 수학했고, 한말에는 만해 한용운과 효당 최범술이 머물렀다. 김동리는 젊은이들을 모아 야화를 열며 소설 <등신불>을 남겼다.

다솔사는 일찍이 소나무가 아름다운 절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나 주차장에 내리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여기저기 무리지어 있는 20~30년생 편백과 삼나무들이다. 주차장 상가 뒤쪽으로도 편백과 삼나무숲이 호젓하다.

편백숲을 지나 삼거리에 이르면 수령 70~80년에 이르는 노송 숲이 시작된다. 다솔사를 처음 찾는 이들로하여금 이 숲을 보고 절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즐거운 착각을 하게 만드는 소나무숲이다. 다솔사는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는 무문의 절집이다. 이 울울창창한 소나무 숲이 바로 다솔사의 삼문(三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풍이 불어 솔가지를 흔들며 지나간다. 한때 다솔사의 어른이었던 효당은 찻물 끓는 소리를 이 솔바람소리에 비유했다. 사람의 귀를 긴장시키지 않는, 차를 끓이기에 딱 알맞은 온도의 물 끓는 소리….

숲길 오른쪽 길섶에 붉은 글씨로 '어금혈대표(御禁穴對表)'라고 새긴 큰 화강암 바위가 있다. 고종 때인 광무 연간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 표석은 금송(禁松)을 위해 세운 다른 지역의 금표(禁標)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 전하는 바로는 인근 10리가 다솔사의 땅임을 알리는 표석이라고 하지만, 요즘의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입산금지' 표지석 쯤으로 이해된다.

현대식으로 바뀐 해우소 외형은 그대로

전통해우소는 예전에 다솔사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해우정(解憂亭)'이라는 별명을 가진 옛 해우소를 허물고 몇 해 전에 새 해우소를 다시 지었다. 외형은 옛 것을 닮았으나, 처리 시스템은 분뇨차가 파이프를 변소에 넣어서 분뇨를 퍼가는 식이다.

대양루(大陽樓)는 다솔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749년에 중건하면서 <다솔사대양루사왕문중건기>를 남겼다. 그 중건기에, 방장산의 형국이 대장군(大將軍)처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다[多率]'고 해서 절 이름을 다솔사라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울울창창했을 아름드리 소나무를 두고 '많은 군사'라 하지 않았겠는가.

적멸보궁 사리탑 뒤 언덕 아래 '萬德山…' 운운하는 비석이 서 있다. 이 비석은 들머리 소나무숲 속에 있던 '어금혈대표'와 필연 무슨 연관이 있어 보인다.

마침 대중선방 중창불사가 한창이다. 요즘 불사들은 편의를 추구한 나머지 외형만 전통양식일 뿐, 내부구조는 거의가 '짝퉁'이거나 퓨전건물이다. 그런데, 이곳 대중선원은 아궁이와 구들을 둔 온돌 구조이다. 자재들도 모두 흙과 돌과 나무 등 자연소재들이다. 대나무로 외(畏)를 엮고 황토로 벽체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옛 건물에서 나온 자재(나무)들도 말끔히 대패질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어서 생태건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적멸보궁 뒤 차밭은 내화수림대 기능도

적멸보궁 뒤로 넓은 비탈에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이 차밭은 효당이 인근에 자생하던 차나무 씨를 받아 일군 것이라 한다. 다솔사 차밭은 산불이 절까지 내려와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내화수림대 기능까지 갖고 있다. 다솔사는 다인들 사이에 '다솔사(茶率寺)' 또는 '다사(茶寺)'로 불린다. 효당이 있고, 야생차가 자라고, 반야로(般若露 : 죽향차) 다향이 있기 때문이다.

방장산의 활엽수들은 다솔사에서 봉일암에 이르는 구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수령 50년 이상의 굴참나무 노거수들이 많이 보인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60~70년대, 굶주린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 몰래 굴참나무 껍질(굴피)을 벗겨 내다팔아 연명했다. 그때 굴피를 벗긴 자국들이 나무마다 상채기로 남아있다. 다행히 굴피는 다시 돋아나 스스로 아픈 상처를 덮어주고 있다.

다솔사는 바다가 그리 멀지 않은 절인데도 해양성 또는 난대성 상록식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봉의꼬리고사리를 비롯해 몇 종류의 양치류만 겨우 푸른빛을 띠고 있을 뿐이다. 다솔사 주변의 조류상은 종의 다양성 측면이나 개체수에서 다른 절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그것은 소나무, 삼나무, 편백과 같은 상록수가 활엽수에 비해 분포 면적이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햇볕 안 드는 야생화 화단 생태맹 보여줘

봉명산 군립공원인 방장산은 지자체에서 나무계단 몇 곳과 전망대 하나 세워둔 것이 고작이다. 봉일암을 내려오면 나무 계단이 산 위로 나 있다. 나무 계단부터는 활엽수림이 끝나고 온통 소나무 단순림이다. 분서(分棲)현상이 뚜렷하다.

당국이 '공원'이라는 체면을 생각해서 햇볕도 안 드는 솔밭에다 야생화 화단을 조성해 놓았다. 그것도 원추리, 옥잠화, 하늘매발톱, 꽃잔디, 패랭이, 돌단풍 등 햇볕 없이는 못사는 것들만 심어놓았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태맹(生態盲)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다.

방장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곡이나 개울이 발달하지 않아 물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건산(乾山)이라는 점이다. 큰절에서 보안암까지 가는 길에 물을 담은 계곡도 개울도 하나 없다.

방장산은 부드러운 육산이다. 방장산의 바위들은 빙하기 때 풍화작용으로 붕괴되어 '너덜'이라고 불리는 테일러스(Talus)로 변했다. 자연은 문화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이 너덜은 우리의 산간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산중 암자나 토굴은 너덜환경의 소산이다. 수행자들은 너덜로 석축과 담벽을 쌓고, 돌길과 돌계단을 놓았다. 이 너덜이 아니면 가파른 경사지에 건축은 불가능하다.

다솔사의 산내암자인 보안암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님을 모신 석굴과 4미터에 이르는 가파른 석축도 모두 너덜로 쌓은 것이다. 적석총(赤石冢)이나 석실 고분을 연상케 하는 보안암 석굴도 너덜의 소산이다. 토함산 석굴암을 닮은 감실도 너덜로 쌓여져 있다.

보안암 주변에는 이끼가 많다. 겨울인데도 너덜과 석축에 이끼가 파랗게 끼었다. 보안암에서 이끼를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장을 붙여 놓은 걸 보니 등산객들이 가끔 이끼를 벗겨 가는 모양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www.mahamall.co.kr
마하몰 설날 제수용품 특가전

팔상도 산수화 8폭 병풍

■ 규격(cm) : 164×335

■ 특징
큰의미가 담겨있는 최고급산수화8폭병풍.
후레임 등에 쓰인 마다카 나무가 일반 병풍보다 2배이상 두껍고 비단, 천, 한지 등의 재료를 최고급으로 사용하여 만듬. 한국의 산수화 속에 세계4대 성인의 한분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넣어 의미를 더욱 높인 병풍.
뒷면에는 석주 큰스님의 반야심경 친필 글씨를 영인본으로 6폭표구하여 가치를 높임. 공장에서 많은 수량의 병풍을 만든 것이 아니고 표구전문화랑에서 소량만 100%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병풍.


석주스님 친필 반야심경(뒷면)
₩258,000


고급천 반야심경 6폭병풍
₩148,000
■ 규격(cm) : 155×260


진품 군방도 6폭 병풍
₩260,000
■ 규격(cm) : 142×267


사군자 손자수 8폭 병풍
₩295,000
■ 규격(cm) : 160×320


풍속도 연결 8폭 병풍
₩208,000
■ 규격(cm) : 160×320


문방도 8폭 병풍
₩198,000
■ 규격(cm) : 164×335


경작도 손자수 8폭 병풍
₩198,000
■ 규격(cm) : 160×320

백천이한동 풍속도 8폭 병풍

■ 규격(cm) : 160×320

■ 특징
명심보감등에 있는 가훈적인 글귀가 폭마다 실려있고 뒷면에는 추사 김정희(제주도 유배시) 한시(영인본)를 표구.
후레임을 죽절 모양으로 쳐리하여 고급스러움. 살을 촘촘히 하여 견고하게 만듬.
나무 재질을 마디카를 사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뒤틀림을 방지함.
앞 뒷면 바탕을 진주비단으로 표구함.


추사김정희한시(뒷면)
₩198,000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